

재미 있는 싱할라~ සරල සිංහල

개정 2판

류혁수 저
ඒ. සී. චන්ද්‍රමරණ්හ ග්‍රන්ථකර්තෘ

한국 해외 봉사단 (KΔI/A)

책을 열면서

이 책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서 시작했다. 스리랑카에서 봉사단원으로 살아온 지 벌써 1년 7개월. 스리 랑카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말하기엔 아직도 모자란 세월이고 싱할라어를 잘 한다고 하기에다 아직은 스스로가 부족하다. 나 스스로 봉사단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을 무렵의 내 인생 앞에 떨어진 하나의 일탈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모자라지만 감히 이런 대형 사고를 저지른 데 있어서 책을 써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한 Koica 스리랑카 사무소가 정말 그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정말 그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

작으나마 내가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것, 내가 스리랑카 생활을 하면서 싱할라어나 스리랑카 문화에 대해 내가 느꼈던 것을 현재 한국에서 한창 스리랑카에 대한 꿈을, 포부를, 기대를 갖고 있을 후배들에게 좀 더 살에 와 닿는 그런 책이었으면 한다.

언어란 것은 책만으로는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 문서로만 의사를 전달할 경우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에 비해 7 퍼센트밖에 전달하지 못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바로 이 책 한 권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을 만들면서 감사하고픈 사람들이 참 많다.

먼저 이 책을 만들 계기를 만들어준 Koica 본부와 한영태 소장님, 봉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 주셨던 김병관 전 소장님, 그리고 늘 지난 1년 7개월동안 단원들을 무단히도 챙겨주셨던 도영아 부소장님,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속 늦어지는 책을 인내를 갖고 지켜봐 주셨던 유남현 선배님, 그리고 이천에서 지금까지 했수로는 3년째 함께 하고 있는, 늘 의지가 되는 강성래, 고은경, 권오영, 김부연, 김세민, 김양혁, 김종태, 김학준, 박찬일, 배락현, 송하중, 신원, 유대균, 윤남숙, 이영한, 우리 17기 동기 단원 형,누나들 그리고 다들 한마디씩 좋은 말을 해 주셨던 18기 단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부모님과 마음에 정말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혜성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혹은 스리랑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http://oster.nazero.net> 에 있는 게시판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 이 게시판이 7퍼센트를 좀 더 크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좋은 님들의 참여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대한 싱할라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가져본다.^

2005 년 7월 19일 스리랑카에서

17기 전기 류혁수

개정판과 함께

2006년 새해가 밝았다. 더불어 참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해본다. 벌써 재미있는 싱할라 초판이 나온지도 6개월이 되었다. 그 때는 국제 협력단 한국 본부의 바쁜 일정으로 상당히 급히 책을 쓰는 바람에 아쉬움도 참 많았다. 더 넣고 싶었던 내용들.. 교수님께 감수도 받고 싶었었고.. 이래저래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판은 초판에 빠졌던 문법들... - 아무래도 이번 개정판은 문법 보충에 주력했다. 초판에서 어렵게 설명되었던 부분들의 설명을 좀 더 보충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판의 오타들이나 잘못된 어구들을 감수를 통해 수정했다.

다음은 본 저자가 참고했던 책이다. 좀 더 풍부한 학습을 원한다면 참고하길 바란다.

- 한국어-싱할라 사전, 정은범 편저 ¹
- Teach Yourself Sinhalese , A.W. L. Silva 저
- 싱할라 회화집, 이현주 저
- Say it in Sinhala, J.B. Dissanayake

또한 당부의 말씀이 하나 있다. ‘재미있는 싱할라’로 공부할 때 1과부터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말았으면 한다. 이 책은 맨투맨 기본영어가 아니다. 1과의 글자는 초급단계에선 그저 참고 사항일 뿐이요, 일단은 말을 때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과~9과의 문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초급 단계에선 다소 예문들이나 대화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분석하려 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공부해 나가면 2년간 생활하면서 언젠가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10과에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필요로 하는 기본 단어들과 동사 변형, 그리고 형용사들을 모았다. 책을 씹어 먹을 듯이 꼼꼼하게 공부하지 말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언어는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감수해 주신 캘러니아 대학교 언어학부, 아소카. C. 뿌리마라뜨너 교수님 (කැලැනියා විශ්වවිද්‍යාලය වාග් විද්‍යා අංශය, අශෝක. සී. ප්‍රේමරත්න මයා)께 감사드린다. 본 저자에게 싱할라어의 기초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며 이 책의 70%는 교수님의 공이다.

또한 이 책을 쓴다고 편의를 봐주고 아낌 없이 후원해준 담불라 VTA(දඹුල්ල දිස්ත්‍රික් වෘත්තීය පුහුණු මධ්‍යස්ථානය)의 모든 선생님 특히, 트레이닝 매니저 아소카 피리스(ඒ. එල්. ඒ පීරිස් මයා), 용접 공과 교사 사마라공(සමරකොන් මයා), 그리고 나의 코워커이며 나를 잘 이해해준 위제나여꺼 (විජේනායක මයා), 그리고 내가 글을 쓸 때 옆에서 늘 틀린 점을 고쳐준 개구쟁이 나의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랑카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봉사단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6 년 1월 19일 한국에서

17기 전기 류혁수

¹ 2006년 현재 이 책은 절판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선배들에게 문의해서 복사 제본하기 바란다.

차 례

1과 싱할라의 글자와 발음	(1)
2과 소개와 인사	(11)
3과 길 찾기	(22)
4과 대중 교통 이용하기	(36)
5과 가게에서	(49)
6과 식당에서	(63)
7과 전화하기	(74)
8과 우체국에서	(85)
9과 병원에서	(95)
10과 부록 (필수 단어 모음)	(106)

1과 싱할라의 글자와 발음

පලවෙනි පාඩමි සිංහල භාෂාවේ අකාරාදිය සහ උච්චාරණය

1.1 싱할라의 개요

스리랑카는 인도양에서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스리랑카의 인구는 대략 185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74퍼센트 가량이 싱할라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다. 싱할라는 인도-아리안 언어로 산스크리트어와 북인도어, 특히 힌디어와 몹시 가깝다. 또한 문법적으로나 의미상으로 한국어와도 굉장히 비슷한 언어이므로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기초 의사소통을 하기에 전혀 문제됨이 없다.

싱할라어의 또 다른 특징은 구어와 문어의 확실한 구분이다. 문어(文語)에서는 좀 더 문법도 복잡해지고 단어에서 사용하는 글자마저 달라진다. 즉, 문어에서 쓰는 글자가 있고 구어에서 쓰는 글자가 따로 있다. 일단은 이 책에서는 기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어에 좀 더 초점을 두기로 한다.

1.2 싱할라의 글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할라어는 산스크리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래 표의 배치 역시 산스크리트어의 배열에 따른 것이다. 일부 싱할라 글자들은 산스크리트어 계열인 Kannada어 나 말레이어 그리고 Telugu 어와 굉장히 흡사한 특성을 보인다.

또한 특이한 것은 싱할라어의 조자(造字) 방식이다. 이 역시 산스크리트 어권의 영향으로 타밀어, 힌디어, Telugu 어, 말레이어, Kannada어 등 거의 대부분의 인도어가 동일한 조자 방식을 쓴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본 글자 자체가 모음 음가를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ㅏ’ 음을 갖고 있다.) 이 기본 글자에 표식을 첨가하여 특정 모음 표기를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

아래 표에 따로 표기되어 있는 모음의 경우 모음이 단어나 문장의 첫머리에 나올 경우에만 쓰일 뿐 나머지 경우에는 자음에 어떤 표식을 첨가하여 모음 표기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설명을 보도록 하자.

아래는 싱할라 글자표이다.

01 ආ (a)	02 ආ (a-)	03 ආ (ae)	04 ආ (ae-)	05 ඉ (i)	06 ඉ (i-)
07 උ (u)	08 උ (u-)	09 උ (e)	10 උ (e-)	11 උ (a-i)	12 ඔ (o)
13 ඔ (o-)	14 ඔ (a-u)				
15 ක (ka)	16 ක (kha)	17 ග (ga)	18 ඝ (gha)	19 ච	20 ච
22 ච (cha)	23 ච (cha)	24 ච (cha)	25 ච (jha)	26 ච (cha)	27 ච (cha)
28 ච (cha)	29 ච (tha)	30 ච (cha)	31 ච (dha)	32 ච (cha)	33 ච (cha)
34 ච (cha)	35 ච (tha)	36 ච (cha)	37 ච (dha)	38 ච (cha)	39 ච (cha)
40 ච (cha)	41 ච (pha)	42 ච (cha)	43 ච (bha)	44 ච (cha)	45 ච (cha)
46 ච (cha)	47 ච (ra)	48 ච (la)	49 ච (cha)	50 ච (cha)	51 ච (cha)
52 ච (cha)	53 ච (cha)	54 ච (la)	55 ච (ksa)	56 ච (dwa)	57 ච (fa)

1.2.1 මහප්‍රාණ(마하쁘라너)

위 글자표에서 16 **ᄀ**, 23 **ᄁ**, 29 **ᄂ**, 35 **ᄃ**, 41 **ᄄ**, 18 **ᄅ**, 25 **ᄆ**, 31 **ᄇ**, 37 **ᄈ**, 43 **ᄉ** 글자(색칠된 글자)는 **ᄀᄁᄂᄃᄄᄅᄆᄇᄈᄉ**(마하쁘라너)라고 불리우며 각 글자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 자음(Ordinary Consonant)’에 비해 좀 더 강한 소리들이다. 이른바 기식음(氣息音)이라 일컬어지며 원래는 유성음을 무성음으로 만들어 주면서 기도에서 새는 소리가 나온다. 주로 ‘쓰는 글’, 즉 문어체(文語體)에서 주로 쓰이며 부득이 하게 대화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좌측의 일반 자음의 음가대로 소리내면 된다. (예: **ᄀ**(dha), **ᄁᄂᄃᄄᄅᄆᄇᄈᄉ**(자나dhi뻐띠) -> **ᄁᄂᄃᄄᄅᄆᄇᄈᄉ**(자나디뻐띠) 대통령)

또한 비록 마하쁘라너는 아니지만 위 표에서 색칠된 글자들은 싱할라 언어 생활에 있어 거의 쓰지 않는 음들이므로 발음에 대해선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26 , 27 , 55 , 56  은 ‘  (밴더 아꾸루) 묶인 글자’라 하여 산스크리트어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이다. 따라서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며 역시 문어체에서는 많이 쓰이나 대화문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1.2.2 බිංදුව (빙두위) ◦

20번 글자 බිංදුව(빙두위) ‘◦’는 우리 말의 ‘ㅇ’ 받침과 동일하다. 19번 𑖇은 20번 ◦의 고어의 형태로서 현재는 쓰이지 않는다. 다만 아직까지 글자표에는 남아 있어서 불가피하게 병기 했다.

ලංකා (랑카) 랑카 (스리랑카 국가명)

1.2.3 동일 음가

32번 𑖦(나)와 38번 𑖨(나)는 동일한 음가를 지닌다. 음성학적으로는 32번 𑖦(나)를 මුර්තඡ 𑖦 යන්න (무르떠저 나 얀너) 반전음, 38번 𑖨(나)는 දන්තඡ 𑖨 යන්න (단떠저 나 얀너) 치음이라 하여 그 발음이 조금 다르나 그냥 현실 생활에서 쓰기에는 동일하다고 인식해도 큰 무리가 없다. 48번 ල(라)와 54번 ල(라) 역시나 일상 생활 속에서의 그 음가는 동일하다.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54번 ල(라)는 සන්ඤ්ඤ ල යන්න(산녀꺼 라 얀너) 반전음이라 하고 48번 ල(라)는 දන්තඡ ල යන්න (단떠저 라 얀너) 치음이라 한다. 하지만 47번 ර(라)는 La 가 아니라 Ra 로써 그 소리가 다름에 주의하기 바란다.

50 ශ, 51 ඡ 는 강음과 연음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그 차이는 무시해도 관계없으므로 동일한 (샤) 발음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1.2.4 일반 자음

15 ක, 17 ග, 22 ව, 24 ජ, 32 𑖦, 34 ක, 36 ද, 38 𑖨, 40 ප, 42 බ, 44 ම, 46 ය, 47 ර, 48 ල, 49 ච, 50 ශ, 51 ඡ, 52 ස, 53 හ, 54 ල 은 ‘일반 자음(Ordinary Consonant)’ 으로 상기(上記) 글자표에 적힌 그대로 소리 내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자음이라고는 하나 항상 기본적으로 모음 ‘ㅏ’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까, 가, 짜, 자.... 이런 소리가 나며, 우리 나라의 자음처럼 ㄱ, ㄷ, ㅈ, ㅊ, ㄴ, ㄷ, ㅌ... 가 아니다. 57 ෆ 는 최근 생긴 글자로서 Fa 음을 나타낸다.

1.2.5 특수 발음

특수 발음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21 ශ, 33 ඔ, 39 ද, 45 ඹ 의 비음(鼻音)과 28 ට, 30 ඩ 의 혀끝 소리(舌端音), 그리고 47 ර 이다.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28 **ㄷ**, 30 **ㄹ** 의 발음인데 우리말에 없는 발음이라 처음엔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 이 둘은 각각 34 **ㄴ**, 36 **ㄹ** 과 소리가 비슷하다. 하지만 34 **ㄴ**, 36 **ㄹ** 의 경우 소리를 낼 때 혀를 윗니 바로 뒤에 붙이고 소리를 내는 치음(齒音) 막힘 소리(Dental Stop)인 반면에 28 **ㄷ**, 30 **ㄹ** 은 혀가 입천장 앞부분의 경구부(硬口部)를 치면서 소리를 내는 혀끝 막힘 소리(Retroflex stop)이다. 전혀 다른 소리이므로 확실히 구분해 주어야 한다. 혀의 위치만 신경 써 주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 발음이다. (아래 그림 참조)

1.3.1 **හල් කිරීම** (할 끼리며) ^P or [~]

즉, **ㄷ** (까) 에서 **ㄷ** (ㄱ)의 음가만이 남는 것이다.

1.3.2 **ඇලපිල්ල** (ඇ러벨러) **ා**

이 표시가 붙으면 ‘ㅏ’ 모음에서 긴 소리를 내게 된다. 우리 말과 달리 싱할라어는 장음과 단음의 구분이 확실하며 모든 모음에 대해 단음, 장음을 따로 갖는다. 따라서 이 표시가 붙으면 ‘ㅏ’ 긴소리를 내면 된다.

ආ 아- **කා** 까- **මා** 마- **පා** 파- **ලා** 라-

1.3.3 **ඇදය** (애더여) **ෑ**

이 표시는 글자의 뒤에 위치하며 우리 말의 ‘ㅐ’에 해당한다.

ඈ 애 **කෑ** 깨 **මෑ** 매 **නෑ** 내 **හෑ** 해

예외) ර(Ra)의 경우 රෑ가 아닌 රැ (Ræ)를 사용한다. රෑ는 (Ru)라고 발음한다.

1.3.4 **දිගු ඇදය** (디거 애더여) **ඹ**

이 표시는 글자의 뒤에 위치하며 우리 말의 ‘ㅐ’ 장음에 해당한다.

ඹ 애- **පඹ** 빼- **මඹ** 매- **බඹ** 배- **සඹ** 새-

예외) ර(Ra)의 경우 රඹ가 아닌 රැ (Ræ-)를 사용한다. රඹ는 (Ru-)라고 발음한다.

1.3.5 **ඉස්පිල්ල** (이스벨러) **ඊ**

이 표시는 글자의 위에 위치하며 우리 말의 ‘ㅣ’에 해당한다.

කී 끼 **තී** 띠 **මී** 미 **වී** 찌 **ටී** 띠

이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글자들(ච, ට, ඩ, ඹ, ම, ට)의 경우 1.3.1 에서 다룬 할 끼리머(හල් කිරීම) ි 와 모양을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 1.3.1 에서 다루었던 (ච)이지만



는 1.3.4 의 (ම) 발음이다.

1.3.6 දිග ඉස්පිල්ල (디거 이스쁠러) ි

이 표시는 위와 마찬가지로 글자의 위에 위치하며 우리 말의 ‘ㅣ’ 장음이다.

කී කි-

කී කි-

මී මි-

වී වි-

ටී ටි-

1.3.7 පාපිල්ල (빠쁠러) ඌ

이 표시는 글자의 아래에 위치하여 우리말의 ‘ㅓ’ 음을 낸다.

මු 무

කු 푸

ගු 구

හු 후

නු 누

කු ගු ගු කු භු භු 는 ඌ 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ඌ 를 사용한다.

특히, හු(후) ගු(구) 와 නු(누) කු(꾸) කු(꾸)는 어떤 것을 첨가하는 지 처음에는 헛갈리기 쉬우나 주의해야 한다. 또한 ල(라)는 ඵ(루) 로 나타내고 ර (Ra) 또한 රු (Ru)로 표기한다. ද (다) 역시 ඳ (두)로 표기한다.

1.3.8 දිග පාපිල්ල (디거 빠쁠러) ീ

이 표시는 기본 자음 아래에 붙어서 우리 말에서 ‘ㅓ’ 장음을 의미한다.

කූ 구-

කූ 부-

මූ 무-

ගූ 구-

1.3.7 과 1.3.8 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확대를 해서 보자

1.3.7 **ଦୁ**(ଦୁ) 1.3.8 **ଦୁ**(ଦୁ-) 1.3.7 **ଭୁ**(ଭୁ) 1.3.8 **ଭୁ**(ଭୁ-)

ଢ(라)는 **ଢ଼**(루-)로, **ଠ**(라)는 **ଠ଼**(루-)로, **ଡ**(다) 역시 **ଢୁ**(두-)로 표기한다.

1.3.9 **କୋଠିଭ୍ରାପ** (꼼부위) **ଓ**

이 표시는 자음 앞에 붙어서 ‘ㄱ’ 소리를 낸다.

କେ **ଓ** **କେ** **କେ** **କେ** **କେ**

1.3.10 **କୋଠିଭ୍ରାପ** **ସହ** **ଧର୍ମବିରୀ** (꼼부위 사하 할끼리머) **ଓ^p** **ଓ^h**

이 표시는 자음 앞 뒤로 붙어서 ‘ㄱ-’을 낸다.

କେ **କେ** **କେ** **କେ**

1.3.11 **କୋଠିଭ୍ରାପ** **ସହ** **ଧର୍ମବିରୀ** (꼼부위 사하 앨러벨러) **ଓ^g**

이 표시는 역시 자음 앞 뒤로 붙어서 ‘ㄱ’ 발음을 낸다.

କେ **କେ** **କେ** **କେ**

1.3.12 **କୋଠିଭ୍ରାପ** **ସହ** **ଧର୍ମ** **ଧର୍ମବିରୀ** (꼼부위 사하 할 앨러벨러) **ଓ^g**

이 표시는 자음 앞 뒤에 붙어서 ‘ㄱ-’을 낸다.

କେ **କେ** **କେ** **କେ**

1.3.13 රකාරංශය (라카랑서여) ඌ

이 표시는 자음 밑에 붙어서 ‘~라’ 음을 낸다. 예를 보도록 하자.

කු ഈ라 ගු 그라 බු 브라 ශ්‍රී 스리

ද ද의 경우 ඌ (드라)로 표현한다.

බ්‍රහ්මචරිණියා	(브라하스빠똌다)	목요일
ශ්‍රී ලංකා	(스리 랑카)	스리 랑카
කුමය	(꾸러머여)	방법

1.3.14 ගැට්ටි සහිත අලෙපිල්ල (개떼 싸히떼 엘러빨러) a

이 표시는 자음 뒤에 붙어서 짧은 ‘~루’ 음을 낸다. 예를 들면

කa ഈ루 ගa 그루 වa 으루

වී වාත්තිය (위 으룻띠여) 개방, 개장

1.3.15 යන්සය (얀씨여) ඌ

이 표시는 자음 뒤에 붙어서 ‘~야’ 음을 낸다. 예를 들면

කය ഈ야 දය 드야 ගය 그야

විද්‍යාලය	(위드얌러여)	고등학교
මධ්‍යම	(마드야며)	중앙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음기호가 있으나 초급 단계에서는 그다지 필요치 않은 것이라 생각하여 생략하였다. 추후 대화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 때 그 때 발음기호를 보면서 익힐 수 있을 것이다.

1.4 발음

싱할라어는 글자 발음이 굉장히 규칙적이다. 따라서 몇 가지 규칙만 알면 부가적인 발음 기호 없이도 읽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 싱할라어 문장을 읽는 데 4가지 정도 주의점이 있다. 이 주의점만 조심하면 앞으로 싱할라어 읽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1.4.1

싱할라 단어의 거의 대부분은 강세가 첫 음절에 온다. 이에 따라 2 음절 이후의 음절은 강세를 상실하여 음가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මම(마머) 나’의 경우 1 음절에 강세가 들어가서 자기 음가를 다 내는 반면 2음절 이후로는 강세가 소멸되면서 음가도 같이 약해진다. 그래서 ‘머’가 되는 것이다.

(힘을 빼고 ‘아’ 발음을 해보라. 우리말의 ‘어’는 아니지만 마치 ‘어’와 같은 소리가 난다. 이를 반모음이라 한다.)

대부분이 첫 음절에 강세가 들어가지만 한가지 특이한 예외가 있다. කරනවා(꺼러너와) 하다 인데, (까러너와) 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첫 음절의 강세가 소멸되어 (꺼러너와) 라고 발음한다.

රට	라떠	나라
නම	나머	이름
ගෙදර	게더러	집
ගඟ	강거	강

1.4.2

다른 예외는 හ(하) 이다. හ (하) 음은 2음절이나 3음절에 위치하고 있어도 강세를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1음절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자기 음가를 유지한다. 하지만 හතරිහ (하떨리허) 40 의 경우 예외의 경우로서 (하떨리하)가 아니라 (하떨리허) 라고 발음한다.

පහන	빠하너	램프
ගහ	가하	나무
පණන	빠너하	50
දහය	다하여	10
කුතුහලය	꾸뜰할러여	호기심

1.4.3

යි (이)로 끝나거나 ^p (할 끼리머)가 든 자음이 들어가는 경우 소멸되었던 강세가 바로 직전 글자에 다시금 주어지며 음가 역시 자기 음가를 회복한다.

මම	마머	나
මමක්	마맛	나도
මමයි	마마이	나와

1.4.4

장음이 있을 경우 비록 1음절에 있지 않더라도 강세가 주어져서 자기 음가를 지니게 된다.

අම්මා	암마	어머니
තත්තා	탓따	아버지
කවදා	까워다	언제

이상(以上)이 싱할라어를 읽을 때의 필요한 것들이다. 늘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 책만 본다면 설명이 상당히 어려우나 실제로는 굉장히 쉬운 것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활용해 봄으로써 생활 속에서 익숙해 지는 것이다. 많이 읽어보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것이 언어에 익숙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자.

2과 소개와 인사

දෙවෙනි පාඩම් හඳුන්වාදීම සහ ආචාරය

2.1 대화 분석

රුවන් හලෝ. ගොඩක් කාලයකින්. කොහොමද?

(루완)

(할로. 고닥 깔러여깁. 꼬호머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හක්කු හොඳින් ඉන්නවා. ඊයේ මගේ යාළුවා ආවා.

(혁수)

(혼딩 인너와. 이에 마게 알루와 아와)

잘 지내죠. 어제 제 친구가 왔어요.

රුවන් ඇත්තද? එයාගේ නම මොකද්ද?

(루완)

(앓떠더? 에야게 나며 모깻더?)

그래요? 그 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වාබුල් ආයුබෝවන්. මගේ නම වාබුල්.

(와불)

(아유보완. 마게 나며 와불.) 안녕하세요. 와불입니다.

රුවන් ආයුබෝවන්. මගේ නම රුවන්. ඔයා කොහෙද ඉන්නේ ?

(루완)

(아유보완. 마게 나며 루완. 오야 꼬헤더 인네?)

안녕하세요. 루완이에요. 어디 계세요?

වාබුල් මම මහනවර ඉන්නේ. විද්‍යාලයේ වැඩ කරනවා.

(와불)

(마머 마하누워러 인네. 위드얌러예 왜더꺼러너와.)

캔디에 있어요. 학교에서 일해요.

රුවන් උගන්නනවාද? මොනවාද උගන්නන්නේ ?

(루완)

(우간너너와더? 모너와더 우간난네?)

가르치세요? 뭘 가르치시죠?

වාබුල් කොරියන් භාෂාව උගන්නනවා.(꼬리야 바사워 우간너너와.)

(와불)

한국어를 가르쳐요.

රුවන් වයස කීයද? (와여서 끼여더?)

(루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වෘත්තීය අවුරුදු 27(විසි හත)යි.

(와불)

(아우루두 위시 하따이) 스물 일곱살입니다.

රුවන් මගේ වයසමයි. මටත් අවුරුදු 27(විසි හත)යි.

(루와)

(마게 와여서마이. 마땃 아우루두 위시 하따이.)

저랑 나이가 같네요. 저도 스물 일곱살이에요.

වාබුල් එහෙමද? හොඳයි.
 (와불) අපිට හොඳ යාළුවෝ වෙන්න පුළුවන් වෙයි.
 (에헤머더? 혼다이. 아빠때 혼더 알루오 웬너 뽀루왕 웨이.)
 그래요? 우리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රුවන් ඔයා බැඳලාද? (오야 뽀덜라더?) 결혼하셨어요?
 (루완)

වාබුල් කාම නෑ. කනියෙම ඉන්නවා.
 (와불) (따머 내. 따니예머 인너와.)
 아직 안 했어요. 혼자 살아요.

රුවන් හොඳයි. හොඳයි. ඔයාගේ සිංහල බොහොම හොඳයි.
 (루완) (혼다이. 혼다이. 오야게 싱할러 보호머 혼다이.)
 좋아요. 좋아요. 싱할라를 아주 잘 하시네요.

වාබුල්(와불) ස්තූතියි. (스뚜띠) 감사합니다.

රුවන් මම දැන් යන්න ඕනෑ.
 (루완) (마머 땡 안너 오내.) 지금 가봐야 겠네요.

වාබුල් හමුවීම සතුටක්. නැවත හමුවෙමු.
 (와불) (하무위머 사뚜딱. 내워때 함버웨무.)
 만나 뵈어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රුවන් ගිහින් එන්නම්. (기흥 엔낭) 안녕히 계세요
 (루완)

වාබුල්(와불) හා. හරි. (하~ 하리.) 아, 좋아요.(안녕히 가세요)

2.2 단어 වචන

කොහොම	කොහොමද?	어떻게
		cf) කොහොමද?
		(꼬호머더) 어떻게 지내십니까?
හොඳින්	හොඳින්	잘
ඉන්නවා	ඉන්නවා	있다, 살다
ඊයේ	ඊයේ	어제
මගේ	මගේ	나의
යාළුවා	යාළුවා	친구 cf) යාළුවෝ (알루오) 친구들
ආවා	ආවා	එනවා (에너와) 오다 의 과거형
අැත්ත	අැත්ත	사실 cf) අැත්තද? (ඇତැර්?) 그래요?
එයාගේ	එයාගේ	그의
නම	නම	이름

මොනවාද	මොක්ක	무엇
විද්‍යාලය	විද්‍යාලය	학교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지칭)
වැඩ	වැඩ කරනවා	일하다
කරනවා		
උගන්නනවා	우강너너와	가르치다
භාෂාව	바사워	언어, 말
වයස	와여서	나이
අවුරුදු	아우루두	~살, ~세(歲)
එහෙම	에헤머	그렇게 cf) එහෙමද? (에헤머더?) 그렇습니까?
හොඳ	혼더	좋은
වෙනන	웬너	வேனවා (வேன와) 되다 의 동사결합형
පුළුවන්	புலுவ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වෙයි	웨이	வேனවා (வேன와) 되다 의 추측미래형
බැඳලා	බැඳලා	반디너와) 결혼하다, 묶다 의 분사형
කාම	따머	아직
තනියෙම	따니예머	혼자, 홀로
ඔයාගේ	오야게	너의
බොහොම	보호머	아주
දැන්	दै	지금
යන්න	안너	යනවා (야너와) 가다 의 동사결합형
මිනෑ	오내	원하다, ~해야한다. (조동사)
සතුට	사뚜떠	행복한
හරි	하리	괜찮아요 ¹

2.3 문법 ව්‍යාකරණ

2.3.1 싱할라어의 구조

싱할라어는 알고 보면 (문법적으로) 우리말과 꽤 흡사한 언어이다. 단어 하나 하나가 갖는 의미도 꽤나 비슷하기 때문에 영어나 기타 유럽어와 달리 익혀서 실전에 응용하기가 용이하다. 싱할라어의 기본적인 순서는 역시 우리말과 동일한 ‘주어 + 목적어 + 동사 + (조동사)’ 순이다. 하지만 어순은 꽤 자유로워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 어순이 바뀌기도 한다.(이 경우 동사는 강조형으로 형태가 바뀐다) 문맥에 따라 주어와 자주 생략되기도 한다.

¹ හරි (하리) 괜찮아요. 는 ගිහින් එන්නම්. (기흥 엔냥) 안녕히 계세요 에 대한 대답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혹은 안녕히 가십시오 에 대한 대답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란 의미로 쓰인다.

මගේ යාළුවා ආවා. (මාගේ මතුපිට ඇතුළත් වීම.) ඔහුගේ මතුපිට ඇතුළත් වීම.

මම සිංහල කතා කරන්න පුළුවන්. (මාගේ සිංහල කතා කරන්න පුළුවන්.)
 저는 싱할리어를 할 줄 알아요

එයා වැඩ කරන්නේ විද්‍යාලයේ. (එයාගේ වැඩ කරන්නේ විද්‍යාලයේ.)
 그는 일하길 학교에서 일합니다.(강조형)

දායක) කතා කරන්න (කතා කරන්න):

කතා කරනවා (කතා කරනවා) 대화하다 의 동사결합형

2.3.2 대명사 ස්වරූපය

මම	මා	මා(මාගේ)	මා	මා	මා
මම	මා	මා(මාගේ)	මා	මා	මා
මගේ	මාගේ	මාගේ(මාගේ)	මාගේ	මාගේ	මාගේ
මාව	මා	මා(මාගේ)	මාව	මාව	මාව
එයා	එයා	එයා	එයා	එයා	එයා
එයාට	එයාට	එයාට	එයාට	එයාට	එයාට
එයාගේ	එයාගේ	එයාගේ	එයාගේ	එයාගේ	එයාගේ
එයාව	එයාව	එයාව	එයාව	එයාව	එයාව
එයාලා	එයාලා	එයාලා	එයාලා	එයාලා	එයාලා
එයාලාට	එයාලාට	එයාලාට	එයාලාට	එයාලාට	එයාලාට
එයාලාගේ	එයාලාගේ	එයාලාගේ	එයාලාගේ	එයාලාගේ	එයාලාගේ
එයාලාව	එයාලාව	එයාලාව	එයාලාව	එයාලාව	එයාලාව

여기서 목적격의 경우 굳이 ‘~을’ 이란 의미를 강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잘 쓰이지 않으며 주격으로 대체한다. 또한 이외에도 ‘~로 부터’ ‘~와 함께’ 등 많은 대명사 변형들이 있으나 이는 대화 속에서 문맥으로 파악하길 바란다.

2.3.3 동사 ක්‍රියාපදය

² එයාලා(එයාලා)와 එයාලා(එයාලා)는 그 의미와 용법이 동일하다.

위의 대화를 보면서 파악을 했겠지만 동사는 ‘-නවා’의 기본형태를 갖는다. 즉 동사의 기본형은 ‘어간 + නවා’이며 기초 동사 변형은 이 어미를 변형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어간이 함께 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역시 나름의 규칙성을 가진다. 그 규칙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 보기로 하자.) 또한 유럽어와 달리 주어의 수와 성에 관계없이 동사는 항상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බලනවා	발러너와	보다 (현재)	මම TV එක බලනවා. (마며 TV에꺼 <u>발러너와</u> .) 저는 TV를 <u>봅니다</u> .
බැලුවා	발루와	봤다 (과거)	මම TV එක බැලුවා. (마며 TV에꺼 <u>발루와</u> .) 저는 TV를 <u>봤습니다</u> .
බලලා	발랄라	보고 (분사)	TV එක බලලා නින්ද ගියා. (TV 에꺼 <u>발랄라</u> 닌더 기야.) 저는 TV를 <u>보고</u> 자러 갔습니다.
බලන්න ³	발란너 발란더	보리 (동사결합) 봐라 (명령)	යාළුවෝ බලන්න ආවා. (알루오 <u>발란너</u> 아와.) 친구들을 <u>보리</u> 왔습니다. පොත හරියට බලන්න. (뽀떠 하리여떠 <u>발란너</u> .) 책을 잘 <u>봐라</u> .
බලන්නේ	발란네	보다 (질문) (강조) (부정)	බලන්නේ මොකද්ද? (<u>발란네</u> 모깻더?) 무엇을 <u>보십니까?</u> මම බලන්නේ TV එක. (마며 <u>발란네</u> TV 에꺼.) 저는 보고 있기를 TV를 <u>봅니다</u> . මම TV එක බලන්නේ නෑ. ⁴ (마며 TV에꺼 <u>발란</u> 네.) 저는 TV를 <u>보지</u> 않습니다.
බලමු	발러무	보자 (칭유)	අපි TV එක බලමු. (아빠 TV에꺼 <u>발러무</u> .) 우리 TV를 <u>봅시다</u> .

³ 동사 결합형이나 명령형의 경우 표기는 බලන්න(발란너) 이나 많은 지역에서 (발란더)라고 발음한다. 지역적 차이가 있으나 필자 역시 (발란더)라고 발음한다. 이는 බලනවා (발러너와)에 국한된 경우가 아니라 모든 동사에 해당한다.

⁴ 부정형의 경우 구어체에서, 표기는 බලන්නේ නෑ(발란네 내)라고 하지만 බලන් නෑ(발란 내)라고 읽는다. 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3.2 를 보기 바란다.

ලස්සන	(라씨너)	예쁜
ප්‍රශ්නය	(쁘라쉬너여)	문제, 질문
ලේසි	(레씨)	쉬운
පුටුව	(뿌뚜위)	의자
වැදගත්	(왜더갓)	중요한

2.3.5 질문 ප්‍රශ්නය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2.3.5.1 yes/no 질문

말 그대로 예/아니오 를 묻는 질문을 말하며 평서문 끝에 의문형 어미 **ද(더)**를 붙여 표현한다.

එයා ශිෂ්‍යයෙක්ද?	(에야 쉬셔엑더?)	그는 학생인가요?
ඔව්. එයා ශිෂ්‍යයෙක්.	(오우. 에야 쉬셔엑.)	네. 그는 학생입니다.
නෑ. ශිෂ්‍යයෙක් නෙමෙයි.	(내. 쉬셔엑 네메이.)	아니오. 학생이 아닙니다.
ඔයා බත් කෑවාද?	(오야 밧 깨와더?)	밥 먹었어요?
ඔව්. කෑවා.	(오우. 깨와.)	예. 먹었어요.
නෑ. තාම කෑවෙ නෑ.	(내. 따머 깨웨 내.)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මේ පොත රසවත්ද?	(메 뽀떠 라씨왓더?)	이 책은 재밌습니까?
ඔව්. මේ පොත රසවත්.	(오우. 메 뽀떠 라씨왓.)	예. 이 책은 재밌습니다.
නෑ. මේක හොඳ නෑ.	(내. 메꺼 혼더 내.)	아니오.이건 지겨워요. ⁵

දානර) ශිෂ්‍යයෙක්	(쉬셔엑) ‘ශිෂ්‍යයා (쉬셔야) 학생’ 의 남성 단수
නෙමෙයි	(네메이) ~가 아니다.
නෑ	(내) ~ 않다. ⁶
බත්	(밧) 밥
කෑවා	(깨와) ‘කනවා (까녀와) 먹다’ 의 과거형
තාම	(따머) 아직
රසවත්	(라씨왓) 재밌는

⁵ හොඳ නෑ (혼더 내) 는 직역하면 ‘좋지 않다’ 란 뜻이나 여기선 ‘재미없다’ 로 쓰였다.

⁶ නෙමෙයි (네메이) ~가 아니다. 와 නෑ(내)~ 않다. 의 그 자세한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4.3.2 부 정형에서 다루므로 참고 바란다.

2.3.5.2 정보형 질문

예/아니오 가 아닌 '정보' 를 묻는 질문이다. 의문사가 들어가며 의문사에 의문형 어미인 **ද(더)**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동사는 질문형(어간(語幹)+ **න්නේ**)으로 바뀐다. 정보를 묻는 질문이라도 의문사에 **ද(더)**가 없으면 그 형태는 앞서 2.3.5.1 에서 다룬 yes/no 질문형의 형태를 따라간다.

මොනවාද⁷ බලන්නේ ? (모녀와더 발란네?) 무엇을 봅니까?
ලස්සන මල් බලනවා. (라씨너 말 발러너와) 예쁜 꽃을 봅니다.

මොකද්ද කරන්නේ ? (모깟더 꺼란네?) 무엇을 합니까?
සිංහල පාඩම් කරනවා. (싱할러 빠담 꺼러너와.) 싱할라어 공부를 합니다.

කොහෙද ඉන්නේ ? (꼬헤더 인네?) 어디 있습니까?
මම පංතියේ ඉන්නවා. (마머 뽕띠예 인너와.) 저는 교실에 있습니다.

කවද්ද යවන්නේ ? (까왓더 야완네?) 언제 보냅니까?
ලියුම් කලින් යැව්වා. (리욤 깔링 애우와.) 편지는 벌써 보냈어요.

කවුද කන්නේ ? (까우더 칸네?) 누가 먹습니까?⁸
ප්‍රසාද්ගේ ළමයි කනවා. (쁘라살게 라마이 까너와.) 뿌라살씨네 애들이 먹어요.

කීයක් තියෙනවාද? (끼약 띠예너와더?) 몇 개 있습니까?
ගෙඩි 6(හය)ක් තියෙනවා.(게디 하약 띠예너와.) 열매 6개가 있습니다.

වෙලාව කීයද? (웰라워 끼여더?)⁹ 몇 시입니까?
දැන් 7(හත)යි 20(විස්ස)යි.(덴 하따이 윗싸이.) 지금 7시 20분입니다.
කීයටද යන්නේ ? (끼여떠더 얀네?) 몇 시에 갑니까?
හවස 3(තුන)ට යනවා. (하워서 뚜너떠 야너와.) 오후 3시에 갑니다.

දාන) **ලස්සන** (라씨너) 예쁜, 아름다운

⁷ **මොනවාද** (모녀와더) 는 **මොකද්ද**(모깟더)의 복수형으로 그 의미는 동일하다.

⁸ **කනවා** (까너와) 먹다 예는 풍자로써 ‘망치다’란 뜻이 있다. 따라서 **රට කනවා.** (라떠 까너와.) **වැඩ කනවා.** (왜더 까너와.)라고 하면 나라를 망치다, 일을 망치다 란 의미이다. 정치 풍자에서 많이 쓰인다.

⁹ **කීයද** (끼여더?)는 몇 시인지 물을 때 쓰기도 하고 양(量)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물을 때도 쓴다. 의문사의 정확한 의미에 관해서는 4 과에서 다루어 보기로 한다.

මල්	(말)	꽃 (복수) (단수는 මල් 말러)
පාඩම් කරනවා	(빠담 꺼리너와)	공부하다
ඉන්නේ	(인네)	ඉන්නවා (인너와) 있다 의 질문형
පංතිය	(빵띠여)	교실
තියෙනවා	(띠 예너와)	(물건따위가) 있다.
යවන්නේ	(야완네)	යවනවා (야워너와) 보내다 의 질문형
ලියුම්	(리움)	편지
කලින්	(칼링)	이미, 벌써
යැව්වා	(애우와)	යවනවා (야워너와) 보내다 의 과거형
ලමයි	(라머이)	아이들 (단수는 ලමයා 라머야)
ගෙඩි	(게디)	열매
වෙලාව	(웰라워)	시간
දැන්	(덴)	지금
හවස	(하워서)	오후

2.4 표현 प्रकार

-ආයුබෝවන්. (아유보완)	안녕하십니까.
-ආයුබෝවන්. (아유보완)	안녕하십니까.
-ගොඩක් කාලයකින්. (고닥 깔러여깁)	오랜만입니다.
=ගොඩක් කල්. (고닥 깔)	
=ගොඩක් කාලයකට පස්සේ.(고닥 깔러여꺼떠 뻗쎄)	
-කොහොමද? (꼬호머더?)	어떻게 지내세요?
-හොඳයි. (혼다이)	잘 지냅니다.
=හොඳින් ඉන්නවා.(혼당 인너와)	
=ඔහේ ඉන්නවා. (오헤 인너와)	
=වරදක් නෑ. (와러닥 내)	
-යන්නද යන්නේ ? (얀너더 얀네 ¹⁰ ?)	어디 가는 길이에요?
=කොහෙද යන්නේ ¹¹ ? (꼬헤더 얀네?)	
-ටවුමට යනවා (타우머떠 야너와)	시내(Town)에 갑니다.
=ටවුමට යන ගමන් (타우머떠 야너 가땅)	시내(Town)에 가는 길이에요.

¹⁰ 영어의 영향으로 생긴 문장으로 Are you going to go? 의 직역이다. 따라서 **කන්නද යන්නේ?** (කන්නද යන්නේ) 는 Are you going to eat? 즉, 뭐 좀 먹을 건가요? 라는 뜻이 된다.

사용한다.

감사합니다 에 해당하는 표현 ස්තූතියි (스투띠이)도 있는데 이 역시 싱할라어보다 영어를 평소에 더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는 공히 ගිහින් එන්නම. (기hing 엔hang)(직역하면 갔다 오겠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상황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사용한다.)을 사용한다. ගිහින් එන්නම. (기hing 엔hang)은 평소 생활에서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또한 영어의 Bye 역시 사용 가능하다.

위의 표현들은 굳이 뜻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문장 그 자체를 외우길 바란다.

2.5 연습문제 අභ්‍යාස

다음 우리말을 싱할라어로 바꿔 보세요. (괄호 안의 단어를 이용하세요.)

1. 어디에서 일하세요?

경찰에서 일합니다. (경찰 පොලීසිය 폴리씨여)

2.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민주입니다.

3. 무엇을 배우니까? (배우다 ඉගෙන ගන්නවා 이게너 간너와)

싱할라어를 배웁니다.

4. 어디 가십니까?

버스정류장에 갑니다.

(버스정류장 බස් නැවතුම් පොල බ라스 내위툼 뽀러)

3과 길 찾기

තුන්වෙනි පාඨමි පාර හොයා ගැනීම

3.1 대화 සංවාදය

මිත්සොබි excuse me. මට පොඩි උදව්වක් කරන්න පුළුවන්ද?

(민엽) (excuse me. 마떠 뽀디 우다우와 꺼란너 뽐루왕더?)

실례합니다. 말 좀 물을게요.(직역: 작은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ලිවොන් ඔව්. පුළුවන්. පුළුවන්. මොනවාද වෙන්න ඕන?

(리온) (오우. 뽐루왕. 뽐루왕. 모나와더 웬너 오내?)

예. 가능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직역: 무엇을 되기를 원하십니까?)

මිත්සොබි කොරියානු එම්බසි එකට කොහොමද යන්නේ ?

(민엽) (꼬리야누 엠버시 에꺼떠 꼬호머더 얀네?)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어떻게 가나요?

ලිවොන් මේ පාරේ කෙලින්ම යන්න. (ඔබේ පාරේ ඔබේ ගමන)

(리온) 이 길로 쭉 가세요.

오 췌로 හන්දියේන් දකුණට හැරෙන්න.

(이 랑거 한디엔 다투너떠 해렌너.)

바로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십시오.

오ට පස්සේ දෙවැනි හන්දිය තමා හෝටන් ප්ලේස් එක.

(이때 뽐췌 데와니 한디여 따마 호튼 플레이스 에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거리가 바로 호튼 플레이스 입니다.

එතනින් වමට හැරිලා පාක් එක හම්බවෙනකල්

කෙලින්ම යන්න.

(에떠닝 와머떠 해털라 파크 에꺼 함버웨너깔 췌링머 얀너)

거기에서 좌회전 하셔서 공원이 나올 때까지 직진하십시오

පාක් එකෙන් දකුණට හැරෙන්න. ඊ ළඟ හන්දියේ

හම්බවෙන්නේ ධර්මපාල මාවත. (파크 에께 다투너떠 해렌너. 이

랑거 한디예 함버웨네 다르마빨라 마워따) 공원에서 우회전하세요. 그 다음 사거리에서 나오는 것이 다르마빨라 마워따입니다.

ඊට පස්සේ වමට හැරිවිට ගමන්

දකුණු පැත්තේ එම්බසි එක පේනවා.

(이때 뽐췌 와머떠 해릿췌 가망 다투누 뽐떼 엠버시 에꺼 뽐너와.)

그리고 좌회전하시면 오른쪽에 대사관이 보입니다.

මින්යොබ් මම ඔයා කියපු එක ආයේ කියලා බලන්නම්. හරිද කියලා
(රිඤ්ඤ) බලන්න.(මාමර් ඔයා කියපු එක ආයේ කියලා බලන්නම්. හරිද කියලා

ආර ඉස්සරහින් දකුණට හැරුනාම හෝටන්
ප්ලේස් තියෙනවා,

(අර්ථ දැක්වීම: මාමර් ඔයා කියපු එක ආයේ කියලා බලන්නම්. හරිද කිය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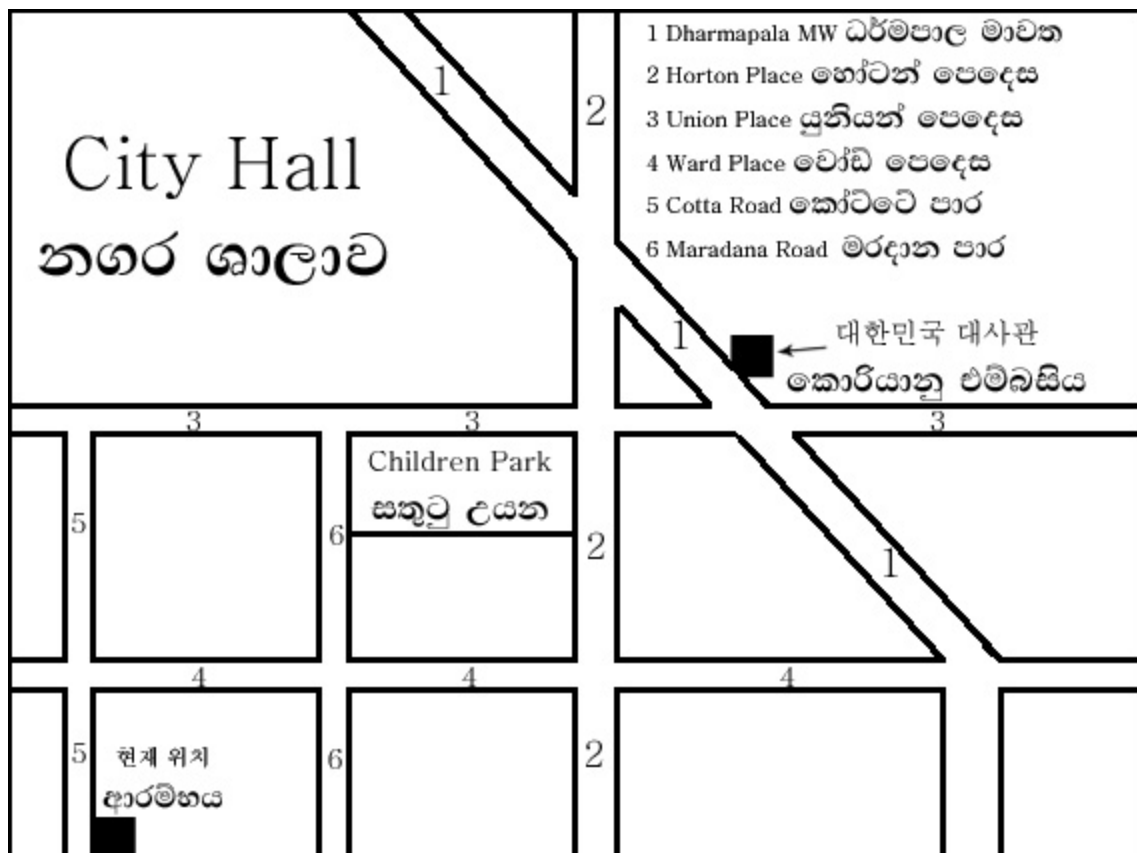
වමට හැරලා ඊට පස්සේ පාක් එක ලගින් දකුණට
හැරෙනවා, නේද? (මාමර් ඔයා කියපු එක ආයේ කියලා බලන්නම්. හරිද කියලා

ලිවොන් ඔව්. ඊට පස්සේ වමට හැරලා වම් පැත්තේ ඔයා
(රිඤ්ඤ) හොයපු තැන තියෙනවා. තේරුනාද?

(ඔව්.මාමර් ඔයා කියපු එක ආයේ කියලා බලන්නම්. හරිද කියලා

මින්යොබ් ඔව්. තේරුනා. ස්තූතියි. (ඔව්. මාමර් ඔයා කියපු එක ආයේ කියලා බලන්නම්. හරිද කියලා

(රිඤ්ඤ) ඔව්. තේරුනා. ස්තූතියි. (ඔව්. මාමර් ඔයා කියපු එක ආයේ කියලා බලන්නම්. හරිද කියලා



* 주의 : 위의 지도는 실제의 도시 지리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2 단어 වචන

පොඩි	ප්‍රොඩ්	작은
උදව්වක් කරන්න	우다우와 꺼란너	උදව්වක් කරනවා (우다우와 꺼러너와) 돕 다의 동사결합형
මින	오내	원하다, ~해야 하다. (조동사)
වෙනන	웬너	වෙනවා (웨너와) 되다 의 결합형
කොරියානු	꼬리야누	한국의
පාර	빠러	길
කෙලින්ම	겔렁머	직진으로, 똑바로
යන්න	안너	යනවා (야너와) 가다 의 명령형
ඊ ළඟ	이 랑거	그 다음
හන්දිය	한디여	사거리
දකුණට	다꾸너떠	오른쪽으로
හැරෙන්න	해렌너	හැරෙනවා (해레너와) 돌다 의 명령형
ඊට පස්සේ	이떠 뺏쎄	그 후에, 그리고 나서
දෙවැනි	데웨니	두번째
එකනින්	에떠닝	거기에서
වමට	와며떠	왼쪽으로
හම්බවෙනවා	함버웨너와	만나다, 나오다
හම්බවෙනකල්	함버웨너깁	만날 때까지, 나올 때까지
හැරිලා	해릴라	හැරෙනවා (해레너와) 돌다 의 분사형
හැරැනාම	해루나마	හැරෙනවා (해레너와) 돌다 의 가정형
හැරිව්ව	해릿찌	හැරෙනවා (해레너와) 돌다 의 과거 수식형
හැරිව්ව ගමන්	해릿찌 가망	돌자 마자
පේනවා	빠너와	보이다
පැත්තේ	뺏떼	쪽, 편(偏)
කියපු	끼여뿌	(끼여너와) 말하다 의 과거 수식
එක	에꺼	것 ¹²
ආයේ	아예	다시
කියලා ¹³	끼열라	(끼여너와) 말하다 의 분사형

¹² එක (에꺼)는 ‘하나’라는 의미도 있지만 ~ 것 이란 의미도 있다. 따라서 **කියපු එක** (끼여뿌 에
꺼)라고 하면 ‘말했던 것’ 이란 의미가 된다.

¹³ **කියලා** (끼열라) 는 말하다 의 분사형으로서의 의미 이외에도 절과 절을 연결하여 ‘~라고’ 또는
‘~인지 아닌지’ 라는 뜻을 가지는 접속사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즉, **හරිද කියලා බලන්න**
(하리더 끼열라 발란너) 라고 하면 맞는지 아닌지 봐 주십시오. 라는 뜻이 된다. 복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7.3.2 를 참조하기 바란다.

බලන්නම් ¹⁴	발란낭	බලනවා (발러너와) 보다 의 의지 미래형
පොඩ්ඩක්	뽏닥	조금, 좀
හොයපු	호여뿌	හොයනවා (호여너와) 찾다의 과거 수식형
කැන	때너	장소, 곳
අර	아러	저
ඉස්සරහින්	잇써라힌	앞에서
කියෙනවා	띠예너와	있어요
ලගින්	랑긴	근처에서
තේරැනා	떼루나	තේරෙනවා (떼레너와) 이해하다의 과거형

3.3 문법 ව්‍යාකරණ

3.3.1 분사 කෘදන්තය

싱할라의 동사는 기본형을 포함, 총 17개의 변형¹⁵을 가지나, 구어체에서 쓰이는 형태는 14개¹⁶ 안팎이며 그 중 기초과정에서 익혀야 하는 형태는 기본형, 과거형, 질문형, 명령형, 청유형, 분사형의 6개에 불과하다. 또한 과거형과 분사형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변형 형태가 규칙적이므로 쉽게 익힐 수 있다. 분사형은 어간이 함께 변하고 동사 현재형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형태가 다르므로 생활 속에서 익혀야 한다. 하지만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많이 쓰이는 형태이므로 쉽게 익숙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분사형¹⁷은 크게 두 가지 용법으로 구분된다.

3.3.1.1 분사의 의미 - 완료

-සුනිල් කොහෙද ඉන්නේ? (수닐 꼬헤더 인네?) 수닐 어디에 있어요?
එයා ගිහිල්ලා. (에야 기힐라) 그는 (벌써) 갔어요.

¹⁴ බලනවා (발러너와)에는 ‘~을 보다’ 이외에도 분사형과 결합하여 ‘~해 보다’ 라는 ‘시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කියලා බලන්නම් (끼얼라 발란낭) 은 ‘말해 볼게요’ 라는 뜻이 된다.

¹⁵ 17개의 형태라 함은 기본형(~하다), 과거형(~했다), 현재 분사(~하고 있다), 과거 분사(~했다, ~하고), 현재 질문형(~합니까?), 과거 질문형(~했습니까?), 미래 조건(~하면), 과거 독립형(~했을지라도), 미래 종속형(~하게 되면), 현재 수식형(~하는), 과거 수식형(~한), 동명사(~함), 명령형(~해라) 청유형(~합시다), 의지미래형(~하겠습니다.) 무의지 미래형(~하게 될 겁니다) 가능/의무 지시(~가능) 이다.

¹⁶ 구어체에서 쓰이는 14개 형태는 기본형, 과거형, 과거 분사, 현재 질문형, 과거 질문형, 미래 조건형, 과거 독립형, 미래 종속형, 현재 수식형, 과거 수식형, 명령형, 청유형, 의지미래형, 무의지 미래형을 말한다.

¹⁷ 분사라 함은 과거 분사를 말한다. 현재 분사는 구어체에서는 쓰이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නිරෝෂන් ආවාද? (니로산 아와더?) 니로산 왔나요?
 ඔව්. එයා ඇවිල්ලා. (오우. 예야 애월라.) 예. 왔어요.

위의 예에서 보다시피 영어의 현재 완료와 비슷하다. 우리 말에는 없는 형태이나 과거로 생각하면 무난하다.

3.3.1.2 분사의 의미 - 연결

분사가 중요한 이유는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연결사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좀 더 풍부한 표현을 쓸 수 있다. 우리말에 ‘~하고 ~하며’ 에 해당한다.

- අපි ගිහිල්ලා පොත අරන් එමු. (아빠 기힐라 뽀떠 아랑 예무)
 우리 가서 책을 가져옵시다.

- නිමල්ට මේ පෑන දීලා එන්න. (니말떠 메 빼너 딜라 엔너)
 니말에게 이 펜을 주고 오너라.

- තේ එකක් බිලා පටන්ගමු. (떼 예깍 빌라 빠땅가무)
 차 한 잔 하고 시작 합시다.

단어) පොත	(뽀떠)	책
පෑනක්	(빼낙)	펜
අරං එමු	(아랑 예무)	අරං එනවා(아랑 예너와) 가져오다 의 청유형
දීලා	(딜라)	දෙනවා (데너와) 주다 의 분사형
තේ	(떼)	차(茶)
එකක්	(예깍)	한 개
බිලා	(빌라)	බෙනවා (보너와) 마시다 의 분사형
පටන්ගමු	(빠땅가무)	පටන්ගන්නවා(빠땅간너와) 시작하다 의 청유형

3.3.1.3 분사의 의미 - 상태

නියෙනවා (띠예너와) 있다 혹은 ඉන්නවා (인너와) 있다¹⁸ 와 결합하여 상태를 나타낸다.

¹⁸ ඉන්නවා (인너와)는 (생명체가) 있다 라는 뜻으로 නියෙනවා (띠예너와) (무생물 따위가) 있다 와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3.3.4 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ඔයා මම එනකල් හෝමි වර්ක් එක කරලා ඉන්න

(오야 마며 에너깡 흙 워크 에꺼 꺼털라 인너.)

너 내가 올 때 까지 숙제 해 놓고 있어.

- සමරකෝන් ඇවිල්ලා ඉන්නවා (사마라궁 애월라 인너와)

사마라궁이 와 있어요.

- ඊයේ දවසම වැඩ කර කර හිටියේ.

(이예 다워서며 왜더 꺼라 게너 히띠예)

어제 하루 종일 일 하고 있었어요.

- සංවන් මන්තාරමේ නැවතිලා ඉන්නවා¹⁹.

(상원 만나러며 내워떨라 인너와.)

상원이는 만나르에 살고 있습니다.

- AC ඔෆ් කරන්න. ජනේලේ ඇරලා තියෙන්නේ.

(AC 오프 꺼란너. 자넬레 애털라 띠옌네.)

에어컨을 끄세요. 창문을 열어 뒀어요.

දාන) එනකල්	(에너깡)	올 때 까지
කරලා	(꺼털라)	කරනවා (꺼러너와) 하다 의 분사형
ඇවිල්ලා	(애월라)	එනවා (에너와) 오다 의 분사형
ඊයේ	(이예)	어제
දවස	(다워서)	하루, 날
දවසම	(다워서며) ²⁰	하루 종일
වැඩ	(왜더)	일
හිටියේ	(히띠예)	ඉන්නවා(인너와) 있다 의 과거 강조형
නැවතිලා	(내워떨라)	නවතිනවා (나워띠너와) 멈추다 의 분사형
ජනේලේ	(자넬레)	창문
ඇරලා	(애털라)	ඇරිනවා (아리너와) 열다 의 분사형

¹⁹ නැවතිලා ඉන්නවා (내워떨라 인너와)는 직역하면 ‘멈춰 있다’ 라는 의미이나 ‘~에 살고 있다.’ 로 쓰인다.

²⁰ දවසම (다워서며)에서 ම(며)는 강조 어미로써 දවස (다워서) 하루, 날 을 강조하여 ‘하루 종일’ 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3.3.1.4 분사의 의미 - 경험

분사가 자주 쓰이는 또 다른 경우는 바로 ‘경험’의 표현이다. 분사형이 **키යෙනවා** (떠예너와) 있다 와 결합하여 ‘~ 한 적이 있다’ 라는 의미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 **ඔයා සිගිරියට නැගලා කියෙනවාද?**
(오야 시기리여떠 내걸라 떠예너와더?)
당신 시기리야에 올라가 본 적 있나요?
- **සුළඟ කියන සිංහල ෆිල්ම් එක බලලා කියෙනවා**
(술랑거 끼여너 싱할라 필름 에꺼 발랄라 떠예너와.)
‘술랑거(바람)’ 라는 싱할라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දාන)නැගලා	(내걸라)	නගිනවා (나기너와) 오르다 의 분사형
කියන	(끼여너) ²¹	කියනවා (끼여너와) 말하다 의 현재수식형
බලලා	(발랄라)	බලනවා (발러너와) 보다 의 분사형

3.3.2 위치, 장소에 관한 후치사

3.3.2.1 ~ට

~ට (떠)²²는 ~로 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후치사이다.

- **කොහෙද යන්නේ?** (코헤더 얀네)²³ 어디 가세요?
කඩිට යනවා. (까대떠 야너와) 가게에 가요.
- **බැංකුවට කොහොමද යන්නේ?** (뱅크 코호머더 얀네?)
එහෙමින් 어떻게 갑니까?
අර ඉස්සරහ කියෙන හන්දියෙන් වමට හැරෙන්න.

²¹ **කියන** (끼여너)는 **කියනවා** (끼여너와) 말하다 의 현재 수식형으로 ‘말하는’ 이란 의미도 있지만 ‘~라는’ 이란 의미도 있다. 따라서 **සුළඟ කියන සිංහල ෆිල්ම් එක**(술랑거 끼여너 싱할라 필름 에꺼)는 ‘술랑거 라고 하는 싱할라 영화’ 라는 뜻이다.

²² ~ට (떠) 는 후치사로써 방향성 이외에도 더욱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격 표현(5.3.1, 5.3.2), 시간표현 (6.3.3.3), **පස්සේ**(뽕쎬) 표현 (8.3.2.1) 를 참조하기 바란다.

²³ 관용적으로 ‘어디 가세요?’ 는 **කොහෙටද යන්නේ** (코헤떠더 얀네)가 아닌 **කොහෙද යන්නේ** (코헤더 얀네) 를 쓴다. 하지만 방향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කොහෙටද යන්නේ** (코헤떠더 얀네) ‘어디로 가세요?’ 라고 한다.

(아러 잇써라하 띠예너 한디엔 와며떠 해렌너)

저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

단어)	කඩේ	(까데)	가게
	බැංකුව	(뱅꾸위)	은행
	තියෙන	(띠예너)	තියෙනවා (띠예너와) 있다 의 현재 수식형

3.3.2.2 ~යේ (~예) ~에

~ **යේ** (~예)는 ~에 라는 위치를 나타낸다. (~in)

* 전화 통화에서

- කොහෙද ඉන්නේ?

(꼬헤더 인네?) 어디 계세요?

මම දැන් දුම්රිය ස්ථානයේ ඉන්නවා.

(마며 댕 둘리여 스파너예 인너와.) 저 지금 기차역에 있어요.

දුම්රිය ස්ථානය (둘리여 스파너여) -> **දුම්රිය ස්ථානයේ** (둘리여 스파너예)

- කොහෙද නැවතිලා ඉන්නේ?

(꼬헤더 내워떨라 인네?) 어디 사세요?

මම නැවතිලා ඉන්නේ පන්සලේ.

(마며 내워떨라 인네 판설러) 저는 절에 살고 있어요.

පන්සල (판설러) -> **පන්සලේ** (판설례)

단어)	දුම්රිය ස්ථානය	(둘리여 스파너여)	열차역
	පන්සල	(판설러)	절
	නැවතිලා ඉන්නවා	(내워떨라 인너와)	살고 있다

3.3.2.3 ~යේදී (~예디) ~에서

~**යේදී** (~예디) 는 ~에서 라는 위치 정보를 나타낸다. 하지만 의미상 위의 3.3.2.2 ~**යේ** (~예) 와 비슷하여 헷갈리기 쉽다. 실제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싱할라어 초보 사용자 단계에서는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무방하겠다. 엄밀히 그 차이를 말하자면 ~**යේ** 는 **ඉන්නවා** (인너와) ‘있다’ 와 결합하여 ‘~에

있다.’ 라는 현상을 나타내며 ~යේදී 는 කරනවා (꺼리너와) 하다 와 같은 동작 동사와 결합하여 ‘~에서 하다.’ 라는 동작성을 나타낸다.

- **හජොං කාර්යාලේදී වැඩ කරනවා.** (하중 가르알레디 왜더 꺼리너와)
하중이는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කාර්යාලය (가르알러여) -> **කාර්යාලේදී** (가르알레디)

- **හිජේ ටොයිලට් එකේදී අත සේදුවා** (히제 토일렛 에게디 아떠 새두와.)
히제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ටොයිලට් එක (토일렛 에꺼) -> **ටොයිලට් එකේදී** (토일렛 에게디)

- **බුයොන් විද්‍යාලේදී මාව හම්බෙනා**
(부연 위드알레디 맛 뻍꺼 햄버우나.) 부연은 학교에서 저와 만났습니다.

විද්‍යාලය (위드알러여) -> **විද්‍යාලේදී** (위드알레디)

주의)

- **ඊ ළග හන්දියෙන් දකුණට හැරෙන්න.** (이 랑거 한디엔 다푸너떠 해렌너)
이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 하십시오.

හන්දිය (한디여) -> **හන්දියෙන්** (한디엔)²⁴

දාන	(아떠)	손
සැදුවා	(새두와)	සොදනවා (소더너와) 씻다 의 과거형
මාව එක්ක	(맛 뻍꺼)	나와 함께 (with me)
හම්බෙනා	(햄버우나)	හම්බෙනවා(함버웨너와) 만나다 의 과거형
දාන	(아떠)	손
සැදුවා	(새두와)	සොදනවා (소더너와) 씻다 의 과거형
මාව එක්ක	(맛 뻍꺼)	나와 함께 (with me)
හම්බෙනා	(햄버우나)	හම්බෙනවා(함버웨너와) 만나다 의 과거형

3.3.3 එක (에꺼)와 කරනවා (꺼리너와)

²⁴ 비록 한국어에서는 ‘사거리에서 ~ 하다’ 이지만 싱할라어에서는 ‘사거리 에서부터 ~ 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හන්දියේදී දකුණට හැරෙන්න** (한디에디 다푸너떠 해렌너)가 아니라 **හන්දිය** (한디엔 다푸너떠 해렌너) 라고 말한다. ‘~에서 부터’ 라는 자세한 설명은 4.3.1.1 을 참조하길 바란다.

싱할라 어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다. 이는 100여년이 넘는 영국 식민지 생활에서 비롯한 것으로 일상 속에 영어 단어 즉, 외래어를 매우 많이 사용한다.

이 때 명사의 경우 영어 단어 뒤에 එක (에꺼)를, 동사의 경우 කරනවා (꺼러너와) ‘하다’ 를 붙인다. (영어가 직접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명사와 동사가 대부분이다.) 싱할라를 처음 쓰시는 분들도 어휘력이 부족할 경우, එක (에꺼)와 කරනවා (꺼러너와) 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이 쓰는 단어의 예를 모아 봤다.

버스	බස් එක (바스 에꺼)
보드	බෝඩ් එක (보드 에꺼)
휴대전화	මොබයිල් ෆෝන් එක (모바일 폰 에꺼)
예약하다	බුක් කරනවා (북 꺼러너와)
전화하다	කෝල් කරනවා (콜 꺼러너와)
취소하다	කැන්සල් කරනවා (캔슬 꺼러너와)

3.4 표현 ප්‍රකාශය

3.4.1 방향 දිශාව

이번 과에서는 방향을 지시하는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자

우회전하세요	දකුණට හැරෙන්න (다꾸너떠 해렌너)
좌회전하세요	වමට හැරෙන්න (와머떠 해렌너)
직진하세요	කෙලින්ම යන්න (켈링머 얀너) ²⁵
계속 가십시오	දිගටම යන්න (디거떠머 얀너)
앞으로 가십시오	ඉස්සරහට යන්න (잇써라하떠 얀너)
뒤로 가십시오	පස්සට යන්න (פט써떠 얀너)
방향을 돌리십시오	ආපහු හැරෙන්න (아빠후 해렌너) ²⁶

단어) කෙලින්ම (켈링머) 똑바로
 දිගටම (디거떠머) 계속

²⁵ 실질적으로 කෙලින්ම යන්න (켈링머 얀너), දිගටම යන්න (디거떠머 얀너), ඉස්සරහට යන්න (잇써라하떠 얀너) 가 갖는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

²⁶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대해서는 හැරෙනවා (해레너와) ‘돌다’ 를 쓰고 차량에 대해서는 හරවනවා (하러워너와) ‘돌리게 하다’ 를 쓴다. 따라서 차량을 돌리십시오.(유턴 하십시오.) 는 ආපහු හරවන්න (아빠후 하러완너) 라고 한다.

ඉස්සරහ	(잇써라하)	앞
ඉස්සරහට	(잇써라하떠)	앞으로
පස්සේ	(뻗쎄)	뒤
පස්සට	(뻗써떠)	뒤로
ආපහු	(아빠후)	되돌아, 되돌려
හරවන්න	(하러완너)	හරවනවා (하러워너와) 돌다 의 명령형

- 사거리가 나올 때까지 직진하십시오.

හන්දිය හම්බවෙනකල් කෙලින්ම යන්න

(한디여 함버웨너깁²⁷ 췌렁떠 앞너)

- 센터는 은행 맞은 편에 있습니다.

සෙන්ටර් එක තියෙන්නේ බැංකුව ඉස්සරහ

(센터 에꺼 띠온네 뱅꾸워 잇써라하)

- 서점은 학교 옆에 있어요

පොත් සාප්පුව ඉස්කෝලේ එහා පැත්තෙ තියෙනවා

(뿔 샵뿌워 이스୍କ올레 옹하 옆떼 띠온너와)

දාන) පොත් සාප්පුව (뿔 샵뿌워) 서점

- 약국은 병원의 원쪽에 있습니다.

ඔසු හල ඉස්පිරිතලයේ වම් පැත්තෙ තියෙනවා

(오수 할러 이스빠리딸러예 원 옆떼 띠온너와)

දාන)ඔසු හල (오수 할러) 약국
ඉස්පිරිතලය (이스빠리딸러예)병원

- 절은 대학교 오른쪽에 있어요.

පන්සල විශ්ව විද්‍යාලයේ දකුණු පැත්තෙ තියෙනවා

(뻐썰러 위셔 위드얌러예 다꾸누 옆떼 띠온너와)

දාන) විශ්ව විද්‍යාලය(위셔 위드얌러예)대학교

- 책은 탁자 위에 있어요.

²⁷ හම්බවෙනකල් 은 글자 발음은 ‘함버웨너깁’ 이나 실제로는 ‘함버웨너깁’ 에 가깝게 발음된다.

(뿌뚜워 아러 가하 야평²⁹ 띠얀너)

의자를 저 나무 밑에 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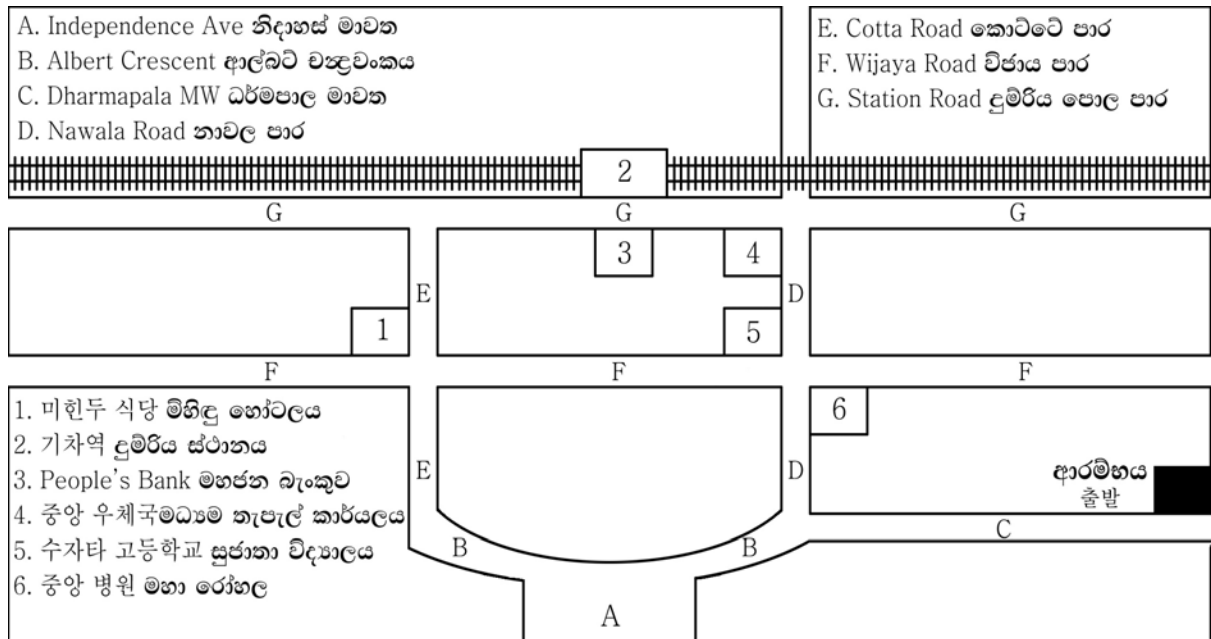
3.5 연습문제 අ්‍යාස

1. 다음 우리 말을 싱할라로 고쳐 보세요.

- 절은 학교 맞은 편에 있나요?
-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시면 우체국이 나옵니다.
단어) 우체국 කැපැල් කන්තෝරුව (때빨 칸또루워)
- 약국이 나올 때까지 직진하세요
- 학교를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십시오
- 앞으로 쪽 가서 왼쪽에 있는 가게를 찾으십시오.
단어) 찾다 හොයනවා (호여너와)

2. 다음 지도를 보고 기차역으로 어떻게 가는 지 설명하십시오

²⁹ යටින් (야평) ‘아래에’ 과 උඩින් (우더) ‘위에’ 은 තියන්න (띠얀너) 와 결합할 때만 쓰인다. 즉, යට (야떠) ‘아래’ 과 උඩ (우더) ‘위’ 의 ‘~에’ 라는 여격 표현으로 쓰인다.



cf) 도로 이름 & 장소

A	නිදහස් මාවත	니다하스 마워따	Independence Ave.
B	ආල්බට් චන්ද්‍රවංකය	앨버트 찬드라왕꺼여	Albert Crescent
C	ධර්මපාල මාවත	다르마빨라 마워따	Dharmapala MW
D	නාවල පාර	나월러 빠러	Nawala Road
E	කෝට්ටේ පාර	꽃때 빠러	Cotta Road
F	විජය පාර	위자야 빠러	Wijaya Road
G	දුම්රිය පොල පාර	дум리여 빨러 빠러	Station Road
1	මිහින්දා භෝටලය	미힌두 호텔	미힌두 식당
2	දුම්රිය ස්ථානය	дум리여 스타너여	열차역
3	මහජන බැංකුව	마하자너 뱅꾸워	Peaple's Bank
4	මධ්‍යම කැපැල් කාර්යාලය	맛드야머 때빨 가르알러여	중앙 우체국
5	ඩුට්‍යා විද්‍යාලය	수자타 위드알러여	수자타 고등학교
6	මහා රෝහල	마하 로할러	중앙 병원

4과 대중 교통 이용하기

පාඩම් අංක හතර සෙනඟ ප්‍රවාහනය පාවිච්චි කිරීම

4.1 대화 සංවාදය

- නිමල්(නිමල්)** වාඩුල් ගේ ගෙදර කොහෙද තියෙන්නේ දන්නවාද?
(와블게 게더러 꼬해더 띠옌네 단너와더?)
와블네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 කරංග(පාලාගර)** නුවර පේරදෙණිය පාරේ
(누워러 빠라데니야 빠레 띠옌너와.)
캔디 빠라데니야 로(路)에 있어요.
නුවරට යන්න ඕනද? (누워러때 언너 오내더?) 캔디 가시려구요?
- නිමල්(නිමල්)** ඔව්. අද වාඩුල්ගේ උපන් දිනය.
(오우. 아더 와블게 우뺌 디너여.) 예. 오늘이 와블네 생일이예요.
එතනට කොහොමද යන්නේ?
(에떠너때 꼬호머더 언네?) 거기까지 어떻게 가나요?
- කරංග(පාලාගර)** ඉස්සරලාම මෙතනින් කොටුවට 138(එක සිය තිස් අට) බස් එකට නගින්න
(잇씨럴라머 메떠닝 꼬뚜워떠 에꺼씨여 띠스 아떠 버스 에꺼떠 나긴너)
먼저 여기에서 Fort 로 138번 버스를 타세요.
තුනට නුවරට නගරාන්තර කෝච්චිය තියෙනවා
(뚜너때 누워러때 나거란떠러 꼬치여 띠옌너와)
3시에 캔디행 InterCity 열차가 있어요.
- නිමල්(නිමල්)** වාඩුල්ගේ ගෙදරට නුවර දුම්රිය ස්ථනයේ ඉඳලා ළඟද?
(와블게 게더러때 누워러 돔리여 스타너예 인덜라 랑거더?)
와블네 집까지 캔디 기차역에서 가깝나요?
කොහොමද යන්නේ? (꼬호머더 언네?) 어떻게 가나요?
- කරංග(පාලාගර)** ඔව් ත්‍රි විල් එකෙන් යන්න පුළුවන්
(오우. 트리 휠 에겐 언너 빨루왕.) 예. 삼륜차로 갈 수 있어요.
නුවර දුම්රිය ස්ථනයේ ඉඳලා පේරදෙණිය පාරේ ගියාම සුව සේවන ඉස්පිරිකාලය හම්බවෙනවා
(누워러 돔리여 스타너예 인덜라 빠라데니야 빠레 기야며 수워 세워너
이스빠리팔러여 함버웨너와.) 캔디 기차역에서 빠라데니야 로(路)에 가면 ‘수워 세워너 병원’이 나와요.

එකන තමා වාඩුල්ගේ ගෙදර

(එදිනේරා පාපා වෙලෙසේ ගෙදර)

ඒකා ඒකා වෙලෙසේ ගෙදර.

බස් එකේදී(බස් එකේදී) බස්වල

කොන්දොස්තර කොන්දොස්තර? (කොන්දොස්තර?) එතෙක් ගියා? (කොන්දොස්තර: එතෙක්?)
(කොන්දොස්තර) චාන්ද

නිමල් (නිමල්) කොන්දොස්තර යනවා (කොන්දොස්තර යනවා) Fort ලා ගො.

කොන්දොස්තර රුපියල් 6(හය)යි (රුපියල් 6(හය)යි) 6 රුපියල්ය.

නිමල් (නිමල්) උමරිය ස්ථානය පලවන ආකාරය මට කියන්න
(උමරිය ස්ථානය පලවන ආකාරය මට කියන්න.)
උමරිය ස්ථානය පලවන ආකාරය මට කියන්න.

:

කොන්දොස්තර මෙකන තමා උමරිය ස්ථානය. බහින්න.
(කොන්දොස්තර) චාන්ද (මෙකන තමා උමරිය ස්ථානය. බහින්න.)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නිමල් (නිමල්) අද තුනට නුවරට නගරාන්තර කොන්දොස්තර කියනවාද?

(අද තුනට නුවරට නගරාන්තර කොන්දොස්තර කියනවාද?)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මුදල් අයකැම් මුදල් (මුදල් අයකැම්) මුදල්

මුදල්

නිමල් (නිමල්) එකතම පලවන පංතියට ටිකට එකක් දෙන්න

(එකතම පලවන පංතියට ටිකට එකක් දෙන්න)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මුදල් අයකැම් ටිකට ඉවරයි. දෙවැනි පංතිය තමා කියන්නේ

(මුදල් අයකැම්) (ටිකට ඉවරයි. දෙවැනි පංතිය තමා කියන්නේ)

මුදල්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නිමල් (නිමල්) ටිකට 1(එක)ක් දෙන්න. කියද?

(ටිකට 1(එක)ක් දෙන්න. කියද?)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මුදල් අයකැම් රුපියල් 100(සිය)යි (රුපියල් 100(සිය)යි) 100රුපියල් ය.

(මුදල් අයකැම්) රුපියල්

මුදල්

නිමල් (නිමල්) නුවරට යන්න පැය කීයක් ගතවෙනවාද?

(නුවරට යන්න පැය කීයක් ගතවෙනවාද?)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උමරිය ස්ථානයේදී

මුදල් අයකැමි පැය දෙක හමාරයි
(무달 아여깨미) (빠여 데꺼 하마라이) 두시간 반이요.
매표원

නුවරදි (누워리디) 캔디에서

ත්‍රි විල (트리윌러) හලෝ ටැක්සි (할로. 택시) 헤이. (우리) 택시 (를 타세요.)
삼륜차

නිමල් (니말) යනවාද? (야너와더?) 갑니까?

ත්‍රි විල (트리윌러) ඔව් කොහොටද යන්න ඕනෑ?
삼륜차 (오우. 꼬하떠더 얀너 오내?) 예. 어디까지 가시려구요?

නිමල් (니말) පේරදෙණිය සුව සෙවන ඉස්පිරිතාලය ළඟට
(빠라데니야 빠레 수워 세워너 이스빠리딸러여 랑거떠)
빠라데니야 로(路) 수워 세워너 병원 근처요.

ත්‍රි විල (트리윌러) හරි. නගින්න (하리. 나긴너) 좋아요. 타세요.
삼륜차

නිමල් (니말) කියද? (끼여더?) 얼마(에 가나요?)

ත්‍රි විල (트리윌러) රුපියල් 100(සිය)ක් දෙන්න (루삐알 씨약 텐너) 백 루피 주세요.
삼륜차

නිමල් (니말) නෑ. වැඩියි. 50(පනහ)ක් ඇති, නේ? (내. 왜디. 빠너학 애떠 네?)
안돼요. 너무 많아요. 오십 충분하잖아요?

ත්‍රි විල (트리윌러) මේ දවස් වල පෙට්‍රොල් මිල වැඩි වෙලා, නේ?
삼륜차 හරි. 70(හැන්තෑව)ක් දෙන්න

(메 다워스 윌러 페트를 밀러 왜디 웰라,네? 하리.햇때와к 텐너.)
요즘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요,칠십 주세요.

නිමල් (니말) හරි. යං (하리. 양) 좋아요. 갑시다.

4.2 단어 වචන

දන්නවා	단너와	알다
අද	아더	오늘
ගෙදර	게더러	집
උපන් දිනය	우뵤 디너여	생일
එතන	에떠너 ³⁰	거기

³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එතන (에떠너) එහා(에하) 두가지가 있다. එතන (에떠너)는 한 지점 (spot)을 가리키고 එහා(에하)는 비교적 넓은 영역(area)를 가리킨다. 주로 건물같은 경우에는 එතන (에떠너), 마을 정도의 영역이상은 එහා(에하)하고 한다. 참고적으로 '여기' 는 මෙතන (메 떠너), මෙහා(메하)이다.

ඉස්සරලාම	잇써럴라머	일단, 우선
මෙතනින්	메떠닝	여기에서
නගින්න	나긴너	නගිනවා (나기너와) (교통수단 등을) 타다 의 명령형
නගරාන්තර	나거란떠러	도시간(都市間)
කෝව්විය	꼇찌여	열차
ඉඳලා	인덜라	~에서부터 ³¹
ළග	랑거	근처
ගියාම	기야머	යනවා (야너와) 가다 의 가정형
ඉස්පිරිකාලය	이스빠리팔러여	병원
කොහාටද	꼬하떠더	(의문사) 어디로
ආවාම	아와머	එනවා (에너와) 오다의 가정형
කියන්න	끼얀너	කියනවා (끼여너와) 말하다 의 명령형
මෙතන	메떠너	여기
බගින්න	바히너	බගිනවා (바히너와) (교통수단등에서) 내리다 의 명령형
එහෙනම්	에헨낭	그러면
පලවෙනි	빨러웨니	첫번째
පංතිය	뽤띠여	등급(級), 교실
දෙන්න	덴너	දෙනවා (테너와) 주다 의 명령형
ඉවර	이워러	끝난. 매진된.
දෙවෙනි	데웨니	두번째
කියද	끼여더	(의문사) 얼마
පැය	빠여	시간
කියක්	끼약	(의문사) 몇 (개)
ගතවෙනවා	가떠웨너와	(시간 따위가) 걸리다
සිය	씨여	100
පනහ	빠너하	50
වැඩ	왜디	너무 많은
ඇති	애띠	충분한
මේ දවස්වල	메 다워스 윌러	요즘
මිල	밀러	가격
වෙලා	웰라	වෙනවා (되다) 의 분사형
හැත්තෑව	햇때워	70
යං	양 ³²	යනවා (야너와) 가다 의 청유형

³¹ 원래 **ඉඳලා** (인덜라)는 **ඉන්නවා** (인너와)의 분사형이다. 하지만 관용적으로 ‘~에서부터’란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구어체에서 특히 자주 사용한다.

³² **යනවා** (야너와) 가다 의 청유형은 **යං** (양) 도 쓰지만 **යමු** (야무) 역시 공히 사용한다.

4.3 문법 ව්‍යාකරණ

4.3.1 기점과 수단에 관한 후치사

4.3.1.1 ~ යෙන්(~엔), ඉඳලා(인덜라) ~에서부터

본 과에서는 ‘기점 (~에서부터)’을 나타내는 표현을 다뤄 보도록 하겠다. 이 표현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명사 어미에 - **යෙන්** (엔)을 붙여서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ඉඳලා**(인덜라) 라는 단어를 붙여서 표현하기도 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구어체에서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 되겠다. 명사 어미에 - **යෙන්** (엔)을 붙여서 표현하는 경우 명사에 따라 그 때 그 때 어미 형태가 달라지므로 생활 속에서 반복 활용을 통해 익숙해 져야 한다.

- **මගේ ගෙදරට දුම්රිය ස්ථානයෙන් දුරයි.**

(마게 게더러떠 둠리여 스파너엔 두라이.)

මගේ ගෙදරට දුම්රිය ස්ථානයේ ඉඳලා දුරයි.

(마게 게더러떠 둠리여 스파너예 인덜라 두라이.)

기차역에서 제 집까지는 멍니다.

ස්ථානය (스파너여) 역 -> ස්ථානයෙන් (스파너엔) 역에서부터

ස්ථානයේ ඉඳලා (스파너예 인덜라)

- **කොළඹින් තුනට යනවා.** (콜럼빙 뚜너떠 야너와)

කොළඹ ඉඳලා තුනට යනවා. (콜럼버 인덜라 뚜너떠 야너와)

콜롬보에서 세시에 갑니다.

කොළඹ (콜럼버) 콜롬보 ->කොළඹින් (콜럼빙) 콜롬보에서부터

කොළඹ ඉඳලා (콜럼버 인덜라)

- **මඩකලපුවට බස් එක මෙනින් ගන්න පුළුවන්ද?**

(마더칼러뿌워떠 바스에꺼 메떠닝 간너 뽀루왕더?)

여기서 바떠칼로아 가는 버스를 잡을 수 있나요?

මෙන (메떠너) 여기 -> මෙනින් (메떠닝)³³ 여기에서부터

³³ මෙන (메떠너) 여기, එන (에떠너) 저기 의 경우 මෙන ඉඳලා (메떠너 인덜라), එන ඉඳලා (에떠너 인덜라)라고 하지 않고 මෙනින් (메떠닝), එනින් (에떠닝) 이라고 표

4.3.1.2 ~ යෙන් ~에 의하여

방법, 수단을 나타내는 후치사로써 4.3.1.1과 형태가 똑같지만 문맥상, 의미상 차이가 많다. 영어의 By 에 해당한다. 이 역시 명사에 따라 어미 형태가 조금씩 달라진다. 예를 통해 알아 보기로 하자.

- මේ වාහනයෙන් ඉස්කෝලේට යන්න පුළුවන්ද?

(메 와하너엔 이스콜레떠 얀너 뽐루왕더?)

이 차량으로 학교까지 갈 수 있을까요?

වාහනය (와하너여) 차량 -> වාහනයෙන් (와하너엔) 차량으로

- මම ඊයේ නුවරට බස් එකෙන් ගියා (마며 이에 누워러떠 바스 에겐 기야)

저는 어제 캔디까지 버스로 갔습니다.

බස් එක (바스 에꺼) 버스 -> බස් එකෙන් (바스 에겐) 버스로

- එයා හෙට හබරනට කෝච්චියෙන් යනවා

(에야 해떠 하버러너떠 쏫찌엔 아너와) 그는 내일 하바라나로 열차를 타고 갑니다.

කෝච්චිය (쏫찌여) 열차 -> කෝච්චියෙන් (쏫찌엔) 열차로

4.3.2 부정형

4.3.2.1 නෑ (내) ~않다, 없다

싱할라어에는 4가지 형태의 부정 표현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이지 않다’ 혹은 ‘없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නෑ** (내)이다. 동사, 혹은 명사, 형용사와 결합하며 형용사,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 동사의 부정형(강조형), 혹은 형용사와 결합하여 ‘~이지 않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또는 명사와 결합하여³⁴ ‘없다’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현한다.

³⁴ ‘있다’는 **තියෙනවා** (띠예너와) 동사를 이용하여 표현하지만 ‘없다’ 표현의 경우 **තියෙන්නේ** **නෑ** (띠엔네 네) 로 표현하지 않고 동사를 생략하여 **නෑ** (네) 라고만 표현한다. 즉, 동사를 생략했기 때문에 ‘없다’ 라는 의미 표현은 명사 에 **නෑ** (네)를 결합한 형태가 된다.

එනවා (에너와) 오다	->	එන්නේ නෑ (엔네 내) 오지 않다
යනවා (야너와) 가다	->	යන්නේ නෑ (얀네 내) 가지 않다
බහිනවා (바히너와) 내리다	->	බහින්නේ නෑ (바히네 내) 내리지 않다
ආවා (아와) 왔다	->	ආවේ නෑ (아웨 내) 오지 않았다
ගියා (기야) 갔다	->	ගියේ නෑ (기예 내) 가지 않았다
උන්නා (둔나) 주었다	->	උන්නේ නෑ (둔네 내) 주지 않았다
සත්තු ඉන්නවා (삿뚜 인너와)벌레가 있어요.	->	සත්තු නෑ (삿뚜 내) 벌레가 없어요.
පොත තියෙනවා (뽀떠 띠예너와)책이 있어요.	->	පොත නෑ (뽀떠 내) 책이 없어요.

දානර)	උන්නා (둔나)	දෙනවා (데너와) 주다의 과거형
	සත්තු (삿뚜)	벌레

위의 예에서 보다시피 동사가 부정형(강조형)으로 쓰일 경우에는 굉장히 규칙적인 변화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구어체에서는 부정형에서 ‘ㄴ’ 발음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로 줄여서 발음한다. (싱할라 어의 표기 관습에 따라 앞으로의 교재 표기는 **න්නේ නෑ** (엔네 내)로 한다. 하지만 말할 때는 아래에 나열한 표기와 달리 ‘실제 발음’대로 말한다.)

표 기	실 제 발 음
එන්නේ නෑ (엔네 내)	-> එන්නෑ (엔네)
යන්නේ නෑ (얀네 내)	-> යන්නෑ (얀네)
උන්නේ නෑ (둔네 내)	-> උන්නෑ (둔네)
කරන්නේ නෑ (꺼란네 내)	-> කරන්නෑ (꺼란네)

또한 ~없습니까? ~않습니까? 와 같은 질문은 질문형 어미인 **ද(더)** 를 붙여서 **නැද්ද?** (넛더?) 라고 한다.

- අළුත් පොත ගන්නේ නැද්ද?
(알랏 뽀떠 갓떼 넛더?) 새 책을 사지 않았나요?
- තාම ගෙදරට ගියේ නැද්ද?
(따며 게더러떠 기예 넛더?) 아직 집에 가지 않았나요?

4.3.2.2 බැ (배) ~ 할 수 없다

පුළුවන් (뽕루왕) ‘가능하다’ 에 대한 부정으로는 බැ (배) 가 쓰인다. පුළුවන් (뽕루왕)이 동사결합형과 결합하여 표현하는 것처럼 බැ (배) 역시 동사결합형과 결합하여 표현한다. 부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පුළුවන් (뽕루왕)과 බැ (배)는 병기하지 않는다.

또한 ~ 할 수 없나요 의 질문형으로는 බැරිද? (배리더?) 라고 한다.

주의 해야 할 것은 පුළුවන් (뽕루왕) 이나 බැ (배) 에 대한 주어로 මම (마머) 와 같은 주격이 아닌 මට (마떠)와 같은 여격이 쓰인다는 점이다.

- ඔයාට call එක දෙන්න පුළුවන්
(오야떠 콜 에꺼 덴너 뽕루왕) 당신에게 전화 드릴 수 있어요.
- ඔයාට call එක දෙන්න බැ
(오야떠 콜 에꺼 덴너 배) 당신에게 전화 드릴 수 없어요.

주의) දෙන්නේ බැ (덴네 배) 가 아니라 දෙන්න බැ (덴너 배) 이다.

- මට මේ පොත ගන්න බැරිද?
(마떠 메 뽕떠 간너 배리더?) 제가 이 책을 살 수 없나요?
- පුළුවන් (뽕루왕) 가능합니다.
බැ (배) 불가능해요.

4.3.2.3 නෙමෙයි (네메이) ~가 아니다.

부정형의 세 번째 형태로는 ‘~가 아니다’ 의 표현이 있다. නෙමෙයි (네메이)를 사용하며, 영어의 'not' 에 해당한다. 4.3.2.1 의 නැ (네) '~이지 않다, ~가 없다'³⁵ 와는 엄밀히 차이가 있으므로 구별해야 한다.

- ඔයාගේ රටේ කතා කරන්නේ ජපාන් භාෂාවද?
(오야게 라떼 까따 꺼란네 자뽕 바샤워더?) 당신네 나라에서는 일본어를 쓰나요?
නැ. ජපාන් භාෂාව නෙමෙයි.
කොරියානු භාෂාව තමා කතා කරන්නේ.
(내. 자뽕 바샤워 네메이. 꼬리야누 바샤워 따따 까따꺼란네.)
아뇨. 일본어가 아니구요, 한국어를 쓰죠.

³⁵ නැ (네) '~이지 않다, ~가 없다'는 영어의 'no' 에 해당한다.

단어) **හාමාව** (바샤워) 말, 언어

- **ඔයා අනුරාධපුරට අපහු යන්නේ බ්‍රහස්පතින්දා, නේද?**

(오야 아누라다푸러떠 아빠후 얀네 브라하스빠떠다 네더?)

너 아누라다푸라에 돌아가는 게 목요일이지, 그지?)

බ්‍රහස්පතින්දා නෙමෙයි. අඟහරුවාදා.

(브라하스 빠떠다 네메이. 앙거하루와다.) 목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야.

단어) බ්‍රහස්පතින්දා	(브라하스빠떠다)	목요일
අඟහරුවාදා	(앙거하루와다)	화요일
අපහු	(아빠후)	되돌아
අපහු යනවා	(아빠후 야너와)	되돌아가다, 돌아가다

4.3.3 강조사

싱할라 어에는 한국어와는 달리 강조사(強調詞)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강조 부분은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에 강세를 줌으로써 표시하지만 싱할라어는 강세 이외에도 강조사를 첨가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이는 말 그대로 대화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어구로써 그 자체의 의미는 없으며 문장 속에서 다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그 의미를 지닌다.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겠지만 싱할라어에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말이므로 평소에 잘 들어보기 바란다.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가 바로 ~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강조사에는 **තමා**(따마) **ම** (머) 두가지가 있다.

4.3.3.1 තමා(따마)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을 강조하며 피강조어 뒤에 위치한다. 하지만 **තමා**(따마)를 사용하게 되면 동사 역시 강조형을 써야 한다.

- **පළුවැනි පංතිය ඉවරයි. දෙවැනි පංතිය තමා තියෙන්නේ**

(빨려와니 뻐띠여 이워라이. 데왜니 뻐띠여 따마 띠옌네.)

1등석은 매진입니다. 2등석은 있어요.(1등석, 3등석도 아닌 바로 2등석!)

- **මෙතන තමා දුම්රිය ස්ථානය.**

(메떠너 따마 둠리여 스타너여.)

여기, 이 곳이 바로 기차역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

- **කොළඹ නමා ලංකාවේ අගනුවර**

(콜롬버 따마 랑카워 아거누워러)

콜롬보가 바로 랑카의 수도입니다. (서울, 도쿄, 캔디도 아닌 콜롬보!)

단어) **අගනුවර** (아거누워러) 수도

- **දඹුල්ලේ නමා මම වැඩ කරමන්නේ**

(담불레 따마 마머 왜더 꺼란네.)

제가 일하는 곳은 바로 담불라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담불라!)

- **කමල් නමා මගේ යාළුව**

(까말 따마 마게 알루워) 까말이 제 친구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까말!)

4.3.3.2 ම(머)

ම(머)는 명사 뒤에 붙어서 그 명사를 강조한다.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하나는 **නමා**(따마)와 같은 강조 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두’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නමා**(따마)와 다른 점은 ම (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사 형태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⁶

- **හැම බදාදාම මම පොළොන්නරුවට යනවා**

(해머 바다다머 마머 뽀론나루워떠 야녀와.) 매주 수요일에 저는 뽀론나루와에 갑니다.

단어) **හැම** (해머) 매(每)³⁷

- **අර මුළු කන්දම තේ වටනවා**

(아러 몰루 칸더머 떼 와워너와.) 저 산 전체에 차를 재배합니다.

단어) **කන්ද** (칸더) 산
මුළු (몰루) 처음의³⁸

³⁶ **නමා**(따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강조형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명령형, 청유형, 등의 기타 형태에 있어서의 강조는 반드시 ම (머)를 사용한다.

³⁷ **හැම** (해머)는 그 뒤에 명사와 결합하여 규칙적인 일을 나타낸다.(매주, 매일, 매월 등등) 이 때 결합하는 명사는 강조사 ම (머)가 붙는다.

³⁸ **මුළු** (몰루)는 ‘처음의’이란 뜻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라 ම (머)와 함께 ‘전체’란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 **හෙට ඡන්දය නිසා මුළු රටම නිවාඩු**
 (හේදා ඡන්දය නිසා මුළු රටම නිවාඩු) 내일은 선거 관계로 전국 휴무입니다.
 단어) **ඡන්දය** (ඡන්දය) 선거
නිසා (නිසා) ~때문에
නිවාඩු (නිවාඩු) 휴일

4.4 표현 방법

- 이 버스는 몇 시에 갑니까? (때 바스 에꺼 끼여따덕 안네?)
මේ බස් එක කීයටද යන්නේ?
- 다섯시에 갑니다. (ஐந்து 야너와)
5(පහ)ට යනවා.
- 캔디행 버스는 지금 갑니까? (누워러 바스 에꺼 땡 야너와더?)
නුවර බස් එක දැන් යනවාද?
- 지금 당장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곧 갑니다.
 (댄머 안내. 해배이 따위 따꺼쥬 야너와.)
දැන්ම යන්නේ නෑ. හැබැයි තව ටිකකින් යනවා.

- 어디까지 가세요? (까지때때 안네?)
노원까지 운전?
 - 담불라까지 갑니다. (담불러때 야너와)

⁴⁰ ᄃᆞᆫᆫᆫ (댄머) 에서 ᄃᆞᆫ(머)는 위의 4.3.3.2 에서 설명한 강조형이다. 즉, ‘지금 당장’ 이란 의미이다.

දඹුල්ලට යනවා.

4.4.2 열차에 관한 표현

- 열차가 몇 시에 출발합니까? (몇시에 끼여터더 빼앗 웬네?)
කෝච්චිය කීයටද පිටත් වෙන්නේ?
- 6시에 출발합니다. (හයට 빼앗 웨너와)
6(හය)ට පිටත් වෙනවා.

단어) **පිටත් වෙනවා** (빼앗 웨너와) **출발하다**

- 어느 승강장에서 탑승합니까? (표이 플랫폼 에겐⁴¹터 나긴네?)
කොයි platform එකෙන්ද නගින්නේ?
- 2번 승강장에서 타세요. (양꺼 테겐 나긴너.)
අංක 2(දෙක)න් නගින්න.
- 아누라다푸라까지 3등석 표가 얼마입니까?
(아누라다푸라떠 트레니 탄따여 티켓 예꺼 끼여더?)
අනුරාධපුරට තුන්වැනි පංතියේ ටිකට් එක කීයද?
- 80 루피 입니다. (루삐알 아수와이)
රුපියල් 80(අසුව)යි.

4.4.3 삼륜차에 관한 표현

- Bank of Ceylon 까지 가는데 얼마예요? (랑카 뱅꾸워떠 얀너 끼여더?)
ලංකා බැංකුවට යන්න කීයද?
- 30 루피 주세요. (루삐알 띠학 덴너)
රුපියල් 30(තිහ)ක් දෙන්න.
- 값이 너무 비싸요. (가냥 왜디)
ගණං වැඩියි.
- 앞에서 내립니다. (잇써라하 바히너와)
ඉස්සරහ බහිනවා.

⁴¹ 3.3.2.3 의 ‘주의’ 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 경우도 동일한 경우로 platform **එකෙන්** (플랫폼 에겐) 을 직역하면 ‘플랫폼에서부터’ 란 뜻이 된다.

- 멈추세요. (나왔따너)

නවත්තන්න.

단어) **නවත්තන්න** (나왔따너) **නවත්තනවා** (나왔떠너와) 멈추다 의 명령형

- 앞에서 우회전 하세요. (ඔස්සරාහිං දාඞුනේර් හෙලේනේ)

ඔස්සරහින් දකුණට හැරෙන්න.

4.5 연습문제 අභ්‍යාස

다음 대화를 싱할라어로 옮기세요

A: මාපාරා ගාන බස්සා මේ සීයේ ඉතායො?

B: 6සීයේ ඉස්සුනිදා.

A: A/C බස්සඟ්ගායො, ඉලබා බස්සඟ්ගායො?

B: ඉලබා බස්සේයො. A/C බස්සා ම්ලහනායො?

A: ඔ. ඉතේ මේ සීයේ ඉස්සු?

B: 6සී බායේ ඉස්සේයො.

A: මේ සීකානා ගිලේයො?

B: 4සීකා ගිලේයො.

සම්පත් (සෘෂ්ට)	අල ග්‍රෑම් 500(පන් සිය)කුසි බිත්තර 6(හය)කුසි දෙන්න. (알러 그램 뽀씨야꾸이 빗떠러 하야꾸이 덴너) 감자 500그램이랑 달걀 6개 주세요.
මුදලාලි (무더랄리) 상점주인	අද හොඳ සුදු ලුනු ආවා. ඕනෑද්? (아더 혼더 수두 루누 아와. 오내더?) 오늘 좋은 마늘이 들어왔어요. 원하세요?
සම්පත් (සෘෂ්ට) මුදලාලි(무더랄리) 상점주인	එපා. එව්වරයි. (에빠. 옛찌라이) 아뇨. 그만큼이요. රුපියල් 161(එක සිය හැට එක)යි. (루뽀알 에꺼 씨여 해떠 예까이.) 161루피 입니다.
සම්පත් (සෘෂ්ට)	අල කිලෝ 1(එක)ක් රුපියල් 88(අසූ අට)යි නේ? (알러 킬로 예각 루피알 아수 아따이 네?) 감자 1킬로에 88루피지요?
මුදලාල (무더랄리) 상점주인	ඔව්. අල රුපියල් 88(අසූ අට)යි, බිත්තරයක් 8(අට)යි 50(පනහ)යි. (오우. 알러 루뽀알 아수 아따이, 빗떠러약 아따이 빠너하이.) 예. 감자는 88 루피구요, 계란 1개는 8.5 루피입니다. රුපියලක් නැද්ද? (루뽀알락 냇더?) 1루피(동전) 없으세요? සම්පත් (සෘෂ්ට) තියෙනවා. මෙන්න. (띠예너와. 멘너.) 있어요. 여기요.

5.2 단어 වචන

හාල්	할	쌀
රතු	라투	붉은
තව	따워	더 (more)
අල	알러	감자
බිත්තර	빗떠러	달걀
ලුනු	루누	양파
එළවළු	엘러월루	야채
මිරිස්	미리스	고추
බලන්න	발란너 ⁴²	බලනවා (발러너와) 보다 의 명령형
අනිත්	아닛	다른
ඒවා	에와	ඒක (에꺼) 그것 의 복수형

⁴² 3과(科) 주석 2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도 **බලන්න** (발란너)가 ‘시도’의 의미로 쓰였다. 즉, **එළවළු කඩට ගිහිලා බලන්න** (엘러월루 까데떠 기힐라 발란너.) 라고 하면 ‘야채가게에 한 번 가 보세요’ 라는 뜻이다.

අපෙන්න	아빠	අපි (아빠) 우리 의 변형. 우리에게서
කොහෙ	꼬혜	어디
අද	아더	오늘
හොඳ	혼더	좋은
සිදු ලුනු	수두 루누	마늘
රුපියලක්	루삐알락 ⁴³	1 루피
එව්වර	옛찌러	그만큼
මෙන්න	멘너	여기 있습니다. (here it is.)

5.3 문법 ව්‍යාකරණ

5.3.1 소유 표현 තියෙනවා (띠예너와)/ ඉන්නවා (인너와)

තියෙනවා (띠예너와)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 했지만 ‘~가 있다’ 라는 소유의 표현이다. 우리말에서도 ‘나에게 ~이 있다’ 라고 표현 하듯이 싱할라에서도 주어에 여격을 사용하여 මම(마머) 가 아닌 මට(마떠) 라고 한다. 또한 문맥상 의미가 통한다면 주어를 생략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또한 ‘I have a son.’ 과 같이 사람에 대한 소유 표현 은 3.3.4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ඉන්නවා** (인너와)를 쓴다.

- මට පැනක් තියෙනවා. (마떠 빼낙 띠예너와)
저는 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펜이 있습니다.)
- ඔයාට computer එක තියෙනවාද? (오야떠 컴퓨터 예꺼 띠예너와더?)
당신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당신에게 컴퓨터가 있나요?)
- ඔයාට පුතා කී දෙනෙක් ඉන්නවාද? (오야떠 뿌따 끼 테넥 인너와더?)
당신한테 아들이 몇 명있나요?

단어) පුතා (뿌따) 아들

‘없다’ 라는 부정을 표현할 때는 4과에서 배운 නැ(내)를 쓴다. 하지만 4.3.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 표현은 තියෙන්නේ නැ (띠옌네 내) 가 아니라 그냥 නැ (내) 라고 한다. නැ (내) 혹은 නැහැ (내해) 모두 사용한다. 또한 질문의 경우 නැද්ද? (넛더?) 없

⁴³ රුපියලක් (루삐알락) 은 රුපියල් එකයි (루삐알 예까이) ‘1루피’ 란 뜻으로 ‘하나’ 를 이런 식으로 종종 표현한다. 자세한 내용은 6.3.3.2의 수의 표현 을 참조 하길 바란다.

나요? 라고 한다.

- මම පොත නෑ (마떠 뽀떠 내) = මම පොත නැහැ (마떠 뽀떠 내해)
저에게는 책이 없습니다. (저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එයාට සල්ලි නැද්ද? (에야떠 쌀리 냐떠?)
그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단어) සල්ලි (쌀리) 돈

- මම තිබහයි. චතුර නැද්ද? (마떠⁴⁴ 띠바하이. 와뚜러 냐떠?)
저 목이 마르네요. 물 없나요?

단어) තිබහ (띠바하) 목마른
චතුර (와뚜러) 물

5.3.2 소망/의무 표현 ඕනෑ (오내)

ඕනෑ (오내) 는 원하다, 희망하다 등의 소망 표현, ~하려고 하다 와 같은 의지 표현, ~ 해야 한다 의 의무 표현으로 굉장히 폭 넓게 쓰이는 조동사이다. 동사 변형 중 동사 연결형(명령형)과 결합하여 쓰인다.

‘원하다, 희망하다, ~하려고 하다’ 와 같은 소망, 의지 표현의 경우 위의 තියෙනවා (띠예너와)의 경우에서처럼 주어로 මම (마떠)가 쓰이나 ~해야 한다 와 같은 의무 표현의 경우 주어로 මම (마떠)가 쓰인다.⁴⁵

- මම මේසයක් ඕනෑ. (마떠 메씨약 오내)
저는 탁자를 원해요. (저는 탁자가 갖고 싶어요.)
- ඔයාට මොනවාද ඕනෑ? (오야떠 모너와떠 오내?)
무엇을 원하세요?

⁴⁴ 형용사의 경우 그 주어는 무조건 여격을 쓴다. 즉 මම තිබහයි (마떠 띠바하이)는 잘못된 문장이고 මම තිබහයි (마떠 띠바하이) 가 옳은 문장이다. 이는 모든 형용사 표현에 있어 공통 사항이다.

⁴⁵ 2과 대화 마지막에 나오는 මම දැන් යන්න ඕනෑ (마떠 땡 얀너 오내.) ‘나는 지금 가야 한다’가 바로 의무 표현에 해당한다. මම දැන් යන්න ඕනෑ (마떠 땡 얀너 오내.)는 ‘나는 지금 가고 싶어요.’ 라는 뜻이다.

- **නුවරට යන්න ඕනෑ.** (누워러떠 얌너 오내.)
캔디로 가야 해요. (캔디로 가려구요.)
- **ලියන්න ඕනෑද?** (리얌너 오내더?) ⁴⁶
써야 하나요?
- **මට බඩගිනියි. බත් කන්න ඕනෑ.** (마떠 바더기니. 밥 깐너 오내.)
저 배가 고파요. 밥 먹어야 해요.(밥 먹고 싶어요.)

දාන) බඩගිනි (바더기니) බෙගප්

‘원치 않다’ 라는 부정 표현의 경우 **ඕනෑ** (오내)에 부정형 어미 **නෑ** (내)를 붙여 **ඕනෑ නෑ** (오내 내) 라고 한다. 앞서 4.3.2.1 에서 부정 표현을 살펴 봤듯이 원하다 의 부정 표현 역시 표기는 **ඕනෑ නෑ** (오내 내) 라고 하지만 실제 대화에서의 발음은 **ඕන්නෑ** (온내)⁴⁷ 라고 말한다.

- **මට සුළු ලුහු ඕනෑ නෑ.** (마떠 수두 루누 오내 내.)
저는 마늘을 원치 않아요. (마늘 안 사요.)
- **නිමල්ට යන්න ඕනෑ නෑ. එයාට මහන්සියි.**
(니말떠 얌너 오내 내. 예야떠 마한시이.) ‘니말’은 가길 원치 않아요. 그는 피곤해요.

원하다 의 질문과 그 대답을 살펴 보자. 질문은 당연히 질문형 어미 - **ද?**(더?)만 붙이면 된다. 대답의 경우 긍정 대답은 **ඔව්** (오우) 라고 하나 부정 대답은 **නෑ** (내)가 아니라 **එපා** (에빠) 라고 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 **ඔයාට පෑනක් ගන්න ඕනෑද?** (오야떠 빼낙 깐너 오내더?) **ඔව්** 하나 사시려구요?
- **ඔව්. මට ඕනෑ.** (오우. 마떠 오내.) 예. 저는 원합니다.
එපා. මට ඕනෑ නෑ. (에빠. 마떠 오내 내.) 아니요. 원치 않습니다.

⁴⁶ **ඔයාට මම ලියන්න ඕනෑද?** (오야떠 마떠 리얌너 오내더?), 혹은 **මම ලියන්න ඕනෑද?** (마떠 리얌너 오내더?) 의 생략으로 당신은 내가 쓰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제가 써야 합니까? 란 뜻이다. 사실 이 문장은 필자가 칠판에 판서를 하면 학생들이 판서내용을 필기 해야 하는 지 물을 때의 문장이었는데 처음 파견되었을 때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황당해 했던 기억이 있다. (당연히 최소한 메모 정도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⁴⁷ 이 역시 **න**의 중복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4.3.2.1 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앞으로의 표기는 **ඕනෑ නෑ** (오내 내)로 하지만 실제 대화 시에는 **ඕන්නෑ** (온내)로 발음하도록 한다.

단어) **ගන්න** (간너) **ගන්නවා** (간너와) 얻다, 사다 의 동사 결합형

위의 대화에서처럼 ‘원치 않는다’ 라는 부정형의 **දෙය**을 할 때는 **එපා** (에빠)를 쓴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원하다’ 의 부정문은 **මින් නෑ** (오내 내)이고 부정대답을 할 때 **එපා** (에빠)라고 한다는 점이다.

- අපට ගමනක් යන්න මින් නෑ. (아빠떠 가며낙 얏너 오내 내.)
우리는 여행 가고 싶지 않아요. (부정문)
- මයාට කන්න මන්ද? (오야떠 칸너 오내더?)
මම දෙය? (직역: 당신은 드시길 원하십니까?)
එපා. මින් නෑ. බඩ පිරිලා. (에빠. 오내 내. 바더 빠릴라.)
아뇨. (직역: 하지 마십시오.) 원치 않습니다. 배가 불러요.(부정 대답)

단어) **ගමනක් යනවා** (가며낙 야너와) 여행가다
බඩ (바더) 배
පිරිලා (빠릴라)⁴⁸ **පිරෙනවා** (빠레너와) 가득 차다 의 분사형

또한 **එපා** (에빠)는 원치 않는다는 ‘대답’ 이외에도 동사의 동사연결형과 결합하여 ‘금지’⁴⁹를 나타낸다.

- යන්න එපා. (얏너 에빠) 가지 마십시오.
- කන්න එපා. (칸너 에빠) 먹지 마십시오.
- දෙන්න එපා. (덴너 에빠) 주지 마십시오.
- කරන්න එපා. (꺼란너 에빠) 하지 마십시오.

5.3.3 ‘그리고’, ‘또는’ 의 표현

우리말에서나 영어에서는 ‘그리고’나 ‘또는’의 표현은 굉장히 쉽고도 간단하다. 하지만 싱할라어 에서는 조금 복잡하다. 이는 문어체와 구어체가 따로 있기 때문이며 문어체의 경우 한국어와 동일하게 그냥 ‘그리고’에는 **සහ**(사하) ‘또는’ 에는 **හෝ**(호) 를 쓴다. 하지만 구어체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의 경우 각 명사

⁴⁸ **පිරිලා** (빠릴라)는 (혹은 과거형으로 **පිරුනා** (빠루나)를 쓰기도 한다.) ‘배’를 의미하는 **බඩ** (바더)와 결합하여 ‘배가 불러요.’ 란 의미가 된다.

⁴⁹ 4.3.2.1 에서 언급한 4가지 부정형의 마지막이 바로 **එපා** (에빠) 이다.다소 특이한 형태이고 소망 표현 및 명령형과 관계된 부분이어서 따로 언급해 보았다.

끝에 **යි(이)**를 붙이며 ‘또는’의 경우 각 명사 끝에 **හරි(하리)**를 붙여서 표현한다⁵⁰.

- මම අලයි බිත්තරයි මිරිසුයි හාලයි ගන්නා.

(마며 알라이 빗떠라 이 미리수 이 할루 이 갓따)

저는 감자와 달걀과 고추와 쌀을 샀습니다.

단어) ගන්නා

(갓따)

ගන්නවා (간너와) 사다 의 과거

- නිමලයි මමයි ඉස්කෝලේට ගියා. (니말루 이 마마 이 이스꼴레따 기야.)

니말과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 මම සිංහල හරි දෙමල හරි ඉගෙන ගන්න ඕනෑ.

(마며 싱할러 하리 데멜러 하리 이게너 간너 오내.)

저는 싱할라나 타밀어를 배우고 싶어요.

단어) දෙමල

(데멜러)

타밀, 타밀어

ඉගෙන ගන්නවා

(이게너 간너와) 배우다

- මෙතනින් කොළඹට බස් එකෙන් හරි කොච්චියෙන් හරි යන්න පුළුවන්.

(메떠닝 콜롬버떠 바스 에겐 하리 쏿찌엔 하리 얀너 뽐루왕)

여기서 콜롬보로 버스나 열차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의 표현에서 단어들 중 **’ (හල් කිරීම 할 끼리머)**로 끝나는 명사들의 경우 위의 예에서 보다시피 **’ (පාවිල්ල 빠벨러)**를 붙여 표현한다.

මිරිස් (미리스) -> මිරිසුයි (미리수이) ,

හාල් (할) -> හාලයි (할루이)

단어) මිරිස්

(미리스)

고추

හාල්

(할)

쌀

⁵⁰ 구어체에서의 ‘그리고’, ‘또는’의 표현은 명사와 명사 사이에 접속사를 위치시키는 영어나 한국어에서의 표현과 달리 각 명사의 뒤에 모두 위치한다. 즉, 한국어에서는 책’**과**’ 펜, 양과 ‘**또는**’ 감자 라고 표현하나 싱할라어에서는 පොතයි පෑනයි, ලෑණු හරි අල හරි 처럼 각각의 연결 명사 뒤에 모두 위치한다.

5.3.4 확인문

우리말에 보면, ‘저 앞에 사거리 보이죠?’, ‘이 길로 죽 가면 경복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와 같이 화자가 청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듯이 말하는 경우가 있다. 싱할라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말과 용법이나 그 뉘앙스가 동일하다. 평서문 뒤에 **නේ?**(네?) 혹은 **නේද?**(네더?) 를 붙여 표현한다. 이 두 표현은 거의 비슷하며 지역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지역 주민들의 말을 잘 들어 보고 본인이 따라 하면 된다. 굉장히 쉬운 표현이면서도 싱할라어 대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다.

- අල කිලෝ 1(එක)ක් රුපියල් 88(අසූ අට)යි, නේ?
= අල කිලෝ 1(එක)ක් රුපියල් 88(අසූ අට)යි, නේද?
(알려 킬로 예각 루삐알 아수 아따이, 네?[네더?])
감자 1 킬로에 88 루피지요?
- පාක් එක ලඟින් දකුණට හැරෙනවා, නේද?
= පාක් එක ලඟින් දකුණට හැරෙනවා, නේ?
(파크 예꺼 랑긴 다꾸너떠 해레너와, 네더?[네?])
공원 근처에 우회전하는 거죠? 그렇지요?
- 50(පනහ)ක් ඇති, නේ?
= 50(පනහ)ක් ඇති, නේද?
(빠너학 애띠,네? [네더?])
50(루피) 면 충분하죠?

다음 두 문장은 확인문과 일반 질문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첫번째 문장은 길 앞에 은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확인차 하는 말이고 두번째 문장은 실제로 은행이 있는지 없는 지 몰라서 정보를 구하는 질문이다.

- මේ පාරේ ඉස්සරහ බැංකුව තියෙනවා, නේ?
(메 빠레 잇써라하 뱅꾸워 띠예너와, 네?)
이 길 앞에 은행이 있지요?
- මේ පාරේ ඉස්සරහ බැංකුව තියෙනවාද?
(메 빠레 잇써라하 뱅꾸워 띠예너와더?)
이 길 앞에 은행이 있나요?

부정문을 확인하는 경우 부정문 뒤에 확인형 어미 **නේ?**(네?) 혹은 **නේද?**(네더?)만 덧붙이면 된다.

- **ඔයාට පැනක් නෑ, නේ?**

= **ඔයාට පැනක් නෑ, නේද?**

(오야떠 빼낙 내, 네?[네더?]) 너한테 켜 없지?

- **මෙහෙම කළත් මොනවත් කමක් නෑ, නේ?**

= **මෙහෙම කළත් මොනවත් කමක් නෑ, නේද?**

(메헤머 꺼랏 모너왓 까막 내, 네?[네더?])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 없지, 그지?

단어)	මෙහෙම	(메헤머)	이렇게
	කළත්	(까랏)	කරනවා (꺼러너와) 하다 의 과거 독립형, '~했을 지라도, ~해도'
	මොනවත්	(모너왓)	아무 것도
	කමක් නෑ	(까막 내)	상관 없다

5.4 표현 𑖦𑖪𑖫𑖬

5.4.1 야채와 𑖦𑖪𑖫𑖬 𑖦𑖪𑖫𑖬 𑖦𑖪𑖫𑖬

ලුනු	루누	양파	මිරිස්	미리스	고추
වට්ටක්කා	왓딱까	호박	කැරට්	캐럿	당근
කංකුං	간곤	간곤	ලික්ස්	릭스	파
සුදු ලුනු	수두 루누	마늘	රාබු	라부	무우
ගෝවා	고와	배추	සලාද කොළ	살랏 꼴러	상추
බිම්මලේ	빔말	버섯	අල	알러	감자
බින්තර	빔떠러	달걀	බතල	바텔러	고구마
බොංචි	봉찌	콩	මුං ඇට	몽 애떠	녹두
කවුපි	까우빠	팔	බටු	바뚜	가지
රතු අල	라뚜 알러	Red Beet	දඹල	담벌러	담벌러
මුරුංගා	무롱가	무롱가	පතෝල	빠톨러	빠톨러

cf) 비록 야채나 𑖦𑖪𑖫𑖬는 아닐 지라도 야채가게나 𑖦𑖪𑖫𑖬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수록했다.

5.4.2 과일 පළතුරු

අපල්	ඇඞ	සාආ	කෙසෙල්	කෙෂ්	බානා
ස්ටරෝබෙරි	ස්ටරොබෙරි	පාලි	පෙයාර්ස්	ආයාස්	බේ
මැන්දුස්	මැංගුස්	මැංගොස්ටින්	අන්නාසි	අනාසි	පාය්නාපල්
අඞ	අඞ	මැංගො	කැබ්ලි	කැබ්ලි	කිංකොකොට්
පේර	පේර	ගුආබා	දෙහි	දෙහි	ලාය්
නාරං	නාරං	කුල	දොඩං	දොඩං	ඔලන්ජි
වැල් දොඩං	වෙල් දොඩං	පෘෂ්ණ ෆ්ලූට්	දිවුල්	දිවුල්	වුඩ් අපල්
පැපොල්	පැපොල්	පාපායා	මිදි	මිදි	පොටො
රඞුටං	රාඞුටා	රාඞුටා	වැල	වෙලර්	ෂෂ් ෆ්ලූට්(Soft)
දුරියං	දුරියා	දුරියා	වරකා	වරකා	ෂෂ් ෆ්ලූට්(Hard)

5.4.3 ගෑගෙයේ සිට ගත හැකි ප්‍රකාශන

- මොනවාද මිනැ? (මොනවාද ඔබගේ?)

මොනවාද මිනැ? (මොනවාද ඔබගේ?)

- පාය්නාපල් සොයා ගත්තේ. පාය්නාපල් එකකට කොපමණද?

අන්නාසි මිනැ අන්නාසි ගෙඩියක් කියද?

(අනාසි ඔබගේ. අනාසි කෙටිකට් කෙටිකට්?)

දාය් ගෙඩිය (කෙටිකට්) කෙටිකට්

ගෙඩියක් (කෙටිකට්) කෙටිකට් 1කට

- පාය් කිලෝ කොපමණද?

හාල් කිලෝ කියක් මිනැද? (හාල් කිලෝ කිලෝ ඔබගේ?)

4 කිලෝ කියක්.

කිලෝ 4(හතර)ක් දෙන්න (කිලෝ කිලෝ කිලෝ කිලෝ)

- පාය් තිබෙන්න?

හාල් කිලෝ කියක් මිනැද? (හාල් කිලෝ කිලෝ කිලෝ කිලෝ)

ඔ. මොන කිලෝ කියක් මිනැද? (කිලෝ කිලෝ කිලෝ කිලෝ)

ඔබ. මොන වර්ගය මිනැද? (කිලෝ කිලෝ කිලෝ කිලෝ)

දාය් මොන (කිලෝ කිලෝ කිලෝ කිලෝ)

වර්ගය (කිලෝ කිලෝ කිලෝ කිලෝ)

- 전부 얼마입니까?

ඔක්කොම කියද? (옥꼬며 끼여더?)

92 루피 입니다.

රුපියල් 92 (අනු දෙක)යි (루삐알 아누 데카이)

단어) **ඔක්කොම** (옥꼬며) 전부

- 더 뭘 원하세요?

කව මොනවාද ඔන? (따워 모너와더 오내?)

아뇨. 이거면 되요.⁵¹

එපා. එව්වරයි. (에빠. 옛찌라이)

단어) **කව** (따워) 더
එව්වර (옛찌러) 그만큼

5.4.4 기타 유용한 표현

이번 과에서는 싱할라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유용한 표현들을 알아 보기로 하자.

5.4.4.1 නිකං (니깡)

නිකං (니깡)은 정말 많이 쓰이는 부사어으로써 ‘무료의, 아무 이유 없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어의 ‘그냥’ 과 아!주! 똑같다. 따라서 **නිකං** (니깡)은 그냥 ‘그냥’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말 그냥 간단하다.

- **මේක ගත්තේ කියද?** (메꺼 갓때 끼여더?)

이거 얼마에 샀어요?

නිකංම හම්බවුනේ (니깡며⁵² 함버우네⁵³.)

그냥 얻었어요. (공짜로 얻었어요.) - ‘공짜로, 무료로’

⁵¹ 더 원하는 거 있으세요? 라는 질문의 대답에 이거면 되요. 충분해요. 라고 대답을 할 때는 **එව්වරයි** (옛찌라이) 라고 한다. 직역하면 ‘그만큼이요.’ 라는 뜻이다. 간혹 외국인 싱할라 사용자들 중에 우리말로 ‘충분해요.’ 라고 한다고 하여 **ඇති**(애티) 라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

⁵² **නිකංම** (니깡며)는 **නිකං** (니깡)의 강조로 쓰였다.

⁵³ **හම්බවෙනවා** (함버웨너와)는 기본적으로 ‘만나다’란 의미도 있지만 이 원의미(原意味)에서 파생되어 ~을 얻다, 사다 의 의미도 있다. 따라서 ‘~을 사다’라는 말을 할 때 **ගන්නවා** (간너와)도 쓰지만 **හම්බවෙනවා** (함버웨너와)를 사용하기도 한다.

- **ආයි දාවේ?** (애이 아웨이?)
 무슨 일로 왔어요?(직역: 왜 왔어요?)
නිකං ආවිල්ලා බැලුවා (니깡 애월라 뵈루와)
 그냥 와 봤어요. - ‘아무 이유 없이’

5.4.4.2 ඉවරයි (이워라이)⁵⁴

ඉවරයි (이워라이)는 ‘~이 끝나다, 마감되다’란 의미이다.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ඉවර කරනවා** (이워러 꺼러너와) ‘끝내다’에서 파생된 **ඉවර වෙනවා** (이워러 웨너와) ‘끝내어지다, 즉, 끝나다.’에서 **වෙනවා** (웨너와)가 생략되고 서술어미 **යි** (이)가 붙은 것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법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쓰임새인데, **ඉවරයි** (이워라이)에는 ~이 마감되어, 혹은 다 팔려서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 말로 번역을 하자면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마감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팔려서 없습니다.’ 등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 가게에서

- **මට පැනක් දෙන්න** (마뽀 빼낙 텐너.)
 펜 좀 주십시오.
පැනක් ඉවරයි (빼낙 이워라이)
 펜이 다 팔려서 없어요.(직역: 펜이 끝났습니다.)
- **තව හදන්න තියෙනවාද?** (따워 하단너 띠예너와더?)
 더 만들 것이 있나요?
නැ. වැඩ ඉවරයි (내. 왜더 이워라이)
 아뇨. 다 끝났어요. (직역: 일이 끝났습니다.)

단어)	තව	(따워)	더
	හදන්න	(하단너)	(하더너와) 만들다 의 동사결합형
	වැඩ	(왜더)	일

⁵⁴ **ව** (와)는 독일어의 ‘W’와 같이 음가를 반쯤 소실한 반자음이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Va’로 소리나는 경우도 있다. **ඉවරයි** (이워라이)도 역시 사람에 따라 (이버라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옳은 발음이다. 참고적으로 싱할라 사람들은 ‘V’ 음과 ‘W’ 음을 혼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V’ 음을 거의 음가를 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Vanila’의 경우 ‘바닐라’라 하지 않고 ‘와닐라’, ‘Van’의 경우는 ‘벤’이라 하지 않고 ‘웬’이라고 한다.

5.4.4.3 වැඩක් නෑ (왜다 내)

වැඩක් නෑ (왜다 내) 는 ‘~ 해 봤자 소용 없다.’ 라는 뜻이다.

- ඒ ගොල්ලෝ ගෙදර නෑ. ඒ නිසා එතනට ගියත් වැඩක් නෑ
(에 골로 게더러 내. 에 니사 에떠너떠 기얏 왜다 내)
개네들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도 소용 없어요.

දාන) ඒ ගොල්ලෝ	(에 골로)	ඒ
ඒ නිසා	(에 니사)	그러므로, 그러니까
ගියත්	(기얏)	යනවා (야너와) 가다 의 과거독립형 ⁵⁵

5.4.4.4 ඉතිං (이똥)

ඉතිං (이똥)은 ‘그래서’ 라는 뜻이다. 영어의 ‘So’ 에 해당한다.

- දැං ඉතිං අපි මොනවාද කරන්නේ?
(댕 이똥 아뻘 모너와더 꺼란네?) 지금 그래서 우리 뭘 하지?

5.4.4.5 ඒක තමයි (에꺼 따마이)

ඒක තමයි (에꺼 따마이) 는 ‘그러게요,’ ‘그러게 말예요.’ 의 뜻이다. 4.3.3.1 강 조사의 තම(따마)에 문장 종결 어미 යි(이)가 붙은 것으로 직역하면 ‘바로 그거에 요!’ 정도가 되며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표할 때 주로 쓴다.

- අද අව්ව සැරයි, නේ!
(아더 아우워 썬라이, 네!) 오늘 햇볕이 세네요.
ඒක තමයි. අපි සෙවනට යං.
(에꺼 따마이. 아뻘 썬워너떠 양.) 그러게요. 우리 그늘로 갑시다.

දාන) අව්ව	(아우워)	햇볕
සැර	(썬라이)	매서운, 매운
සෙවන	(세워너)	그늘

⁵⁵ 과거 독립형 이라 함은 영어의 ‘Although’ 에 해당한다. ~ 했을지라도, ~ 하더라도, 의 뜻으로 과거 독립형 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들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나 싱할라 어 언어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 쓰게 되었다.

- අයි බස් එන්නේ නැත්නැ?

(에이 버스 엔 넷때?) 왜 버스가 안 오지?

ඒක තමය කව ටිකකින් එයි, නේ

(에꺼 따마이. 따워 띠꺼깁 에이,네!) 그러게요. 곧 오겠쥬.

5.5 연습문제 අභ්‍යාස

다음 우리 말을 싱할라로 고쳐 보세요.

1. 감자 500 그램, 쌀 1 킬로그램, 양파 300 그램 주세요.
2. 바나나 하나에 얼마쥬?
3. 우리 가게엔 양파가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6과 식당에서

පාඩම් අංක හය හෝටලයේදී

6.1 대화 සංවාදය

දනුශ්ක(දානුසික) කෑම තියෙනවාද?

(කෑම ටිච්චෙනවාද?) මම මේක ඇහුවා?

ගෝලයා රයිස් ඇන් කැරි තියෙනවා, මොට්ස් තියෙනවා.

(ගෝලයා) නමුත් (රයිස් ඇන් කැරි ටිච්චෙනවා, මොට්ස් ටිච්චෙනවා)

Rice&Curry ඇහුවා. කෙටි කෑම (Short eats) ඇහුවා.

දනුශ්ක(දානුසික) රයිස් ඇන් කැරි දෙන්න.

(රයිස් ඇන් කැරි ටිච්චෙනවා) Rice&Curry ඇහුවා.

ගෝලයා මොන කැරි ටිච්චෙනවා?

(ගෝලයා) නමුත් (මොන කැරි ටිච්චෙනවා)

මොන කැරි ටිච්චෙනවා?

දනුශ්ක(දානුසික) මුඛ මාළු තියෙනවාද?

(මුඛ මාළු ටිච්චෙනවාද?) මොන කැරි ටිච්චෙනවා?

ගෝලයා ඔව්. තියෙනවා. දෙන්නද?

(ගෝලයා) නමුත් (මොන කැරි ටිච්චෙනවා) ඔව්. ඇහුවා. ඔව්. ඇහුවා. ඔව්. ඇහුවා.

දනුශ්ක(දානුසික) ඔව්. දෙන්න.

(මොන කැරි ටිච්චෙනවා) ඔව්. ඇහුවා.

ගෝලයා බීම මොනවාද ඔව්?(බීම මොනවාද ඔව්?)

(ගෝලයා) නමුත් (බීම මොනවාද ඔව්?) මොන කැරි ටිච්චෙනවා?

දනුශ්ක(දානුසික) කෝෆි බඩ 1(එක)ක් දෙන්න. (කෝෆි බඩ 1(එක)ක් දෙන්න)

කෝෆි බඩ 1(එක)ක් දෙන්න.

කෝෆි බඩ 1(එක)ක් දෙන්න.

දනුශ්ක(දානුසික) අනුරුද්ධ ටිච්චෙනවා. (අනුරුද්ධ ටිච්චෙනවා)

අනුරුද්ධ ටිච්චෙනවා.

ගෝලයා ඉවරද?(ඉවරද?)

(ගෝලයා) නමුත් (ඉවරද?) ඉවරද?

දනුශ්ක(දානුසික) ඔව්. ඉවරයි. රොට් 3(තුන)ක් පැක් කරලා දෙන්න. කියද?

(මොන කැරි ටිච්චෙනවා) ඔව්. ඇහුවා. රොට් 3(තුන)ක් පැක් කරලා දෙන්න.

ඔව්. ඇහුවා. රොට් 3(තුන)ක් පැක් කරලා දෙන්න.

ගෝලයා (골러야) 종업원 මුද්‍ර මාළු රුපියල් 60(හැට)යි, කෝක් බඩි එකට රුපියල් 15(පහළොව)යි, රොට් 3(තුන)ක් රුපියල් 30(තිහ)යි, ඔක්කොම රුපියල් 105(එක සිය පහ)යි.

(무두 말루 루삐알 해파이, 코크 바디 에꺼떠 루삐알 빠할로와이, 로띠 뚜낙 루삐알 띠하이 옥꼬며 루삐알 에꺼 씨여 빠하이.)

바다 생선 60 루피, 콜라 작은 거 하나에 15루피, 로띠 3 개 30루피, 해서 전부 105 루피 입니다.

දනුශ්ක(다누시꺼) මෙන්න. (멘너) 여기요.

ගෝලයා ස්තුතියි. ඉතුරු ගන්න. (스뚜띠. 이뚜루 간너.)

(골러야) 종업원 감사합니다. 잔돈 받으세요.

6.2 단어 වචන

කෑම	깨머	මෙය ජීවත් කිරීම (කැනේ) ජීවත් වීමේ
කර්	카리	කර්
මොන	모너	මොන, මොන (මොන)
		ex) මොන බස් එකද?(මොන බස් එකද?)
		어떤 버스인가요?
මුද්‍ර	무두	මුද්‍ර (cf) මුද්‍ර (මුද්‍ර) මුද්‍ර
මාළු	말루	මාළු
බිම්	비머	බිම් (බිම්) බිම්
බඩ්	바디	බඩ් 175 ml පාරිසරික පාන
අත	아떠	අත
සෝදන්න	소단너	සෝදන්න (සෝදන්න) බිම්
රොට්	로띠	රොට් (스리랑카의 구운 빵)
වතුර	와뚜러	වතුර
ඔක්කොම	옥꼬며	ඔක්කොම
පැක් කරන්න	팩 꺼러너와	පැක් කරන්න
කන්න	간너	කන්න (කැනේ) ජීවත් වීමේ
මෙන්න	멘너	මෙන්න (Here it is)
ඉතුරු	이뚜루	ඉතුරු
ගන්න	간너	ගන්න (간너) ගන්න, ගන්න

6.3 문법 ව්‍යාකරණ

6.3.1 동사연결형

동사연결형⁵⁶은 ~하러,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려고⁵⁷ 등의 의미로서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위의 대화에서

- අත සෝදන්න වතුර දෙන්න. (아때 소단너 와뚜러 텐너.)
손 씻을 수 있게 물을 주십시오.

에서 쓰인 것이 동사연결형이다.

- හෝම් වරක් කරන්න අමාරුයි.
(ஹ் 와크 까란너 아마루이) 숙제 하기 어려워요.
- බස් එකට නගින්න යමු.
(바스 에끼 나긴너 야무) 버스 타러 갑시다.
- බහින්න ඉන්නවාද?
(바히너 인너와더?) බැඳ (사람들) 있나요? (버스에서)
- හොයන්න තියෙනවා.
(හොයන්න තියෙන්න.) ඔය (것)이 있어요.

단어)	අමාරු	(아마루)	어려운
	නගින්න	(나긴너)	නගින්න (나기너와) 오르다 의 동사연결형
	බහින්න	(바히너)	බහින්න (바히너와) 내리다 의 동사연결형
	හොයන්න	(호얀너)	හොයන්න (호여너와) 찾다 의 동사연결형

앞 과에서 다루었던 5.3.2 ඕනෑ (오네) ‘원하다, 해야 하다’, පුළුවන් (뽀루왕) ‘할 수 있다’ 등의 조동사와 결합하는 동사들 역시 이 연결형을 쓴다.

⁵⁶ 동사 연결형은 동사 결합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필자가 만든 이름으로 다른 동사와 결합한 다고 해서 정한 이름이다.

⁵⁷ 동사 결합형의 용법은 영어의 ‘To 부정사’ 와 같다고 생각하면 무방하다. 위의 예문들을 보자면 위 에서 부터 ‘Give me water to wash hand’ ‘Homework is difficult to do’ ‘Let’s go to take bus’ ‘Is there (any person) to get off?’ ‘I have (something) to find.’

- එන්න ඕනෑ. (ඒනෑ් ඔනෑ) ඔගිල වනෑ. ඔනෑ් ඔනෑ්.
- කන්න පුළුවන්. (කනෑ් ඔනෑ) ඔගිල වනෑ.

형태상 연결형과 명령형은 그 형태가 동일하다. 참고적으로 이 책에서 언급하는 명령형, 연결형, 질문형, 부정형 따위의 명칭에 너무 구애 받지 말기 바란다. 이 명칭들은 그저 설명하기 위해 붙인 이름으로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6.3.2 수의 표현

지금까지 계속 값과 수를 묻는 표현이 계속 나왔었다. 숫자 뒤에 붙는 후치사로는 ~ට (~때), ~ක් (~가), ~යි (~이) 가 있으며 그 의미는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대략적으로 느꼈으리라 믿는다. 여기서 설명을 위해 구분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도 많으므로 굳이 각각의 의미를 따로 따로 ‘공부’하기 보다는 대략의 뜻을 ‘느낀’ 후 스리랑카 현지 생활 속에서 관용적인 부분에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6.3.2.1 ~යි (~이)

~යි (~이)는 일반적인 수의 표현에 쓰인다.

- වයස කීයද?
(와여서 끼여더?) 몇 살이세요?
- අවුරුදු 25(විසි පහ)යි.
(아우루두 위시 빠하이.) 25살이에요.
- වලංකාවට අවිල්ලා කොච්චර කාල්ද?
(랑카워때 애월라 쏫찌러 깔더?) 스리랑카에 오신 지 얼마나 됐나요?
- අවුරුදු 2(දෙක)යි.
(아우루두 데카이) 2년이에요.
- ඔක්කොම කීයද?
(옥꼬머 끼여더?) 전부 얼마예요?
- රුපියල් 80(අසූව)යි.
(루빠알 아수와이) 80루피예요.

단어)	ඇවිල්ලා	(애월라)	එනවා	(에너와)	오다 의 분사형
	කොව්වර	(꽃찌러)	얼마 ⁵⁸		
	කාල්	(칼)	කාලය	(칼러여)	시간 의 축약형

6.3.2.2 ~ක් (~ㄱ)

주로 개수를 셀 때 쓰는 표현이다.

- ඔයාට කෙසෙල් ගෙඩි කීයක් මිනද? (오야떠 게셀 게디 끼약 오내더?)
 마나나 얼마나 (직역: 몇 개) 원하세요?
- කෙසෙල් ගෙඩි 4(හතර)ක් දෙන්න. (케셀 게디 하떠락 텐너.)
 마나나 4개 주세요.
- හබරන ඉඳලා පුතලමට බස් එකෙන් පැය කීයක් ගතවෙනවාද?
 (하버러너 인덜라 뿌탈러머떠 바스 예겐 빼여 끼약 가떠웨너와더?)
 하바라나에서 뿌탈람까지 버스로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 පැය 4(හතර)ක් (빼여 하떠락) 4 시간이요.

다만 1개를 나타내는 경우 එකක් (예각) 이 쓰이기도 하지만 주로

ගෙඩිය (게디여) 열매	->	ගෙඩියක් (게디약) 열매 1개
මුද්දරය (뭇더러여) 우표	->	මුද්දරයක් (뭇더러약) 우표 1장
කොලය (폴러여) 종이	->	කොලයක් (폴러약) 종이 1장

와 같이 쓴다.

6.3.2.3 ~ට (떠)

주로 시각 표현에 쓰인다.

- කොව්විය බඳුල්ලට කොයි වෙලාවටද යන්නේ?
 (꽃찌여 바둘러떠 꼬이 웰라워떠떠 얀네?)
 열차가 ‘바둘라’로 몇 시에 가나요?

⁵⁸ කොව්වර (꽃찌러)는 ‘얼마나’ 의 의미로 기간, 무게 등의 ‘정도’를 물을 때 쓰인다. 영어의 ‘How much’ 와 비슷하다. ‘몇 개’ 와 같은 양(量)을 물을 때는 කීයක් (끼약) 을 쓰며 이는 영어의 ‘How many’ 와 비슷하다.

- 5(පහ)ට යනවා.
(ඔහු යනවා.) 5(පහ)ට යනවා.
- කවේ අරින්තේ කියටද?
(කාට අරින්තේ කියටද?) අනෙ(මේ සිට)⁵⁹ ගොස් ඇත්තේ?
- උදේ 9(නමය)ට අරින්තවා.
(උදේ 9(නමය)ට අරින්තවා.) අනෙ(මේ සිට) යනවා.

다만 단순히 몇 시 인가를 묻는 표현은 ~ට (때)를 쓰지 않고 ~යි (~이)를 쓴다.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용법이다. 위의 두 가지 예와 아래의 예를 잘 살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⁶⁰.)

- දැන් වෙලාව කීයද? (දැන් කීයද?) (දැන් කීයද?)
- දහය හමාරයි. (다하여 하마라이.) 10시 반입니다.

6.3.3 형용사와 부사 **නාම විශේෂණ සහ ක්‍රියා විශේෂණ**

6.3.3.1 형용사 **නාම විශේෂණ**

여러 유럽어와는 달리 싱할라어의 형용사는 피수식 명사에 관계 없이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예를 들어 **හොඳ** (호전) 좋은 이란 형용사의 경우 피수식 명사가 여성 이든 남성이든 복수 이든 단수이든 이에 관계 없이 늘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හොඳ ගැහැනු ළමයා (호전 개녀 라며야) 착한 소녀
හොඳ පිරිමි ළමයා (호전 빠리미 라며야) 착한 소년

⁵⁹ කීයටද? (කියටද?), කොයි වෙලාවටද? (කොයි වෙලාවටද?) (කොයි වෙලාවටද?) 는 (몇 시에~)로 그 의미가 거의 동일하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කීයටද?** (කියටද?)는 화자가 정확한 시각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것이지만 **කොයි වෙලාවටද?** (කොයි වෙලාවටද?)는 화자가 대략적인 때를 알고자 할 때 쓴다. 즉, **කීයටද?** (කියටද?)라고 물으면 **උදේ නවයට** (උදේ නවයට) 아침 아홉시에. 와 같이 대답하지만 **කොයි වෙලාවටද?** (කොයි වෙලාවටද?)라고 물으면 **උදේ** (උදේ) 아침에 와 같이 대략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에서는 거의 혼용해서 사용하므로 이 차이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적으로만 알고 있기 바란다.

⁶⁰ 시각 표현에서 **ට** (때)를 쓸 때는 **කීයටද?** (කියටද?), **කොයි වෙලාවටද?** (කොයි වෙලාවටද?)라고 물을 때이다. 이 때의 의미는 몇 시에 갑니까?, 몇 시에 갑니까? 와 같이 몇 시 ‘에’ 이다. 단순히 몇 시인 지 물을 때는 ‘몇 시에’가 아니라 ‘몇 시입니다.’ 와 같이 ‘몇 시’로 대답하기 때문에 이 때의 의문사도 **කීයද** (කියද) 를 쓴다.

단어) ගැණු	(개누)	여성의
පිරිමි	(빠리미)	남성의
ලමයා	(라머야)	아이

기초 형용사 모음은 10.5 에 수록해 두었다.

싱할라어는 한국어와 같이 명사 중심의 언어이다. 따라서 영어와 비교했을 때 명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수식명사는 복수형⁶¹을 쓴다.

මල	(말리)	(단수) 꽃
මල්	(말)	(복수) 꽃
ගහ	(가하)	(단수) 나무
මල් ගහ	(말 가하)	꽃 나무

බඩුව	(바두위)	(단수) 물품
බඩු	(바두)	(복수) 물품
මිල	(밀리)	가격
බඩු මිල	(바두 밀리)	물품 가격

6.3.3.2 부사 ක්‍රියා විශේෂන

싱할라어의 부사⁶²는 동사나 형용사의 앞에 위치하여 해당 동사 혹은 형용사를 수식한다. 그 형태는 형용사의 변형이라 볼 수 있으며 그 변형 형태는 형용사 마다 조금씩 다르며 특별한 규칙은 없다. 다만 부사를 만드는 어미가 몇 가지 있으며 대부분의 형용사는 이 범주 안에서 변화한다.

* ට (떠) 를 첨가 하는 경우

대부분의 형용사를 부사로 변화 시킬 때 첨가한다.

⁶¹ 본 교재에서는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이는 싱할라어에서는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정, 비한정, 단수, 복수 의 개념이 희박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한국어에 비한다면 그 개념이 명확하다.) 싱할라어에서는 단,복수를 그다지 따지지 않으며 주로 복수가 쓰인다. 따라서 독자 여러분께서는 여러 명사를 익힐 때 단수, 복수에 매이지 않아도 되겠다.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레 구분을 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A.W.L Silva가 쓴 Teach Yourself Sinhalese 의 p.110~p.116 을 보기 바란다.

⁶² 많은 봉사단원들이 부사 표현에 있어 වගේ (와게) 를 남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වගේ (와게) 는 ‘~처럼’ 이라는 뜻이며 부사 표현으로는 적절치 않다. 어떤 이유로 부사 표현에 වගේ (와게) 를 쓰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임을 알아 주길 바란다.

ලස්සන	(라싸너) 예쁜	->	ලස්සනට	(라싸너떠)	예쁘게
රස	(라싸) 맛있는	->	රසට	(라싸떠)	맛있게
ලඟ	(랑거) 가까운	->	ලඟට	(랑거떠)	가깝게

* ඉන් (~잉), යෙන් (~엔) 을 첨가 하는 경우

දුර	(두러) 먼	->	දුරින්	(두링)	멀리
රස්නෙ	(라스네) 더운	->	රස්නෙන්	(라스넨)	덥게
තද	(따더) 강한	->	තදින්	(따딩)	강하게
පරිස්සම්	(빠리쌌) 조심하는	->	පරිස්සමින්	(빠리쌌민)	조심히

* ච (위) 를 첨가하는 경우

උණුසුම්	(우누숨)	따뜻한	->	උණුසුම්ච	(우누숨위)	따뜻하게 ⁶³
කඩිසර	(까디씨러)	부지런한	->	කඩිසරච	(까디씨러위)	부지런히
සිසිල්	(시셀)	시원한	->	සිසිල්ච	(시셀위)	시원하게

* විදියට (위디여떠)를 첨가 하는 경우

주로 자음으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 첨가한다.

වැදගත්	(왜더갓) 중요한	->	වැදගත් විදියට	(왜더갓 위디여떠)	중요하게
රසවත්	(라싸왓) 재미있는	->	රසවත් විදියට	(라싸왓 위디여떠)	재미있게

* 기타

부사 변환에 있어 꼭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 방법으로 변하는 형용사들이 있다.

හොඳ	(혼더) 좋은	->	හොඳින්	(혼딩)	잘
			හොඳට	(혼더떠)	잘
රස්නේ	(라스네) 더운	->	රස්නෙන්	(라스넨)	덥게

⁶³ උණුසුම් (우누숨) 과 සිසිල් (시셀) 의 경우는 실제 대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 형용사 이다.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따뜻하다’ 던가 ‘시원하다’ 의 표현을 할 때는 රස්නේ (라스네) ‘더운’ 이나 සිතල (시떨러) ‘추운’ 을 주로 쓴다. 단, උණ (우누) 는 ‘(물 따위가) 뜨겁다’ 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형용사이다.

* 부사표

හමින්	හිඹ	천천히	හයිසෙන්	하이옌	빨리
තදින්	따당	굳게	තදට	따더떠	굳게
කේන්තියෙන්	겐띠옌	화나게	පරිස්සමින්	빠릿써민	조심히
ආදරයෙන්	아더러옌	사랑스럽게	ආදරෙන්	아더렌	사랑스럽게
සැලකිල්ලෙන්	샬러낄렌	주의깊게	රසට	라써떠	맛있게
හොඳින්	혼당	잘	හොඳට	혼더떠	잘
කැතට	깨떠떠	추하게	ලස්සනට	랏써너떠	이쁘게
කඩසරව	까디써러워	부지런히	උණුසුම්ව	우누숨워	따뜻하게
දුරින්	두렁	멀리	දුරට	두러떠	멀리
රස්නෙන්	라스넨	덥게	රස්නෙට	라스네떠	덥게
සිසිල්ව	시썰워	시원하게			

6.4 표현 방법

6.4.1 커리 법칙

스리랑카에서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은 뭐니 뭐니해도 커리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은 것으로 종류도 다양하고 집집마다 가게마다 그 맛이 모두 다르다. 스리랑카에서는 이런 커리 종류와 밥을 섞어서 손으로 먹는다. 비록 커리는 아닐지라도 스리랑카에서 많이 먹는 음식들도 수록했다.

야채 커리	එළුවලි කරි (엘러월루 카리)	양고기 커리	එලු මස් කරි (엘루 마스 카리)
돼지고기 커리	උරු මස් කරි (우루 마스 카리)	달걀 커리	බිත්තර කරි (빗떠러 카리)
닭고기 커리	කුකුල් මස් කරි (꾸쿨 마스 카리)	쇠고기 커리	හරක් මස් කරි (하락 마스 카리)
바다생선 커리	මුහුදු මාළු කරි (무후두 말루 카리)	쌈볼	සම්බෝල් (쌈볼)
민물생선 커리	වැව් මාළු කරි (왜워 말루 카리)	빠립뿌	පරිප්පු (빠립뿌)
튀김	පපඩම්(ආආදා)		

6.4.2 마실 것 බීම

홍차	තේ(떼)	Plain Tea	ප්ලේන් ටී(플렌 티)
물	වතුර(와뚜러)	Milk Tea	කිරි තේ(끼리 떼)
Portello (포도맛 음료)	පෝටෙලෝ(뽕뽕로)	과일 주스	පළතුරු බීම (빨러뚜루 비머)
우유	කිරි(끼리)	커피	කෝෆි (코피)
킹코코넛	තැඹිලි (땀밀리)		

6.4.3 허락과 제안의 표현

이번 과에서는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과 상대방에게 제안을 하는 표현을 알아 보자.

6.4.3.1 허락을 구하는 표현

‘~ 할까요?’ 라고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경우 명령문의 질문 형태로 표현한다.

- බැග් එකක් දෙන්නද? (백 에깅 텐너더?) 가방 드려요?
- ඔව්. දෙන්න. (오우. 텐너) 예. 주세요.
- අර දොර වහන්නද? (아러 도러 와한너더?) 저 문 닫을까요?
- නෑ. වහන්න එපා. (내. 와한너 에빠) 아뇨. 닫지 마세요.
- හෙට එන්නද? (હેટે એ너더?) 내일 올까요?
- ඔව්. එන්න. (오우. 엔너.) 예. 오세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만일 평서문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경우 දෙනවාද? (테너와 더?) 드립니까? 줍니까? 의 의미가 된다. 하지만 දෙන්නද? (텐너더?) 라는 명령형의 질문형태로 표현 하게 되면 이는 ‘드릴까요?’ 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의미가 된다.

두번째 역시 වහනවාද? (와하너와더?) 닫습니까? 가 아닌 වහන්නද? (와한너 더?) 닫을까요? 이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당! 연! 히! 명령형으로 답하면 된다.

‘~ 하지 마십시오’ 의 부정 대답은 එපා (에빠) 를 쓴다.

6.4.3.2 제안 표현

상대방에게 ‘~ 하실까요.’ 라는 제안을 하는 표현이다. 원래 제안은 청유형을 쓰나 좀 더 공손한⁶⁴ 표현을 쓰고자 하면 청유형의 질문형으로 표현한다.

- අපි ප්‍රොෆෙසර් හම්බවෙන්න යමුද? (아빠 프로페서 햄버웬너 야무더?) 우리, 교수님을 만나 뵈러 갈까요?
- අපි ප්‍රොෆෙසර් හම්බවෙන්න යං. (아빠 프로페서 햄버웬너 양.) 우리, 교수님을 만나 뵈러 갑시다⁶⁵.
- ලන්ච් එක කමුද? (런치 에꺼 까무더?) 점심 드실까요?
- පන්තිය පටන් ගමුද? (반띠여 빠땅 가무더?)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작 할까요?

단어)	පන්තිය	(반띠여)	수업
	පටන් ගන්නවා	(빠땅 건너와)	시작하다

6.5 연습문제 අභ්‍යාස

다음 우리말을 싱할라어로 옮기세요.

- 마실 것 필요하세요?
- 밀크 티 두잔 주세요.
- 달걀 커리 있습니까?
- 예. 있어요. 그걸로 드려요?
- 어디 가세요?
- 점심사러 가게에 가요.

⁶⁴ 여기서 ‘공손한’ 이라고 함은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본다는 말이다. 청유 질문형은 자신의 의견을 말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 보는 형태이다.

⁶⁵ 제안 표현의 경우 청유형은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뉘앙스를 가진다. 하지만 청유 질문형의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지만 질문이라기 보다는 상대방 역시 알고 있는 확정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에 가깝다.

7과 전화하기

පාඩම් අංක හත දුරකථන ඇමතුම්

7.1 대화 완결성

සිසිර (සිසිරි)	හලෝ. මේ සිසිර කතා කරන්නේ. මහින්ද ඉන්නවාද? (හලෝ. සිසිරි කාකාලාලා. මාහිතා භිතරාදර?) භාලාලාලා. සිසිරිභිතරා. මාහිතා භිතරා?
අම්මා (අම්මා)	සිසිරිද? දැන් ඉන්නවා ඉන්නවා පොඩ්ඩක් ඉන්න.
අම්මා	(සිසිරිද? ඔ භිතරා. භිතරා. ඔ භිතරා.) සිසිරිද?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මහින්ද (මාහිතා)	මහින්ද කතා කරනවා. සිසිර, කොහොමද? (මාහිතා කාකාලාලා. සිසිර, ඔ භිතරාදර?) මාහිතාභිතරා. සිසි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සිසිර (සිසිරි)	හොඳින් ඉන්නවා. මේ ඉරිදාට මොනවාද කරන්නේ? (ඔ භිතරා. මේ ඔ භිතරා. මේ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මහින්ද (මාහිතා)	මුකුත් කරන්නේ නෑ. අය, අය?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සිසිර (සිසිරි)	එහෙත්නම් කැලණිය පන්සලට යමු. නුවර ඉන්න ප්‍රසිද්ධ භාමුල රුවෝ එනවාලු.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මහින්ද (මාහිතා)	අන්නද?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සිසිර (සිසිරි)	2(දෙක)ට යන්න කොහොමද?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2(දෙක)ට යන්න කොහොමද?
මහින්ද (මාහිතා)	2(දෙක)ට? රස්තේ වැඩි නැද්ද? (ඔ භිතරා. ඔ භිතරා. ඔ භිතරා.) 2(දෙක)ට යන්න කොහොමද?

සිසිර (시시리) එහෙමද? එව්වර රස්නේ වැඩි නෑ, නෙ.
(에헤머더? 옛찌러 라스네 왜디 내, 네.)
그래? 그렇게 덥진 았잖아.

මහින්ද (마힌다) මේ දවස් වල අවුච සැරයි, නේ! 4(හතර)ට යං.
(메 다워스 월러 아우워 쎄라이, 네! 하떠러떠 양.)
요즘 햇살이 따갑잖아. 4시에 가자.

සිසිර (시시리) හරි. 4(හතර)ට කිරිබත්ගොඩ හන්දියේදී හම්බවෙමු.
(하리. 하떠러떠 끼리밧고다 한디예디 함버웨무)
좋아. 4시 끼리밧고다 삼거리에서 만나자.

මහින්ද (마힌다) හරි. ඉරිදා හමුවෙමු. පරක්කු වෙන්න එපා.
(하리. 이리다 하루웨무. 빠락꾸 웬너 예빠.)
좋아. 일요일에 봐. 늦으면 안돼.

7.2 단어 වචන

කතා කරන්නේ	까따 꺼란네	කතා කරනවා (까따 꺼러너와.) ‘대화하다’의 강조형
හොඳින්	혼딩	잘
ඉරිදා	이리다	일요일
ඇයි	애이	(의문사) 왜
මුකුත් නෑ	무कु트 내	아무것도 없다
එහෙනම්	에헨낭	그러면
ප්‍රසිද්ධ	쁘라싯더	유명한
හාමුදුරුව	하무두루워	스님
හාමුදුරුවෝ	하무두루오	스님들
ඉන්න	인너	있느냐 (인너와) 있다가의 현재 수식형
රස්නේ	라스네	더운
වැඩි	왜디	많은
දවස	다워서	날
දවස්	다워스	날(복수)
මේ දවස් වල	메 다워스 월러	요즘
පරක්කු	빠락꾸	늦은
පරක්කු වෙන්න	빠락꾸 웬너	පරක්කු වෙනවා(빠락꾸 웬너와) ‘늦다’의 연결형
හම්බවෙමු	함버웨무	හම්බවෙනවා (함버웨너와) 만나다 의 청유형
හමුවෙමු	하무웨무	හමුවෙනවා (하무웨너와) 만나다 의 청유형 ⁶⁶

⁶⁶ හම්බවෙනවා (함버웨너와) 와 හමුවෙනවා (하무웨너와) 는 둘 다 ‘만나다’란 뜻으로 동일하

7.3 문법 ව්‍යාකරණ

7.3.1 전문(傳文)의 표현

어디에선가 들은 말을 전달하는 경우, 즉 ‘~라더라.’, ‘~래요.’ 라고 말하는 경우, 싱할라어에서는 원문(原文) 어미에 ~ලු(~루)를 붙여서 표현한다. 아래 예는 전문(傳文) 과 그리고 그 의미가 동일한 문장을 표현한 것이다.

- නිමල්ට පොත් ගොඩක් තියෙනවාලු.
(니말때 붓 고닥 띠예너왈루) 니말한테 책이 많이 있대요.
= නිමල්ට පොත් ගොඩක් තියෙනවා කිව්වා.
(니말때 붓 고닥 띠예너와 끼우와.)
니말한테 책이 많이 있다고 (누군가가)⁶⁷ 말했습니다.
- අද පාක් එක ඇතුලට යන්න බැලූ. හැබැයි හෙට පුළුවන්ලු.
(아더 파크 예꺼 애둘러때 얀너 뵈루. 해배이 해때 뵈루왕루)
오늘 공원에 들어갈 수 없대요. 하지만 내일은 가능하다는 군요.
= අද පාක් එක ඇතුලට යන්න බෑ කිව්වා. හැබැයි හෙට පුළුවන් කිව්වේ.
(아더 파크 예꺼 애둘러때 얀너 배 끼우와. 해배이 해때 뵈루왕 끼우웨.)
오늘은 공원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내일은 된다고 말했어요.

단어)	ඇතුලට	(애둘러때)	안으로
	හැබැයි	(해배이)	하지만
	කිව්වේ	(끼우웨)	키스නවා (끼여너와) 말하다 의 과거 강조형

위의 예문에서 본 것처럼 전문(傳文) 표현에 있어서 ලු(루)를 쓸 수도 있지만 복문(複文)을 이용하여 කිව්වා (끼우와) 를 쓸 수도 있다. 직역하면 ‘~라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즉, ‘~라더라.’ 라는 뜻의 전문(傳文)이 된다. 복문 표현에 대해서는 아래의 7.3.2를 참조하기 바란다.

나 일반적으로 대화에서는 හම්බවෙනවා (함버웨너와) 를 쓴다. 다만 청유형으로써 일상 대화에서 හමුවෙමු (하무웨무) 라고 말하기도 한다.

⁶⁷ 전에도 한번 언급한 바와 같이 싱할라어는 한국어처럼 주어를 자주 생략하여 말한다. 위 문장에서 도 책이 많이 있다고 화자에게 말해준 주체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누군가가) 라고 표현하였다.

7.3.2 복문(複文)의 형성 ~ **කියලා**

원래 **කියලා** (끼엘라) 는 **කියනවා** (끼여너와) 말하다 의 분사형이다. 하지만 복문을 만드는 경우에 **කියලා** (끼엘라) 는 우리말의 ‘~라고’ 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⁶⁸ 복문 내에서 이를 생략하여 말하기도 한다.

- **නිරෝෂ අද ළමයි ඔක්කෝම ආවා කියලා මට කිව්වා.**

(니로샤 아더 라마이 옥꼬며 아와 끼엘라 마따 끼우와)

= **නිරෝෂ අද ළමයි ඔක්කෝම ආවා මට කිව්වා.**

(니로샤 아더 라마이 옥꼬며 아와 마따 끼우와)

니로샤가 오늘 아이들이 모두 왔다고 저한테 말했어요.

단어) **ඔක්කෝම** (옥꼬며) 모두
කිව්වා (끼우와) **කියනවා** (끼여너와) 말하다 의 과거형

- **හෙට අනිවාර්යෙන්ම එන්න කියලා ඉල්ලුවා.**

(હેતે અનિવાર્યેનમે એને કીયેલા ઇલુવા)

= **හෙට හරියටම එන්න ඉල්ලුවා.** (હેતે હારીયેત્તમે⁶⁹ એને ઇલુવા)

내일 반드시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단어) **හරියටම** (하리여떠며) 반드시
අනිවාර්යෙන්ම (아니와르옌며) 반드시
ඉල්ලුවා (일루와) **ඉල්ලනවා** (일러너와) 요구하다 의 과거형

하지만 다음 예문과 같은 경우에는 **කියලා** (끼엘라)를 쓸 수 없다. 아래의 두 예문을 비교하여 그 이유를 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 **ඒගොල්ලෝ කඩිට යනවා කියලා මම දැක්කා.** [잘못된 문장]
 (에골로 까데미 야너와 마따 댁까.) [වැරදියි(왜러디)]

⁶⁸ 영어의 that 절 과 그 기능이 같다.

⁶⁹ 엄밀히 말한다면 위의 예에서는 **හරියටම** (하리여떠며) 와 **අනිවාර්යෙන්ම** (아니와르옌며) 의 쓰임에 의해 문장의 두 뜻이 달라졌다. **අනිවාර්යෙන්ම** (아니와르옌며)는 ‘온다’ 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확실히 온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හරියටම** (하리여떠며)는 ‘시간’ 이나 ‘장소’ 에 초점을 두어 ‘정확히 몇 시’, ‘정확히 이 장소’ 와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첫번째 문장은 내일 ‘반드시 오라고’ 요구했다 란 내용이지만 두번째 문장은 ‘반드시 내일’ 오라고 요구했다. 라는 내용이 된다. 하지만 초급 과정에선 이런 차이 까지는 강조할 필요는 없고 다양한 어휘를 접할 기회를 위해 위의 예문에서는 병기했다.

- **ඒගොල්ලෝ කඩේට යනවා මම දැක්කා.** (에골로 까데떠 야너와 마며 댁까.)
= **ඒගොල්ලෝ කඩේට යන එක මම දැක්කා**
(에골로 가데떠 야너 에꺼 마며 댁까.)
கை네들이 가게에 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단어) **දැක්කා** (댁까) **දකිනවා** (다끼너와) 보다⁷⁰ 의 과거
එක (에꺼) 것
යන (야너) 가는

- **ඒගොල්ලෝ කඩේට යනවා කියලා මට කිව්වා.**
(에골로 까데떠 야너와 끼옐라 마며 끼우와.)
கை네들이 가게에 간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위에서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කියලා** (끼옐라)는 ‘~라고’ 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කියලා (끼옐라)는 의문형 어미 **ද** (더) 와 결합하여 ‘~인지 아닌지’ 혹은 ‘~했을 지도’ 란 의미를 띄기도 한다. 이 경우 역시 **කියලා** (끼옐라)는 생략가능 하다. 사실, 생략 가능하다 라기 보다는 주로 문장에서 생략하여 **ද** (더)만을 사용한다.

- **අද වහිනවාද කියලා හරියටම කියන්න බෑ**
(아더 와히너와더 끼옐라 하리여떠며 끼안너 배.)
= **අද වහිනවාද හරියටම කියන්න බෑ**
(아더 와히너와더 하리여떠며 끼안너 배.)
오늘 비가 올 지 안 올 지 어떻게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 **යං හන් ඉස්පිරිකාලයට ගියා. අසනීපයිලු. හෙටත් වැඩට එනවාද කියලා දන්නේ නෑ.**
(영한 이스빠리팔러여떠 기야. 아싸니빠일루. 해땃 웨더떠 에너와더 끼옐라 단 내.)
영한 오늘 병원에 갔어요. 아프대요. 내일도 출근할 지 안 할 지 몰라요.
(출근 안 할지도 몰라요.)
= **හෙටත් වැඩට එනවාද දන්නේ නෑ.** (해땃 웨더떠 에너와더 단 내.)

⁷⁰ **දකිනවා** (다끼너와) 보다 는 **බලනවා** (발러너와) 보다 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마치 영어의 ‘See’ 와 ‘Look’ 의 차이와 같이 **දකිනවා** (다끼너와)는 의도함이 없이 ‘우연히’ 보게 되는 것이고 **බලනවා** (발러너와)는 보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로 보는 것을 말한다. 또한 참고적으로 ‘보이다 Show’ 는 **පෙනවා** (빠너와) 이다.

단어) **ඉස්පිරිකාලය** (이스빠리팔러여) 병원
අසනීප (아싸니빠) 아픈, 건강하지 않은
හෙටක් (해땃) 내일도 (cf. **හෙට** [해떠] 내일)
වැඩ (웨더) 일

- **කුෂාර අද පන්තියට අවේ නෑ. කොහෙ හරි ගමනක් ගියාද කියලා දන්නේ නෑ.**

(뚜샤러 아더 뻘띠여떠 아웨 내. 꼬혜 하리 가머낙 기야더 끼엘라 단 내.)

뚜샤러는 오늘 수업에 오지 않았어요. 어딘가 갔을 지도 몰라요.

= **කොහෙ හරි ගමනක් ගියාද දන්නේ නෑ.**

(꼬혜 하리 가머낙 기야더 단 내.)

단어) **පන්තිය** (뻘띠여) 교실, 수업
කොහෙ හරි (꼬혜 하리) 어딘가, 어디든지
ගමනක් යනවා (가머낙 야너와) 여행 가다⁷¹

7.3.3 동사의 수식 표현

동사가 수식언(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임으로써 하나의 구(句)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⁷² ‘~로 가는 열차’, ‘어제 쫄던 글’ 가 바로 그 예이다. 이러한 표현을 싱할라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자.

7.3.3.1 현재 수식 The Incomplete Adjective Form (~하는)

위의 제목에 붙여 놓은 그 뜻 그대로 현재의 의미를 갖는 수식언을 말한다. 현재형의 어간(語幹) 에 **න(너)**를 붙인 형태로 표기한다.

- **අර යන ලමයා කවුද?**
(아러 야너 라머야 까우더?) 저기 가는 애가 누구죠?

⁷¹ **ගමනක් යනවා** (가머낙 야너와) 는 직역하면 ‘여행 가다’ 라는 의미 이나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일로 인해) 어디론가 가다.’ 이란 의미도 포함 하고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어디 가다.’ 라는 뜻이 된다.

⁷² 앞서 설명한 7.3.2 의 복문 표현과 이번 7.3.3의 동사 현재 수식이나 과거 수식을 사용하게 되면 표현력이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과의 문법이 표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 **මෙතනින් හැම දාම පාඩම් කරන ළමයා නිමල්.**
(මෙතැන හෙම දාම ආදා ඇලු රාමයා නිමල්.)
여기에서 매일 공부하는 아이는 니말입니다.
- **සුනිල් දැන් කන පාන් රසයි.** (සුනිල් දැන් ඇලු පාන් රසයි.)
수닐이 지금 먹고 있는 빵은 맛있어요.

දාම	ආදා	(රාමයා)	අය
මෙතනින්	(මෙතැන)		여기에서
හැම දාම	(හෙම දාම)		매일
පාඩම් කරනවා	(ආදා ඇලුරා)		공부하다
රස	(රස)		맛있는

‘~ 할 때’ 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 **කොට**(**කොට**) 가 있다. 이 때 **කොට**(**කොට**)는 동사의 현재 수식형과 결합한다⁷³.

- **හෙට එනකොට ඔයාගේ පොත අරං එන්න .**
(හෙට ඇලුකොට ඔයාගේ පොත අරං එන්න.)
내일 오실 때 당신의 책을 가져 오세요.
- **ඊයේ ගෙදර යනකොට කළුවර වැඩි නිසා බය උනා .**
(ඊයේ ගෙදර යනකොට කළුවර වැඩි නිසා බය උනා.)
어제 집에 갈 때 너무 어두워서 무서웠어요.

දාම	අරං එන්න	(අරං එන්න)	අරං එනවා (අරං ඇලුරා) 가져 오다 의 명령형
කළුවර	(කළුවර)		어두운
වැඩි	(වැඩි)		너무 많은
නිසා	(නිසා)		~ 때문에
බය	(බය)		무서운
උනා	(උනා)		වෙනවා (වෙනවා) 되다,~되어지다 의 과거형
බය වෙනවා	(බය වෙනවා)		무서워 하다.

⁷³ **කොට** (**කොට**) 의 의미가 과거이든 미래이든 관계없이 현재수식형과 결합한다. 즉, ‘내일 갈 때’ 이든 ‘어제 갔을 때’ 이든 그 의미의 시제에 관계없이 동사 변형 형태로는 현재 수식형이 쓰인다.

7.3.3.2 과거 수식 The complete Adjective Form (~한, ~했던)

과거의 일, 즉 ‘~했던’ 이란 의미이다. 과거형 어간에 ㅁ(ㅁ)를 붙여 표기한다.

- දැන් ආපු ලමයා කවුද? (탱 아뿌 라머야 까우더?) 지금 온 아이 누구예요?
- ගෙදර හිය ලමයා සම්පත්. (게더러 기여 라머야 삼뻐)
집에 간 아이는 삼뻐입니다.
- ඊයේ මම කෑපු බනිස් රසයි. (이예 마머 까뿌 바니스 라싸이.)
어제 제가 먹었 바니스(빵 종류) 는 맛있었어요.
- නුවර හිටපු හාමුදුරුවෝ අද එනවා. (누워러 히떠뿌 하무두루오 아더 에너와.)
캔디에 제냈 스님들께서 오늘 오십니다.

7.3.3.3

또한 එක (에꺼) 와 결합하여 ‘~ 하는 것’ 이란 의미로 사용된다. 즉 이 경우는 ‘먹는 것’, ‘읽는 것’, ‘쓰는 것’ 처럼 동사를 명사로 사용하는 경우, 즉 동명사⁷⁴ 형태 대신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예를 보면 그 설명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ඔයා එන එක හොඳයි. (오야 에너 에꺼 혼다이.)
네가 오는 게 좋아.
- මම ඉගෙන ගන්න ඒවා රසවත්. (마머 이게너 간너 예와⁷⁵ 라썬.)
제가 배우는 것들은 재미있습니다.
- ඔයා කියපු එක හරි. (오야 끼여뿌 에꺼 하리.)
네가 말했던 게 맞았어.
- ඒගෝලො කරපු ඒවා දැන් ඉවරයි. (에골로 꺼러뿌 예와 탕 이워라이.)
그 사람들이 하던 것들이 지금은 끝났습니다.

⁷⁴ 싱할라어에도 분명히 동명사 형태가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문어체에서 쓰이며 구어체에서는 එක (에꺼) 나 දෙයක් (테약) (둘 다 ~하는 ‘것’ 이란 의미이다.) 을 현재 수식형이나 과거 수식형을 결합하여 사용한다. 이 책에서는 동명사 형태는 기초 단계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제외시켰다.

⁷⁵ ඒවා (예와) 는 එක (에꺼) 의 복수형으로 ‘것들’ 이란 의미이다.

또 하나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ගමන්** (가망)⁷⁶ 이 있다.

ගමන් (가망)은 현재 수식형과 결합하여 ‘~하던 차에’ ‘~하던 길에’ 의 의미를 나타낸다.

එන ගමන්	(에너 가망)	오는 길에
යන ගමන්	(야너 가망)	가는 길에
කන ගමන්	(까너 가망)	먹던 도중에 즉, 먹다가

- **කමල් ගෙදර එන ගමන් හිසුක් දැක්කා.** (까말 계더러 에너 가망 회숙 댁까.)
까말은 집에 오는 길에 회숙을 봤습니다.
- **දොංවු කෑම කන ගමන් වතුර බිව්වා.** (동우 깨머 까너 가망 와뚜러 비우와.)
동우는 식사를 하던 도중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식형과 결합하는 경우 ‘~하자 마자’ 의 의미를 나타낸다.

ආපු ගමන්	(아뿌 가망)	오자 마자
ගිය ගමන්	(기여 가망)	가자 마자
කාපු ගමන්	(까뿌 가망).	먹자 마자

- **නම්සුක් නැගිටිපු ගමන් වැඩට ගියා.** (남숙 내기띠뿌 가망 왜더떠 기야.)
남숙은 일어나자 마자 출근했습니다.
- **චන් ඉල් කාපු ගමන් නිදා ගත්තා.** (찬일 까뿌 가망 니다 갓따.)
찬일은 먹자마자 자러 갔습니다.

단어)	නැගිටිපු	(내기띠뿌)	නැගිටිනවා (내기띠너와)‘일어나다’의 과거수식
	නිදා ගත්තා	(니다 갓따)	නිදා ගන්නවා (니다 간너와)‘잠들다’의 과거형

처음 밝힌 것과 같이 현재 수식형과 과거 수식형은 실제 생활라 어 대화에서도 굉장히 빈번히 쓰이는 표현이니만큼 익숙해 지면 이보다 좋을 수 없다. 10과에 주요 단어들의 동사 변화표를 수록해 놓았으니 동사 변화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⁷⁶ **ගමන්** (가망) 은 우리말에 엄밀히 딱 맞는 어휘는 없다. 굳이 따지자면 ‘~하는 도중에’, ‘~하는 길에’ 와 같은 어떤 중간 경로나 진행 중인 그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따라서 단어 하나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ගමන්** (가망)이 들어간 표현 전체에 의미를 두기로 하자. (물론 이는 비단 이 단어 하나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라어 를 공부할 때 해당하는 말이다.)

7.4 표현 유무

7.4.1 요일 지칭

일요일	ඉරිදා	이리다
월요일	සඳුදා	상두다
화요일	අඟහරුවාදා	앙거하루와다
수요일	බදාදා	바다다
목요일	බ්‍රහස්පතින්දා	브라하스빠떤다
금요일	සිකුරාදා	시꾸라다
토요일	සෙනසුරාදා	세너수라다

7.4.2 전화 인사

- 안녕하세요. 니말입니다.
හලෝ. නිමල් කතා කරනවා. (할로. 니말 까따 꺼러너와.)
- 수란짓 있나요?
සුරංජිත් ඉන්නවාද? (수란짓 인너와더?)
- 전화바꿨습니다. 수란짓입니다.
සුරංජිත් කතා කරනවා. (수란짓 까따 꺼러너와.)

7.4.3 너무 ~ 하다.

싱할라어에서 වැඩි (왜디) 는 ‘많다’ 란 의미라기 보다는 ‘너무~ 하다 혹은 굉장히 ~ 하다’ 란 의미가 강하다. 우리말에서도 그렇듯이 ‘과하다’ 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너무 커요	ලොකු වැඩි	로꾸 왜디
너무 비싸요	ගණං වැඩි	가냥 왜디
너무 멀어요	දුර වැඩි	두러 왜디
너무 어두워요	කළුවර වැඩි	칼루워러 왜디
너무 높아요	උස වැඩි	우썸 왜디
너무 가까워요	ලඟ වැඩි	랑거 왜디

7.5 연습문제 අභ්‍යාස

다음 우리말을 싱할라로 옮기세요.

- 찬더너가 내일 우리 집에 온대요.

- 찬더너가 내일 우리 집에 온다고 말했어요.

- 나는 그가 싱할라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어) 생각하다 හිතනවා (히떠너와)

- 수요일마다 우리가 노는 운동장은 큼니다.

단어) 수요일마다 බදාදා දවස්වල (바다다 다워스월러)

크다 ලොකු (로꾸)

놀다 සෙල්ලම් කරනවා (셀람 꺼러너와)

- 오늘 오후에 우리가 갔던 절은 많이 유명합니다.

단어) 오후 හවස (하워서)

많이 ගොඩක් (고닥)

유명 ප්‍රසිද්ධ (쁘라싯더)

- 내일 아침 10시에 병원에서 만나자.

8과 우체국에서

පාඩම් අංක අට තැපැල් කාර්යාලේදී

8.1 대화 연습

නුවන් (누완)	පාර්සලයයි ලියුමයි යවන්න ඕනෑ. (빠르살라이 리유마이 야완너 오내.) 소포랑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Counter	දේශීය තැපැල්ද? (데쉬여 때빨더?) 국내 우편이예요?
නුවන් (누완)	නෑ. වී දේශීය. කොරියාවට යවනවා. (내. 위 데쉬여. 꼬리야워때 야워너와.) 아뇨. 국제입니다. 한국으로 보내요.
Counter	කොහොමද යවන්න ඕනෑ? (꼬호머더 야완너 오내?)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නුවන් (누완)	පාර්සල් EMS එකෙන්, ලියුම Register එකෙන් යවන්න ඕනෑ. (빠르설 EMS 예겐, 리유머 Register 예겐 야완너 오내.) 소포는 EMS로, 편지는 등기로 보내려구요.
Counter	මෙ ලොම් එක පුරවන්න. (메 폼 에꺼 뿌러완너) 이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ඊට පස්සේ පාර්සල් බඩු වෙක් කරලා එන්න. (이때 뽕쎄 빠르설 바두 체크 꺼털라 엔너.) 그 다음에 소포 짐을 조사 받고 오세요 ⁷⁷ . වෙක් කළාට පස්සෙ අත්සං ගන්න. (체크 꺼라때 뽕쎄 앳쌍 간너.) 조사 후엔 (책임자) 서명을 받으세요. අමතක කරන්න එපා. (아마때꺼 웬너 예빠) 잊지 말아요. මතක තියා ගන්න. (마때꺼 띠야 간너.) 명심해요. නැත්නම් යවන්න බෑ. (넛땅 야완너 배.) 안 그러면 보낼 수가 없어요. කොහෙද වෙක් කරන්නේ දන්නවා, නේද? (꼬헤더 체크 꺼란네 단너와,네더?) 어디서 체크 하는지 아시죠?

⁷⁷ 스리랑카의 모든 소포는 발송 할 때 내용물 검사를 거쳐야 한다. 반입 소포물 역시 내용물 검사를 하며 고가품이나 신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또한 국제 EMS의 경우는 각 지역 중앙우체국에서만 가능하며 대형소포물(일반 항공, 해운)의 경우는 체신청 본부에서만 접수한다.

නුවාන් (නු완)	ඔව්. දන්නවා. (ඔඹ. 단너와) 예. 알아요.
	:
Counter	බර බලමු. (바러 발러무) 무게를 봅시다. කිලෝ 3.4(තුන දසම හතර)යි. (킬로 뚜너 다서머 하떠라이) 3.4킬로네요. රුපියල් 3500(තුන් දාස් පන් සිය)ක් වෙනවා. (루삐알 툀다스 뽀씨약 웨너와.) 3500 루피 되겠습니다.
නුවන් (නු완)	EMS එකෙන් කොරියාවට දවස් කීයක් ගතවෙනවාද? (EMS 예겐 꼬리야워떠 다워서 끼약 가떠웨너와더?) EMS로 한국까지 며칠이나 걸리나요?
Counter	සාමාන්තියෙන් සතියක් විතර. (사만네 사떠약 위떠러.) 보통 1주일 정도요. ඉක්මනට ගියොත් දවස් 4(හතර)ක් විතර ගතවෙනවා. (이끄만떠 기웁 다워서 하떠락 위떠러 가떠웨너와.) 빨리 가면 4일 정도 걸려요.
නුවන් (නු완)	Register එක යවන්නේ කොයි Counter එකද? (Register 예꺼 야완네 꼬이 카운터 예꺼더?) 등기는 어느 창구에서 보내나요?
Counter	Register කවුන්ටරේ අතන තියෙනවා. අංක 3(තුන). (Register 카운터레 아떠너 떠예너와. 앙꺼 뚜너.) 등기 창구는 저기 있습니다. 3번 (창구)예요.

8.2 단어 වචන

පාර්සල්	පාර්සල්	소포
ලියුම	리유머	편지
යවන්න	야완너	යවනවා (야워너와) 보내다 의 동사연결형
දේශීය	데쉬여	국내
තැපැල්	때빨	우편
වී දේශීය	위 데쉬여	국제
පුරවන්න	뿌러완너	පුරවනවා (뿌러워너와) 채우다 ⁷⁸ 의 명령형
බඩු	바두	짐, 물건

⁷⁸ 어떤 서류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 ‘채우다’ 라고 표현한다. 병에 물 따위를 채울 때도 **පුරවනවා** (뿌러워너와) 라고 한다.

අත්සන්	앗쌍	서명
අමතක වෙනවා	아마떠꺼 웨너와	잊다
මතක තියා ගන්න	마떠꺼 떠야 간너	මතක තියා ගන්නවා (마떠꺼 떠야 간너와) 명심하다. 의 명령형 아니면, 안 그러면
නැත්නම්	넌땅	알다
දන්නවා	단너와	무게
බර	바러	날
දවස	다워서	주(周)
සතිය	사떠여	(시간이) 걸리다
ගතවෙනවා	가떠웨너와	빨리
ඉක්මනට	이끄만떠	යනවා (야너와) 가다 의 가정형
ගියොත්	기웏	대략, 정도
විතර	위떠러	어느
කොයි	꼬이	저기
අතන	아떠너	숫자, 번(番)
අංක	앙꺼	

8.3 문법 ව්‍යාකරණ

8.3.1 가정법

싱할라어에서 가정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 우리 말에서는 구분을 하지 않고 그 형태가 똑같이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다. 일단은 문법 편이어서 문법적인 설명을 하지만 글로만 보자면 상당히 모호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굉장히 많으므로 문법적인 설명을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저 예문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해 보기 바란다.

8.3.1.1 미래 조건 The Future Conditional⁷⁹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 보자면 미래 조건형은 미래에 발생할, 혹은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조건적 종속성을 보여 줄 때 쓰인다. 즉, 언급하는 두 개의 미래 사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 비로소 나머지 사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이다. 예문을 보자. 형태는 동사

⁷⁹ 미래 조건 이니 미래 종속형이니 하는 것은 구분하기 위해 붙여 놓은 이름일 뿐이다. 크게 의미두지 말기 바란다.

현재형 + නම්(낭⁸⁰) 또는 과거형 어간 + වොක්(웁) 이다.

- පොත දුන්නොත් පැනක් මට දෙන්න.

= දෙනවානම්

(뵈떠 돈~~ㅏ~~=[~~ㅌ~~너와~~ㅓ~~] 빼~~ㅓ~~ 마~~ㅓ~~ 떤~~ㅓ~~) 책을 주~~ㅓ~~ 내~~ㅓ~~ 펜을 주~~ㅓ~~시오.

- සුනිල් ආවොත් මොකද්ද කරන්නේ?

= එනවානම්

(수~~ㅓ~~닐 아~~ㅓ~~ㅓ=[~~ㅌ~~너와~~ㅓ~~] 모~~ㅓ~~갓~~ㅓ~~더 꺼~~ㅓ~~란~~ㅓ~~네?)⁸¹ 수~~ㅓ~~닐이 오~~ㅓ~~ 뭘 하~~ㅓ~~지?

- ඉක්මනට ගියොත් දවස් 4(හතර)ක් විතර ගතවෙනවා.

= යනවානම්

(이~~ㅓ~~끄~~ㅓ~~만~~ㅓ~~떠 가~~ㅓ~~ㅓ=[~~ㅌ~~아너와~~ㅓ~~] 다~~ㅓ~~워서 하~~ㅓ~~떠~~ㅓ~~락 위~~ㅓ~~떠~~ㅓ~~러 가~~ㅓ~~떠~~ㅓ~~웨~~ㅓ~~너와.)

빨~~ㅓ~~리 가~~ㅓ~~면 4일 정~~ㅓ~~도 걸~~ㅓ~~려~~ㅓ~~요.

8.3.1.2 미래 종속 The Future Dependent

미래 종속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사건 혹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 다른 사건과 종속 관계에 있을 때 사용된다. 위에서도 누차 말했지만 미래 조건과 미래 종속은 흑과 백의 구분과 같은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싱할라 초급 사용자들은 혼용해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의미에 따라서는 치환 사용에 큰 무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형태는 과거형 + ම(머) 혹은 과거형 어간 + පුහම (뿌 하머) 가 쓰인다.

- නිමාන්ත ආවාම පොත දෙන්න.

= ආපුහම

(니~~ㅓ~~산~~ㅓ~~떠 아~~ㅓ~~와~~ㅓ~~머=[~~ㅌ~~아~~ㅓ~~뿌~~ㅓ~~하~~ㅓ~~머] 뵈~~ㅓ~~떠 떤~~ㅓ~~너)

니~~ㅓ~~산~~ㅓ~~떠가 오~~ㅓ~~ 책~~ㅓ~~을 주~~ㅓ~~세~~ㅓ~~요.

- ඉස්සරහ හන්දියෙන් වමට හැරුනාම ඉස්කෝලය හමිබවෙනවා.

= හැරිවිචහම

(잊~~ㅓ~~써~~ㅓ~~라~~ㅓ~~하 한~~ㅓ~~디~~ㅓ~~엔 와~~ㅓ~~머~~ㅓ~~ 해~~ㅓ~~루~~ㅓ~~나~~ㅓ~~머=[~~ㅌ~~해~~ㅓ~~러~~ㅓ~~뿌~~ㅓ~~하~~ㅓ~~머] 이~~ㅓ~~스~~ㅓ~~폴~~ㅓ~~러~~ㅓ~~여 함~~ㅓ~~버~~ㅓ~~웨~~ㅓ~~너와.)

전~~ㅓ~~방 사~~ㅓ~~거~~ㅓ~~리~~ㅓ~~에서 좌~~ㅓ~~회~~ㅓ~~전~~ㅓ~~을 하~~ㅓ~~면 학~~ㅓ~~교~~ㅓ~~가 나~~ㅓ~~옵~~ㅓ~~니다.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8.3.1.1 미래 조건 과 8.3.1.2 미래 종속은 우리 말에서는 거의 동

⁸⁰ 글자 자체는 낭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발음은 낭 으로 발음한다.

⁸¹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자면 이 예는 사실 미래 종속형으로 써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일하게 표현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언하자면 ‘네가 만일 내년에 스리랑카로 다시 온다면 좋은 걸 대접할게.’ 와 ‘이 길로 쪽 가면 우리집이다.’ 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문장에서 차이를 발견한다면 미래 조건 과 미래 종속의 차이를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다. 전자가 미래 조건, 후자가 미래 종속이다. 미래 종속의 경우 if 라기 보다는 when 에 가깝다. 즉, 전자는 내년에 다시 ‘온다는’ 조건하에서 잘 대접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쪽 ‘가면’ 무조건 존재하는 게 우리 집이라는 의미다.

8.3.1.3 부정 가정 ‘~ 아니면’ නැත්නම්

‘~ 하지 않으면, ~ 쓰지 않으면’ 과 같은 부정형 가정에는 **නැත්නම්** (넛땅) 이 쓰인다. **නැත්නම්** (넛땅) 만 쓰여서 ‘~아니면’ 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 현재형 어간과 결합하여 쓰이기도 한다. 동사 현재형 어간과 결합하는 경우 발음상의 편의를 위해 ~න් 이 삽입된다.

- හරියට ලියන්න. **නැත්නම්** අමතක වෙනවා.
(하리여떠 리안너. 넛땅 아마떠꺼 웨너와.) 잘 적으세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 මෙතනට එන්නැත්නම්, රේජිස්ටර් කරන්න බෑ.
(떼떠너떠 ଏ 넛땅, 레지스터 꺼란너 배.) 여기로 오지 않으면, 등록 할 수가 없어요.
- වැඩ කරන්නැත්නම්, කන්න එපා.
(왜더 꺼란넛땅, 깐너 에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세요.
- ඉක්මනින් කරන්න. **නැත්නම්** පරක්කු වෙයි.
(이끄마닝 꺼란너. 넛땅 빠락꾸 웨이.) 빨리 하세요. 아니면 늦을 거예요.

단어)	අමතක වෙනවා	(아마떠꺼 웨너와)	잊다
	පරක්කු වෙනවා	(빠락꾸 웨너와)	늦다
	ඉක්මනින්	(이끄마닝)	빨리

8.3.2 ~후에 / ~ 전에

8.3.2.1 ~ 후에 ~ පස්සේ (~ 뽕쎄)

‘~ 한 후(後)에’ 라는 표현은 동사 과거형+ ට(떠) 에 ‘후(後)’를 나타내는 접속사 **පස්සේ**(뽕쎄)를 붙여서 표현한다. 과거 의미이든 현재 의미이든 둘 다 공히 동사 과거형으

로 표기하며 의미 구분은 그 문맥을 따른다.

- **චෙක් කළාට පස්සේ එන්න.**
(체크 꺼라때 පස්සේ 엔너.) 체크 하고 나서 오세요.
- **අයියා ඉස්කෝලෙට ගියාට පස්සේ අපි සෙල්ලම් කරන්න යමු.**
(아이야 이스쿨러여때 기야때 පස්සේ 아빠 셀람 꺼란너 야무.)
형이 학교 가고 난 후에 우리 놀러 가자.
- **කැවාට පස්සේ Film එක බලන්න.**
(깨와때 පස්සේ 필름 에꺼 발란너)
먹고 나서 영화 보라.

단어) **සෙල්ලම් කරනවා** (셀람 꺼러너와) **놀다**

8.3.2.2 ~ 하기 전에 ~ **ඉස්සෙල්ලා** (~잇셀라)

‘~ 하기 전(前)에’ 라는 표현은 동사 연결형에 ‘전(前)’을 나타내는 접속사 **ඉස්සෙල්ලා** (잇셀라)를 붙여 표현한다. 이 역시 과거 의미, 현재 의미 구별 없이 공히 동사 연결형으로 표기하며 역시 의미 구분은 문맥을 따른다.

- **ගෙදර යන්න ඉස්සෙල්ලා මං ළගට එන්න.**
(게더러 얀너 잇셀라 망 랑거때 엔너) 집에 가기 전에 저에게⁸² 오세요.
- **බෝඩ් එක හයි කරන්න ඉස්සෙල්ලා බිත්තියට ඇන ගහන්න.**
(보드 에꺼 하이 꺼란너 잇셀라 빗띠여때 애너 가한너.)
보드를 설치하기 전에 벽에 못을 박으세요.

단어)	හයි කරනවා	(하이 꺼러너와)	설치하다.
	බිත්තිය	(빗띠여)	벽
	ඇන	(애너)	못
	ගහනවා	(가하너와)	때리다. 박다

⁸² 이 말은 집에 가기 전에 ‘나를 보고’ 가세요. 란 뜻이다. 이 경우 싱할라 어로는 ‘저 근처로’ 오세요 라고 표현한다.

8.3.3 වෙනවා (வேனுவா)/ කරනවා (கரணுவா)

싱할라어는 우리말 처럼 명사를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동사 표현에서도 명사+하다, 명사+되다 형태가 많은데 그러한 표현이 싱할라어에서 **කරනවා** (꺼러너와) 하다/**වෙනවා** (웨너와) 되다 이다. 우리말의 능동형, 피동형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 보자

기억	මතකය	마떠꺼여
기억하다	මතක් කරනවා	마떠꺼 꺼러너와
기억나다	මතක් වෙනවා	마떠꺼 웨너와
집합, 모임	එකතු	에꺼뚜
모으다	එකතු කරනවා	에꺼뚜 꺼러너와
모이다	එකතු වෙනවා	에꺼뚜 웨너와
전염병	බෝ වෙන රෝගය	보 웨너 로거여
전염시키다	බෝ කරනවා	보 꺼러너와
전염되다	බෝ වෙනවා	보 웨너와

또한 이 외에도 거의 모든 능동표현은 약간의 어간 변형을 통해 피동표현과 사동표현을 갖고 있다.

만들다 (능동)	හදනවා	하더너와
만들어지다 (피동)	හැදෙනවා	해데너와
만들게 하다 (사동)	හදවනවා	하더워너와
자르다 (능동)	කපනවා	까빠너와
잘리다 (피동)	කැපෙනවා	깨빠너와
자르게 하다 (사동)	කපවනවා	까빠워너와
부수다 (능동)	කඩනවා	까더너와
부서지다 (피동)	කැඩෙනවා	깨데너와
부수게 하다 (사동)	කඩවනවා	까더워너와

즉, 기본적인 능동 표현이 있으면 (주로 능동표현은 ‘아어너와’ 형태이다.) 피동형은 ‘애에너와’, 사동형은 ‘아어워너와’ 형태가 된다.

다음은 예외 형태이다. 모든 언어가 늘 그렇지만 기본 동사들의 변형이 예외 형태이다.

가다 (능동)	යනවා	야너와
보내지다 (피동)	යැවෙනවා	애워너와
보내다, 발송하다 (사동)	යවනවා	야워너와
오다 (능동)	එනවා	에너와
보내져 오다. (피동)	එවෙනවා	에워너와
보내오다 (사동)	එවනවා	에워너와
마시다 (능동)	බෙනවා	보너와
마시게 되다 (피동)	පෙනෙනවා	빼워너와
마시도록 하다 (사동)	පවනවා	뽀워너와

8.4 표현 ප්‍රකාශය

8.4.1 우체국에서 쓰는 단어/표현

우표	මුද්දරය (못더러여)	봉투	කවරය (까워러여)
우체국	කැපැල් කාර්යාලය (때빨 까르알러여) කැපැල් කන්තෝරුව (때빨 칸또루위) ⁸³	우체통	කැපැල් කණුව (때빨 까누위)
등기	ලියා පදිංචිය (리야 빠당찌여) Register	일반 우편	සාමාන්‍ය කැපැල් (사만니여 때빨)

- 3루피 우표 5장 주세요

රුපියල් 3(තුනේ) මුද්දර 5(පහ)ක් දෙන්න (루삐알 뚜네 못더러 빠학 덴너)

⁸³ කැපැල් කාර්යාලය (때빨 까르알러여) 와 කැපැල් කන්තෝරුව (때빨 칸또루위)는 둘 다 동일한 의미의 단어이며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대화에 무리가 없으나 කාර්යාලය (까르알러여)는 주로 쓰는 말에서 쓰이고 කන්තෝරුව (칸또루위)는 구어체에서 많이 쓰인다.

- රුපියල් 17(දහ හතක්) මුද්දර ගහන්න (루삔얌 다하 하떼⁸⁴ 못더러 가한너)

- (사마니여 때빨렌 야완너 오내낭 못더러 끼약 가한너 오내더?)

- (메떠닝 위 데쉬여 빠르설 야완너 뿔루왕더?)

- සුනිල්ගේ වයස කීයයි කියලාද හිතන්නේ?
(수닐게 와여서 끼야이 끼얼라더 히탄네?) 수닐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 27 (විසි හත)ක් විතර (위씨 하딱 위떠러) 27살 쯤이요.
- උතුරු පැත්තේ ඉන්නේ කවුද? (우뚜루 뻬떼 인네 까우더?) 북쪽에 누가 살죠?
- මම විතරයි. අනිත් කට්ටිය දකුණු පැත්තේ ඉන්නවා
(마며 위떠라이. 아닛 짖띠여 다꾸누 뻬떼 인너와.)
저 뿐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남쪽에 있어요.
- කවුද ගියේ? (까우더 기예?) 누가 갔죠?
- වසන්ත විතරයි ගියේ (와산떠 위떠라이 기예.) 와산떠만 갔어요.

දානර) හිතනවා	(히떠너와)	생각하다
උතුරු	(우뚜루)	북(北)의
කට්ටිය	(짖띠여)	사람들
අනිත්	(아닛)	다른
දකුණු	(다꾸누)	남(南)의

8.5 연습문제 අභ්‍යාස

다음 우리말을 싱할라어로 바꾸세요.

- 국내 엽서 보내는데 얼마죠?
දානර) 국내 රට ඇතුලේ (라떠 애틀레)
가게 ගන (가너)
보내다 යවනවා (야워너와)
- 17루피 우표 한 장 붙인 후에 저에게 주세요.
දානර) 붙이다 ගහනවා (가하너와)
- 영화를 많이 보면 눈이 나빠져요.
දානර) 눈 ඇස් (애스)
나쁘다 නරක (나러꺼)

9과 병원에서

පාඩම් අංක නමය ඉස්පිරිතාලයේදී

9.1 대화 සංවාදය

දොස්තර (도스떼러) 의사	මොකද ආවේ? (모꺼더 아웨?) 어떻게 오셨나요?
ලෙඩා (레다) 환자	උණයි ඔළුව කැක්කුමයි කියෙනවා. (우나이 올루워 깨꾸마이 띠예너와.) 열도 나고 두통이 있어요.
දොස්තර (도스떼러) 의사	කොච්චර කල්ද? (꼇찌러 깔더?) 얼마나 되었어요?
ලෙඩා (레다) 환자	දවස 5(පහ)ක් උනා. (다워서 빠학 우나) 5 일 됐어요.
දොස්තර (도스떼러) 의사	කැස්සයි සෙමයි කියෙනවාද? (깨싸이 세마이 예너와더?) 기침이랑 가래도 나나요?
ලෙඩා (레다) 환자	ඔව්. උදේ නැගිටිනකොට වැඩි වෙනවා. (오우. 우테 내기띠너꼬띠 왜디 웨너와.) 예.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해요.
දොස්තර (도스떼러) 의사	උගුරෙන් අමරුවක් කියෙනවාද?(우구렛 아마루와 띠예너와더?) 목도 아프세요? (직역: 목에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ලෙඩා (레다) 환자	ඔව්. මොනවා හරි ගිලින කොට වැඩිපුර රිදෙනවා. (오우. 모너와 하리 길리너꼬띠 왜디뿌러 리테너와) 예. 뭬 삼키거나 할 때면 특히 많이 아파요.
දොස්තර (도스떼러) 의사	කට අරින්න. දිව පෙන්නන්න, කො (까떠 아린너.디워 뻬난너, 꼬) 입을 벌리세요. 혀를 내밀어 보시겠어요? (직역: 혀를 보여주세요.) එව්වර ලොකු ප්‍රශ්න නෑ. ගණං ගන්න එපා. (에찌러 로꾸 뿌라쉬너 내. 가냥 간너 예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බෙහෙත් බිප්භාම ඉක්මනට හරි යයි. (베헛 비뿌 하머 이끄만띠 하리 야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බෙහෙත් තුන්ඩුව ලියලා දෙන්නම්. (베헛 똥두워 리열라 덴낭) 처방전을 써 드릴게요.

සතියකට බෙහෙත් බිලා හරි යන්නැත්තම් ආයේ එන්න.

(사띠여꺼떠 베헛 빌라 하리 안넛땅 아예 엔너)

1주일 동안 약 드시고 안 나오면 다시 오세요.

약국에서 0330 0330 (오수 할레디)

ලෙඩා

(레다) 환자

මගම වේදියා

(아우셔더 웨디아)

약사

බෙහෙත් තුන්ඩුව මෙන්න. (베헛 툐두워 덴너)

여기 처방전이요.

සතියකට නේ? (사띠여꺼떠 네?) 1주일 동안이죠?

මේ බෙහෙත් කෑම කෑවාට පස්සේ බොන්න.

(메 베헛 깨머 깨와떠 뺏썰 본너)

이 약은 식 후에 드시구요.

මේ බෙහෙත් දවසකට 4(හතර) පාරක් , ඒ කියන්නේ පැය 6(හය)කට සැරයක් බොන්න.

(메 베헛 다워서꺼떠 하떠러 빠락, 예 끼안네 빼여 하여꺼떠 썸러약 본너.)

이 약은 하루에 4 번, 그러니까 6시간마다 한 번 드세요.

ලෙඩා(레다) 환자

මගම වේදියා

(아우셔더 웨디아)

약사

ස්තූති. කීයද? (스투띠. 끼여더?) 감사합니다. 얼마죠?

රුපියල් 326(තුන් සිය විසි හය)ක් දෙන්න.

(루삐얌 툐씨여 위시 하약 덴너)

326루피 주세요.

9.2 단어 වචන

ඉස්පිරිතාලය

මොකද

උණ

මළුව

කැක්කුම

කොවිඩර

දවස

උනා

කැස්ස

이스빠리팔리여

모꺼더

우너

올루워

깍꾸며

꽃찌러

다워서

우나

깍썸

병원⁸⁵

무슨 일로

열

머리

통증

얼마나

날

වෙනවා (웨너와) 되다 의 과거형

기침

⁸⁵ 병원을 의미하는 싱할라는 ඉස්පිරිතාලය (이스빠리팔리여)와 රෝහල (로할러) 두 개가 있다. (이스빠리팔리여)는 영어 ‘hospital’ 에서 온 단어이며 구어체에서 많이 쓰인다. 하지만 병원 현판이나 각종 연설문에서는 (로할러)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이는 (로할러)가 문어체 단어이기 때문이다.

සෙම	ෂෙම	가래
උදේ	우데	아침, 아침에
නැගිටින කොට	나기너 꼬떠	일어날 때 නැගිටිනවා (나기너와) 일어나다
වැඩි වෙනවා	왜디 왜너와	많아지다, 심해지다
උගුර	우구리	편도선
අමාරුවක්	아마루와	어려움
මොනවා හරි	모너와 하리	무엇이든지 (whatever)
ගිලිනවා	길리너와	삼키다
වැඩිපුර	왜디뿌러	많이
රිදෙනවා	리테너와	아프다
කට	까떠	입
අරින්න	아린너	අරිනවා 아리너와 (열다)의 명령형
දිව	디워	혀
පෙන්නන්න	봔난너	පෙන්නනවා 봔너너와 (보여주다)의 명령형
එව්වර	엇찌러	그만큼
ලොකු	로꾸	큰
ප්‍රශ්න	쁘라쉬너	문제
ගණං ගන්නවා	가냥 간너와	걱정하다
එපා	에빠	~ 하지 마세요. (금지의 의미)
බෙහෙත්	베헛	약
බීපු හාම	비뿌 하머	බොනවා 보너와 (마시다)의 가정형
ඉක්මනට	이끄만떠	빨리
හරි යයි	하리 야이	හරි යනවා 하리 야너와 (괜찮아지다)의 추측 미래
කුන්ඩුව	똥두워	처방전
ලියලා	리열라	ලියනවා 리여너와 (쓰다) 의 분사형
දෙන්නම්	덴낭	දෙනවා 데너와 (주다)의 의지미래형
සතිය	사띠여	주(週)
බීලා	빌라	බොනවා 보너와 (마시다) 의 분사형
ආයේ	아예	다시
මෙන්න	멘너	여기 있습니다.
ඒ කියන්නේ	에 끼안네	즉, 그러니까
පාරක්	빠락	번(番)
සැරයක්	ෂෙරිය	번(番) ⁸⁶

⁸⁶ පාරක් (빠락) 과 සැරයක් (ෂෙරිය) 은 그 의미가 동일하다. 다만 수사없이 **සැරයක්** (ෂෙරිය) 이 라고 하면 ‘한 번’을 강조하는 의미가 강하다.

9.3 문법 ව්‍යාකරණ

9.3.1 미래형

이번 과에서는 미래형에 대해 다뤄보기로 하자. 싱할라어는 일반적인 의미로는 따로 미래형을 두지 않는다. මම හෙට එනවා. (나는 내일 옵니다.)와 같이 미래 의미이나 현재형을 쓴다. 하지만 미래이더라도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경우 ‘특수’하게 미래형을 쓴다. 이를 구분하면 의지미래와 추측미래 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다.

9.3.1.1 의지미래

의지 미래란 말 그대로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다는 뜻이다. මම හෙට එනවා. 는 ‘나는 내일 옵니다.’ 라는 일반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මම හෙට එන්නම්. 이라고 하면 ‘나는 내일 올게요.’ 라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게 된다. 동사어간에 -න්නම් 을 붙여서 표현한다.

- ඔයාට තුන්ඩුව ලියලා දෙන්නම්. (오야떠 뚝두워 리얼라 텔냐)
당신께 처방전을 써드리겠습니다.
- මම හෙට වෙන කොට සම්පූර්ණ කර ගෙන එන්නම්.
(마며 헤떠 웨너 꼬떠 삼뿌르너 꺼라 게너 ଏ냐)
제가 내일까지 완성해서 오겠습니다.
- විභාගයට මහන්සි වෙලා පාඩම් කරන්නම්.
(위바거여떠 마한시 웰라 빠담 꺼란냐)
시험을 대비해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단어)	සම්පූර්ණ කරනවා	(삼뿌르너 꺼러너와)	완성하다
	විභාගය	(위바거여)	시험
	මහන්සි	(마한시)	피곤한 ⁸⁷
	පාඩම් කරනවා	(빠담꺼러너와)	공부하다

9.3.1.2 추측미래

추측 미래란 화자가 추측해서 말하는 미래를 말한다. එයා තව ටිකකින් එනවා. (에야 따워 띠꺼깁 에너와) 라고 하면 ‘그는 곧 온다.’ 라는 일반 사실을 말하는 것

⁸⁷ 이 문장은 직역하면 ‘시험에 피곤해 저서 공부하겠습니다.’ 인데, 즉, (피곤해 할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란 의미가 된다.

이며 එයා තව ටිකකින් එයි. (ඒයා ටාව් ටිකකින් ඒයා.) 는 ‘그는 (아마도) 곧 올 거예요’ 라는 추측이다. 동사어간에 -යි (이)를 붙인다.

- ගණං ගන්න එපා. හරි යයි. (가냥 간너 예빠. 하리 야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 질 거예요.
- සිංහලෙන් ගොඩක් කතා කරන්න. ලගදි පුරුදු වෙයි.
 (싱할렌 고닥 까따 꺼란너. 랑거디 뿌르두 웨이.)
 싱할라어로 많이 이야기 하세요. 곧 익숙해 질 겁니다.
- වැටෙයි. තව මේස එහාට කරලා තියන්න.
 (ඈඳි. ටාව් ටෙස් ඒහාට් කේල්ලා ටිහානේ.)
 떨어지겠어요. 좀 더 탁자 저 쪽으로 해서 두세요.

දාන)	ගණං ගන්නවා	(가냥 간너와)	걱정하다
	හරි යනවා	(하리 야너와)	괜찮아 지다
	කතා කරනවා	(까따 꺼러너와)	이야기 하다.
	ලගදි	(랑거디)	조만간
	පුරුදු වෙනවා	(뿌루두 웨너와)	익숙해지다
	වැටෙනවා	(왜떨너와)	떨어지다
	තියනවා	(띠여너와)	두다

9.3.2 ~දොන ~කට

~කට 는 ~දොන이라는 뜻이다. 아래 예를 보자.

- දවස් 5(පහ)කට බෙහෙත් බොන්න.
 (다워서 प्පහ까지 배헛 본너)
5일 동안 약을 드세요.
- මාස 3(තුන)කට සිංහල ඉගෙන ගන්නා.
 (마써 투너까지 싱할라 이게너 갖따)
3달 동안 싱할라어를 배웠습니다.

- පැයකට කොළඹට යන බස් කීයක් තියෙනවාද?
(ඒකේකේ කොළඹට යන බස් කීයක් තියෙනවාද?)
හත්තිය කොළඹට යන බස් කීයක් තියෙනවාද?
- අලු කිලෝ එකකට ගණං කීයද? (අලු කිලෝ ඒකේකේ ගණං කීයද?)
ගණං 1 කිලෝ ගණං කීයද?

ඉහත උදාහරණ වලින් බොහෝමයක් ~කට යන බස් කීයක් තියෙනවාද? යන අර්ථයෙන් යොමු වී ඇත. එමෙන්ම, 1 කිලෝ, ගණං 1 කිලෝ, යන අර්ථයෙන් යොමු වී ඇත.

9.3.3 ~දා ~ක්

ඉංග්‍රීසි වචන also ට සමාන වන්නේ ~දා යන්නයි. ~දා යන්න සිංහලයෙන් අර්ථ දැක්වීමක් නැත. එමෙන්ම, ~ක් යන්න සිංහලයෙන් අර්ථ දැක්වීමක් නැත.

- හෙට එනවාද? ඉහත හෙට එන්නම්. (අද එනවාද? ඉහත හෙට එනවාද?)
අද එනවාද? ඉහත අද එනවාද?
- කමල් කොට්ඨාසයට ගිහිල්ලා තියෙනවාද?
සුනිල් ලබන අවුරුද්දේ යනවාද.
(කමල් කොට්ඨාසයට ගිහිල්ලා තියෙනවාද? සුනිල් ලබන අවුරුද්දේ යනවාද?)
කමල් කොට්ඨාසයට ගිහිල්ලා තියෙනවාද? සුනිල් ලබන අවුරුද්දේ යනවාද?
- ඉහත මොබයිල් ෆෝන් එකක් තියෙනවා. (ඉහත මොබයිල් ෆෝන් එකක් තියෙනවා.)
ඉහත මොබයිල් ෆෝන් එකක් තියෙනවා.

දා) ගිහිල්ලා තියෙනවා (ගිහිල්ලා තියෙනවා) ගිහිල්ලා තියෙනවා.
ලබන (ලබන) ලබන
ලබන අවුරුද්දේ (ලබන අවුරුද්දේ) ලබන අවුරුද්දේ

ඉහත උදාහරණ වලින් බොහෝමයක් ~කට යන බස් කීයක් තියෙනවාද? යන අර්ථයෙන් යොමු වී ඇත. එමෙන්ම, 1 කිලෝ, ගණං 1 කිලෝ, යන අර්ථයෙන් යොමු වී ඇත.

9.3.4 재귀 동사 **ගන්නවා** (간너와)

원래 **ගන්නවා** (간너와)는 ‘취(取)하다’ ‘구입하다’의 뜻이 있다. 하지만 싱할라어에서 **ගන්නවා** (간너와)의 쓰임새는 이 원래 뜻 이상으로 주어를 강조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즉, 동사의 행위 주체를 강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귀 동사(Reflexive Verb)라고 이름 붙였다.

재귀 동사로서의 **ගන්නවා** (간너와)는 크게 두가지 기능을 한다.

첫번째는 재귀동사 본연의 기능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어 강조 기능이다. 다음 예를 보자.

- **හෙට වෙනකල් සම්පූර්ණ කරා ගන්නම්**
(હેતે વેનકાલ સમ્પૂર્ણ કરા⁸⁸ ગાનાં)
내일 까지 완료할게요.

හෙට වෙනකල් සම්පූර්ණ කරන්නම්
(હેતે વેનકાલ સમ્પૂર્ણ કરાનાં)

- **ඔයා යනකොට ලියුමක් ලියා ගෙන යන්න**
(ઓયા યાનેકોતે રીયુમક રીયા ગેને યાને)
가실 때 편지 써 놓고 가세요.

ඔයා යනකොට ලියුමක් ලියලා යන්න
(ઓયા યાનેકોતે રીયુમક રીયેલા યાને)

- **මේ සතියකින් වැඩ ඉවර කරා ගන්න.**
(મે સપ્તિયેકિં વૈદિ ઇવર કરા ગાને.)
이번 주 내로 일을 끝내십시오.

මේ සතියකින් වැඩ ඉවර කරන්න.
(મે સપ્તિયેકિં વૈદિ ઇવર કરાને.)

단어) **ඉවර කරනවා** (이워러 꺼란너와) 끝내다.

⁸⁸ 여기서 지역별로 작은 차이가 있다. 캔디 이북(以北)에서는 **කරා** (꺼라)라고 표기하는 반면 콜롬보 이남(以南)에서는 **කර** (꺼러)라고 표기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는 아주 미세한 차이로 어떤 방식으로 말하든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 두 번째 예문 역시 마찬가지로 캔디 이북에서는 **ලියා** (리야)라고 하는 반면 이남에서는 **ලිය** (리여)라고 표기한다.

첫번째 문장에서 내일까지 완료하는 것은 다름아닌 화자 본인이다. 즉 화자 본인(예문에서 생략된 주어인 මම (마머) 나)이 예문에서 언급된 행위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두번째 문장 역시 마찬가지 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මයා (오야) 너’가 편지를 쓰고 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 문장 역시 이번 주 내로 일을 끝내는 데 그 행위의 주체는 바로 ‘මයා (오야) 너’이다. 각 예문 아래에 병기한 문장 역시 개괄적인 의미는 동일하나 행위의 주체를 나타냄에 있어 그 의미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ගන්නවා (간너와) 의 두 번째 기능은 연속 표현 기능(Expression of Continuity)이다. 이 말의 의미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말하는 것이다. 자꾸 풀어 쓸 수록 말이 어려워 지는데 쉽게 말하면 영어의 현재 진행형과 의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길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아래의 예문을 보자.

- මම එනකල් ඔහුලංගේ වැඩ කරා ගෙන ඉන්න.

(마머 예너깁 오걸랑게 왜더 꺼라 게너 인너.)

내가 올 때까지 너네 일을 하고 있어.

මම එනකල් ඔහුලංගේ වැඩ කරලා ඉන්න.

(마머 예너깁 오걸랑게 왜더 꺼럴라 인너.)

내가 올 때까지 네 일 해놓고 있어.

- මං තක්කලා ගිහිං එන්නම්. ඔයා හදා ගෙන ඉන්න.

(망 딱잘라 기힝 엔낭. 오야 하다 게너 인너.)

나 금방 올게. 너는 만들고 있어.

මං තක්කලා ගිහිං එන්නම්. ඔයා හදලා ඉන්න.

(망 딱잘라 기힝 엔낭. 오야 하덜라 인너.)

나 금방 올게. 너는 만들어 놓고 있어.

- ඊයේ රෑ වෙනකල් ටීවී එක බලා ගෙන හිටියේ.

(이예 래 웨너깁 티비 예꺼 발라 게너 히띠예.)

어제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ඊයේ රෑ වෙනකල් ටීවී එක බලලා හිටියේ.

(이예 래 웨너깁 티비 예꺼 발럴라 히띠예.)

단어) **ඔහුලංගේ** (오걸랑게) 너희들의

9.4.2 건강에 대한 표현 සුවය පිළිබඳ ප්‍රකාශ

건강한 (සානිඬු)	아픈 (අසානිඬු)	병 (රෝග)	통증 (ඳුරුසුරු)
සනීප	අසනීප	රෝග	කැක්කුම
가래 (සෙර)	감기, 콧물 (හෙබිරිසාව)	기침 (ඳුරුසුරු)	기침하다 (කැහිනිව)
සෙම	හෙමබිරිසාව	කැස්ස	කහිනවා
약 (බෙහෙත්)	알약 (බෙහෙත්)	붓다 (අධිමෙනවා)	피가 나다 (ලේ එනවා)
බෙහෙත්	පෙති	ඉදිමෙනවා	ලේ එනවා
아프다 (ලිඳෙනවා)	숨쉬다 (හුස්ම ගන්නවා)	살짝 굵히다 (හිරිඳෙනවා)	끓다 (නාලඳෙනවා)
රිඳෙනවා	හුස්ම ගන්නවා	හිරිඳෙනවා	නරක් වෙනවා
베이다 (කෙබුනිව)	빠이다 (ඉරුකු වෙනවා)	데이다 (ඳුරුසුරු වෙනවා)	구토하다 (වාමනෙ කෙරෙනවා)
කැපෙනවා	උලුක් වෙනවා	පිවිවෙනවා	වමනෙ කරෙනවා
가렵다 (කැසෙනවා)	어지럽다 (කැරකෙනවා)	상처 (ඳුරුසුරු)	상처 나다 (ඳුරුසුරු වෙනවා)
කසෙනවා	කැරකෙනවා	කුලාල	කුලාල වෙනවා
떨리다 (ඳුරුසුරු වෙනවා)	멍들다 (නිඳෙනවා)	갑갑하다: (හිරිඳෙනවා)	
වෙබුලෙනවා	නල් වෙනවා		

- කොහෙද රිඳෙන්නේ? (කොහෙද ලිඳෙනේ?)
어디가 아프세요?
අඳිගා අඳුසෙය?
- ඊට නිදා ගන්න කොට කකුල කසෙනවා.
(ලඳුරුසුරු නිදා ගනිනිව කොට කකුල කසෙනවා.)
밤에 잘 때 다리가 가려워요.
බාමෙ කල ඳුරුසුරු ඳුරුසුරු.
- හුස්ම ගන්න කොට පපුව හිරිඳෙනවා.
(හුස්ම ගනිනිව කොට පපුව හිරිඳෙනවා.)
숨쉴 때 가슴이 갑갑해요.
සුමෙ ඳුරුසුරු ගාසුමෙ ඳුරුසුරු.
- ඉඳුරු ගෙන ඉඳුරු නැගිටපුහාම කැරකෙනවා, අස් නිලංකාර වෙනවා.
(අඳුරු ගෙන අඳුරු නැගිටපුහාම කැරකෙනවා, අස් නිලංකාර වෙනවා.)
앉았다 일어서면 어지럽고 눈 앞이 까매져요.
අඳුරු ගෙන අඳුරු නැගිටපුහාම කැරකෙනවා, අස් නිලංකාර වෙනවා.

단어)	ඳු	(ලඳු)	බාම
	පපුව	(කකුල)	ගාසුම

ඉඳ ගන්නවා	(인더 간너와)	앉다
නැගිටිනවා	(내기띠너와)	일어나다
කැරකෙනවා	(깨러께너와)	어지럽다
නිලංකාර වෙනවා	(닐랑까러 웨너와)	(눈 앞이) 까매지다 ⁹⁰

9.5 연습 문제

다음 우리 말을 싱할라어로 바꾸세요

1. 이 약은 하루 세 번, 식후에 드세요.
2. 밥 먹고 나면 배가 아프고 구토 증세가 있어요.
3. 지난 주에 다리에 난 상처가 부어서 걷기가 힘들어요.

단어) 걷다 ඇවිදිනවා (애위디너와)

⁹⁰ 우리 말에서는 ‘눈 앞이 까매진다’ 고 표현하지만 싱할라에서는 නිලංකාර (닐랑 까러) 즉, 파랗게 된다 고 표현한다.

10과 부록 (단어 모음)

පාඩම් අංක දහය අවශ්‍යම වචන

10.1 수 어휘

10.1.1 기수 සංඛ්‍යා

1	එක	એક
2	දෙක	દેક
3	තුන	ત્રી
4	හතර	હત્તેર
5	පහ	પા-હ
6	හය	હા-ય
7	හත	હા-ત
8	අට	આ-ત
9	නවය	નાવૈય ⁹¹
10	දහය	દા-હા-ય
11	එකොළහ	એકલ-હ
12	දොළහ	દો-લ-હ
13	දහතුන	દા-હ-ત્રી
14	දහහතර	દા-હ-હ-ત્તેર
15	පහලොව	પા-હ-ල-ව
16	දහසය	દા-હ-સ-ય
17	දහහත	દા-હ-હ-ત
18	දහඅට	દા-હ-આ-ત
19	දහනවය	દા-હ-ના-વૈ-ય
20	විස්ස	વૈ-સ
21	විසි එක	વૈ-સි એ-ક
22	විසි දෙක	વૈ-સિ દે-ક
23	විසි තුන	વૈ-સિ ત્રી
24	විසි හතර	વૈ-સિ હ-ત્તે-ર

⁹¹ 9의 경우 **නවය** (나위여) 라고도 하지만 **නමය** (나머여) 라고 하기도 한다. 두 단어 모두 많이 쓰므로 어느 단어를 쓰든 관계없다. 이는 19, 29 등에 대해서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30	තිහ	ତିହି
31	ତିස් එක	ତିස් ଏକ
32	ତିස් දෙක	ତିස් ଦෙକ
40	හතලිහ	ହାତ୍ତଲିହି
41	හතලିස් එක	ହାତ୍ତଲିස් ଏକ
42	හතලିස් දෙක	ହାତ୍ତଲିස් ଦෙକ
50	පණහ	ପାନ୍හ
51	පණස් එක	ପାନ୍හස් ଏକ
52	ପණස් දෙක	ପାନ୍ହස් ଦେକ
60	හැට	ହାତ୍ତ
61	හැට එක	ହାତ୍ତ ଏକ
62	හැට දෙක	ହାତ୍ତ ଦେକ
70	හත්තැව	ହାତ୍ତା଱
71	හත්තැ එକ	ହାତ୍ତା ଏକ
72	හත්තැ ଦෙක	ହାତ୍ତା ଦେକ
80	අස୍ଥ	ଆସୁ଱
81	අସ୍ଥ එକ	ଆସୁ ଏକ
82	අସ୍ଥ ଦେକ	ଆସୁ ଦେକ
90	අනୁ	ଆନୁ଱
91	අනୁ එକ	ଆନୁ ଏକ
92	අନୁ ଦେକ	ଆନୁ ଦେକ
100	සිය	ସିୟ
101	එକසිය එକ	ଏକ୍ତସିୟ ଏକ
102	එକସිය ଦେକ	ଏକ୍ତସିୟ ଦେକ
200	ଦෙසිය	ଦେସିୟ
201	ଦେସිය එକ	ଦେସିୟ ଏକ
202	ଦେସිය ଦେକ	ଦେସିୟ ଦେକ
300	තුන්සිය	ତୁନ୍ତସିୟ
301	තුන්ସිය එକ	ତୁନ୍ତସିୟ ଏକ
400	හାରସිය	ହାତ୍ତସିୟ
500	ପන්ସිය	ପାନ୍ତସିୟ
600	ଷයସිය	ହାୟ୍ତସିୟ
700	හත්ସිය	ହାତ୍ତସିୟ
800	ଅଠସිය	ଆତ୍ତସିୟ
900	ନවସිය	ନା଱୍ତସିୟ
1000	දଶ	ଦାହ

1001	එක දාස් එක	에꺼 다스 에꺼
2000	දෙ දාහ	데 다하

10.1.2 서수 ක්‍රම සුවක සංඛ්‍යා

1 st	පලවැනි	빨러왜니 ⁹²
2 nd	දෙවැනි	데왜니 ⁹³
3 rd	තුන්වැනි	똥왜니
4 th	හතරවැනි	하떠러왜니
5 th	පස්වැනි	빠스왜니
6 th	හයවැනි	하여왜니
7 th	හත්වැනි	하트왜니
8 th	අටවැනි	아떠왜니
9 th	නවවැනි	나워왜니
10 th	දහවැනි	다하왜니
11 th	එකොලොස්වැනි	에꼴로스왜니
12 th	දොලොස්වැනි	돌로스왜니
13 th	දහතුන්වැනි	다하똥왜니
14 th	දහහතරවැනි	다하하떠러왜니
15 th	පහලොස්වැනි	빠할로스왜니
16 th	දහසයවැනි	다하써여왜니
17 th	දහහත්වැනි	다하하트왜니
18 th	දහඅටවැනි	다하아떠왜니
19 th	දහනවවැනි	다하나워왜니
20 th	විසිවැනි	위씨왜니
21 st	විසිඑක්වැනි	위씨에끄왜니
22 nd	විසිදෙවැනි	위씨데왜니
23 rd	විසිතුන්වැනි	위씨똥왜니

⁹² 구어체에서는 **පලවැනි**(빨러왜니) 라고 하며 문어체에서는 **පලමුවැනි** (빨러무왜니) 라고 한다.

⁹³ 서수 표기의 경우 **වැනි** (왜니) 라고 표기하기도 하나 **වෙනි** (웨니)라고 표기 해도 큰 문제는 없다.

10.1.3 분수 **භාග සංඛ්‍යා**

1/2	බාගය	මාගෙර (මුරු)
1/3	තුනෙන් එක	තුනේ එක
1/4	හතරෙන් එක හෝ කාල	හතරේ එක හෝ කාල
1/5	පහෙන් එක	පහේ එක
3/4	හතරෙන් තුන හෝ තුන් කාල	හතරේ තුන හෝ තුන් කාල

10.1.4 **අංක** **සංඛ්‍යා** **කිරීම**

අංක සල කළ විට එක් එක් අංකයේ පසු - **සි(ය)** සවිස්තරයක් ඇත.

1	එකසි	එකසිය
2	දෙකසි	දෙකසිය
3	තුනසි	තුනසිය
4	හතරසි	හතරසිය
5	පහසි	පහසිය

10.1.5 **අංක** **සංඛ්‍යා** **සල කිරීම**

එක	එකසිය	එකසිය
දෙක	දෙකසිය	දෙකසිය
තුන	තුනසිය	තුනසිය
හතර	හතරසිය	හතරසිය
පහ	පහසිය	පහසිය

작년	ගිය අවුරුද්දේ	기여 아우룻데
올해	මේ අවුරුද්දේ	મે 아우룻데
내년	ලබන අවුරුද්දේ	라버너 아우룻데

10.2.2 월 මාස

1월	ජනවාරි	자녀와리
2월	පෙබරවාරි	பைபரீ와리
3월	මාර්තු	마르뚜
4월	අප්‍රේල්	아쁘렐
5월	මැයි	매이
6월	ජුනි	주니
7월	ජූලි	줄리
8월	අගෝස්තු	아고스뚜
9월	සැප්තැම්බර්	షెప్టెంబర్
10월	ඔක්තෝබර්	옥토버르
11월	නොවැම්බර්	노썔버르
12월	දෙසැම්බර්	데썔버르

10.2.3 요일 දවස්

일요일	ඉරිදා	이리다
월요일	සඳුදා	상두다
화요일	අඟහරුවාදා	앙거하루와다
수요일	බදාදා	바다다
목요일	බ්‍රහස්පතින්දා	브라하스빠떤다
금요일	සිකුරාදා	씨꾸라다
토요일	සෙනසුරාදා	세너수라다

10.3 시간 표현

10.3.1 시간의 표현

시각 표현에 있어서 정각은 그냥 숫자 세듯이 **එකයි**(에카이), **දෙකයි**(데카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된다. 분 표시도 시, 분 순서로 그냥 읽어주면 된다. 30분을 넘어 가는 경우 그냥 그대로 읽어주는 방법과 ‘몇 시까지 몇 분’ 하는 식으로 읽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6시 50분의 경우 **හයයි පනහයි**(하야이 빠너하이) 라고 해도 되고 ‘7시까지 10분’ 과 같은 식으로 **හතට දහයයි** (하떠떠 다하야이) 로 말해도 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공(共)히 잘 쓰인다.

하지만 문제는 15분, 30분, 45분 인데 15분, 45분 일 경우 **කාලයි**(칼라이)를 쓴다. **කාලයි** (칼라이)는 ‘1/4’ 이란 뜻이다. 30분의 경우 **හමාරයි** (하마라이) 를 쓰는데 조금 조심해야 한다. ‘4시 반’ 이라고 말할 때 **හතරයි හමාරයි** (하떠라이 하마라이) 가 아니라 **හතර හමාරයි** (하떠러 하마라이)다. 반면 **කාලයි** (칼라이) 의 경우에는 **පහයි කාලයි** (빠하이 칼라이) ‘5시 15분’ 과 같이 숫자 읽듯이 말하면 된다.

1시	එකයි	에카이
2시 10분	දෙකයි දහයයි	데카이 다하야이
3시 15분	තුනයි කාලයි	뚜나이 칼라이
4시 반	හතර හමාරයි	하떠러 하마라이
5시 40분	පහයි හතළිහයි	빠하이 하떨리하이
	හයට විස්සයි	하여떠 위싸이
6시 45분	හයයි හතළිස්පහයි	하야이 하떨리스빠하이
	හතට කාලයි	하떠떠 칼라이

다음은 말할 때 주의를 요하는 표현들이다. **හ**(하) 발음이 겹치기 때문에 두 번 발음하지 않고 하나를 생략한다.

5시 반	පහමාරයි	빠하마라이
11시 반	එකොලහමාරයි	에꼴라하마라이
12시 반	දොලහමාරයි	돌러하마라이

10.3.2 하루의 구분

새벽	අලුයම , උදේ පාන්දර	알루여머, 우데 뻬더리
아침	උදේ	우데
점심 경	දවල්	다왈
오후, 저녁	හවස	하워서 ⁹⁷
밤	රෑ	래

10.4 색 පාට

검정색	කළු පාට	갈루 빠떠
흰색	සුදු පාට	수두 빠떠
빨간색	රතු පාට	라뚜 빠떠
주황색	කැබිලි පාට	멤빌리 ⁹⁸ 빠떠
노란색	කහ පාට	까하 빠떠
녹색	කොළ පාට	폴러 빠떠
파란색	නිල් පාට	닐 빠떠
보라색	දම් පාට	담 빠떠
갈색	ඳුඹුරු පාට	둠부루 빠떠

⁹⁷ 싱할라어에서는 오후와 저녁의 구분이 없다. හැන්දැව (헨대위) 혹은 සැන්දැව (샌대위) 라고 오후를 지칭하는 말이 따로 있기는 하나 아주 공식적인 인사말이나 공고문 에서나 등장할 뿐 실제 대화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실제 싱할라 어권(語圈)의 사고(思考)에서는 오후와 저녁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හවස (하워서) 는 일반적으로 정오 이후 부터 일몰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⁹⁸ කැබිලි (멤빌리) 는 키크코넛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말하는 ‘주황색’은 싱할라어 에서는 ‘키크코넛 색’을 말한다. 녹색과 노란 색 역시 마찬가지 이다. 녹색을 뜻하는 කොළ පාට (폴러 빠떠) 에서 කොළ (폴러) 는 ‘잎사귀’ 를 의미하며 노란색을 뜻하는 කහ පාට (까하 빠떠) 에서 කහ (까하) 는 스리랑카 커리에 첨가하는 노란 색의 커리 가루를 뜻한다.

10.5 기초 형용사

가까운	ලඟ	랑거	가난한	දුප්පත්	둑뻗
가벼운	සැහැල්ලු	새 헬루	간단한	සරල	사덜러
				ලේසි	레지
거짓의	බොරු	보루	거친	ගොරෝසු	고로수
게으른	කම්මැලි	깜멜리	깔끔한	පැහැදිලි	빠해딜리
깨끗한	පිරිසිදු	빠리시두	꼭 끼는	තද	따더
나쁜	නරක	나러꺼	낮은	පහල	빠할러
넓은	පලල	빨렐러	높은	උස	우써
다른	වෙනස්	웨나스	더러운	අපිරිසිදු	아빠리시두
둥근	රවුං	라웅	뚱뚱한	මහන	마하떠
뜨거운	උණු	우누	더운	රස්නේ	라스네
맛있는	රස	라서	명청한	මෝඩ	모더
못 생긴	කැන	깨떠	무거운	බර	바러
부유한	පෝසත්	போச	비슷한	සමාන	사마너
비싼	ගණන්	가냥	빠빠한	කෙටිටු	갯뚜
사실의	අත්ත	앳떠	새로운	අලුත්	알룻
쉬운	ලේසි	레지	신	අඹුල්	앰불
싼	ලාබ	라버	쓴	තිත්ත	떷떠
아름다운	ලස්සන	라써너	어려운	අමාරු	아마루
어린	කරුණ	따루너	영리한	දක්ෂ	닥서
오래된	පරණ	빠러너	웁은	හරි	하리
완전한	සම්පූර්ණ	삼뿌르너	자랑스런	ආඩම්බර	아담버러
작은	පොඩි	போடி	잘못된	වැරදි	왜러디
	පුංචි	뿐찌			
조용한	නිස්සද්ද	니삿더	좋은	හොඳ	혼더
짧은	කොට	꼬떠	추운	සීතල	씨떨러
큰	ලොකු	로꾸	험렁한	බුරුල්	부룰

10.6 기초 동사표

싱할라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한 불규칙한 동사들을 모아 봤다. 우연인지 일부러 인지 많이 쓰이는 동사들이 불규칙형인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불규칙한 동사들은 일부러 암기하려 하기 보다는 많이 접함으로써 익숙해 졌으면 한다. 현재형, 과거형, 분사형 만 알면 나머지 형태들은 다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이 세 형태만 수록하겠다.

현재형	과거형	분사형
ඵනවා (에너와) 오다	ආවා (아와)	ආවිල්ලා (애월라)
යනවා (야너와) 가다	ගියා (기야)	ගිහිලා (기힐라) ගිහින් (기형)
කනවා (까너와) 먹다	කෑවා (깨와)	කාලා (깔라)
දානවා (다너와) 놓다	දැමීමා (댐마)	දාලා (달라)
දෙනවා (데너와) 주다	දුන්නා (둔나)	දීලා (딜라)
බෙනවා (보너와) 마시다	බීවා (비와) බීව්වා (비우와)	බීලා (빌라)
වෙනවා (웨너와) 되다	උනා (우나)	වෙලා (웰라)
කරනවා (꺼러너와) 하다	කළා (꺼라)	කරලා (꺼릴라)
ගන්නවා (간너와) 사다,얻다	ගත්තා(갓따)	අරගෙන(아러게너)
දන්නවා (단너와) 알다	දැනගත්තා(대너갓따)	දැනගෙන(대너게너)
ඉන්නවා (인너와) 있다	හිටියා(히띠야)	ඉඳලා(인딜라)
තියෙනවා (띠예너와) 있다	තිබුනා(띠부나)	තිබිලා(띠빌라)
තියනවා (띠여너와) 두다	තිබ්බා(땡바)	තියලා(띠열라)
ගේනවා (게너와) 가져오다	ගෙනවා(게나와)	ගෙනල්ලා(게날라)
පේනවා (빼너와) 보이다	පෙනුනා(빼누나)	පෙනිලා(빼닐라)
වදිනවා (와디너와) 부딪히다	වැදුනා(왜두나)	වැදිලා(왜딜라)

10.7 연습 문제 해답

- 1 **කොහෙද වැඩ කරන්නේ?** (코헤더 왜더 꺼란네?)
 පොලිසියේ වැඩකරනවා. (폴리씨예 왜더꺼러너와)
- 2 **ඔයාගේ නම මොකද්ද?** (오야게 나며 모캬더?)
 මගේ නම මින්ජු. (마게 나며 민주.)
- 2 **මොනවාද ඉගෙන ගන්නේ?** (모너와더 이게너 간네?)
 සිංහල ඉගෙන ගන්නවා. (싱할러 이게너 간너와.)
- 3 **කොහෙද යන්නේ?** (코헤더 얀네?)
 또는 කොහාටද යන්නේ? (코하떠더 얀네?)
 මම බස් නැවතුම් පොලට යනවා. (마며 바스 내워똥 뿔러떠 야너와.)
- පන්සල ඉස්කොලය ඉස්සරහ තියෙනවාද?**
 (뽀썰러 이스폴러여 잇싸라하 떠예너와더?)
 හන්දියෙන් දකුණට හැරුනාම තැපැල් කන්තෝරුව හම්බවෙනවා.
 (한디엔 다크너떠 해루나며 때뽀 간또루워 함버웨너와.)
 ෆාමසිය හම්බවෙනකල් කෙලින්ම යන්න.
- 1 **(파머시 함버웨너깁 켈린며 얀너.)**
 ඉස්කෝලය පහු උනාට පස්සේ දෙවැනි හන්දියෙන් දකුණට
 හැරෙන්න
 (이스폴러여 빠후 우나떠 뽀싸 데왜니 한디엔 다크너떠 해렌너.)
 කෙලින්ම ගහිලා වම් පැත්තේ තියෙන කඩියක් හොයන්න
 (켈린며 기힐라 완 뽀때 떠예너 까데약 호얀너.)
- 3 **ධර්මපාල මාවතේන් කෙලින්ම ගියාම නාවල පාර හම්බවෙනවා.**
 (다르마뽀러 마워뽀 켈린며 기야며 나왈라 빠러 함버웨너와.)
 다르마뽀러 마워따로 켑 가면 나왈라 로드가 나옵니다.
 එහනින් දකුණට හැරිලා දෙවැනි හන්දියේ තියෙන්නේ
 මධ්‍යම තැපැල් කාන්තෝරුව.
 (에떠닝 다크너떠 해틸라 데왜니 한디예 떠엔네 마드야며 때뽀 간또루워.)
 2 거기서 우회전해서 두번째 사거리에 중앙 우체국이 있습니다.
 ඒ හන්දියෙන් වමට හැරෙන්න.
 (에 한디엔 와며떠 해렌너.)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එහෙන්නම් වම් පැත්තේ මහජන බැංකුව පේනවා.
 (에헨낭 완 뽀때 마하자너 뽀꾸워 빠너와.)
 그러면 왼쪽에 People's bank 가 보입니다.

ඒ ඉස්සරහින් උමිරිය ස්ථානය තියෙනවා.

(에 잇써라헝 둠리여 스타너여 띠예너와.) 그 앞에 기차역이 있습니다.

A: මාතර යන බස් එක කීයටද තියෙන්නේ?

(따따라 야너 버스 에꺼 끼여떠더 띠옌네?)

B: 6(හය)ට තියෙනවා. (하여떠 띠예너와)

A: A/C බස් එකද? සාමාන්ය බස් එකද?

(A/C 바스에꺼더? 사만여 버스 에꺼더?)

4 **පා**

B: සාමාන්ය බස් එක . A/C බස් එක ඕනෑද?

(사만여 버스 에꺼. A/C 버스 에꺼 오내더?)

A: ඔව් . ඒක කීයටද තියෙන්නේ? (오우. 에꺼 끼여떠더 띠옌네?)

B: 6(හය) හමාරට තියෙනවා (하여 하마러떠 띠예너와)

A: පැය කීයක් ගතවෙනවාද? (빼여 끼약 가떠웨너와더?)

B: පැය 4(හතර)ක් ගත වෙනවා (빼여 하떠락 가떠웨너와)

අලු ග්‍රම් 500(පන් සිය)යි, හාල් කිලෝ 1(එක)යි,

1 ලුනු ග්‍රම් 300(තුන් සිය)යි දෙන්න .

5 **පා**

(알러 그람 뽀씨야이, 할 킬로 에까이, 루누 그람 뽀씨야이 덴너)

2 කෙසෙල් ගෙඩියකට කීයද? (케셀 게디여꺼떠 끼여더?)

3 අපේ කඩේ ලුනු නෑ. ඉවරයි. (아빠 까데 루누 내. 이워라이.)

1 බීම අවශ්‍යද?(비떠 아워셔더?)

2 කිරි තේ දෙකක් දෙන්න(끼리 떼 데깅 덴너)

6 **පා**

2 බිත්තර කරි තියෙනවාද? (빋떠러 카리 띠예너와더?)

2 ඕව්. තියෙනවා. දෙන්නද? (오우. 띠예너와. 덴너더?)

3 කොහෙද යන්නේ? (꼬헐데 얀네?)

3 කඩේට lunch එක ගන්න යනවා. (까데떠 런치 에꺼 간너 야너와.)

7 **පා**

1 වන්දන හෙට අපේ ගෙදර එනවාලු.

(찬더너 헐떠 아빠 거데러 예너왈루.)

වන්දන හෙට අපේ ගෙදර එනවා කීවා. හෝ

(찬더너 헐떠 아빠 게데러 예너와 끼와) 또는

2

වන්දන හෙට අපේ ගෙදර එනවා කියලා කීවා.

(찬더너 헐떠 아빠 게데러 예너와 끼옐라 끼와)

- 3 එයාට සිංහල හොඳට පුළුවන් කියලා මම හිතනවා.
(에야떠 싱할라 혼더떠 뽀루왕 끼열라 마떠 히떠너와.)
- 4 බදාදා දවස්වල අපි සෙල්ලම් කරන Ground එක ලොකුයි .
(바다다 다워스월러 아뻘 셀람 꺼러너 Ground 에꺼 로꾸이.)
- 5 අද හවස අපි ගිය පන්සල ගොඩක් ප්‍රසිද්ධයි .
(아더 하워서 아뻘 기여 뽀설러 고닥 뽀라싯다이.)
- 6 හෙට උදේ 10(දහය)ට ඉස්පිරිතාලයේදී හම්බවෙමු
(혜떠 우데 다하여떠 이스뽀리딸러예디 함버웨무.)

- 8 과
- 1 රට ඇතුලේ PostCard එකක් යවන ගාන කීයද?
(라떠 애뜰레 PostCard 예각 야워너 가너 끼여더?)
 - 2 රුපියල් 17(දහ හතේ) මුද්දරයක් ගහලා මට දෙන්න.
(루뽀알 다하 하떼 뽀터러약 가할라 마떠 덴너.)
 - 3 Film එක ගොඩක් වෙලා බැලුවාම ඇස් නරක වෙනවා.
(Film 에꺼 고닥 웰라 뽀루와떠 애스 나러꺼 웨너와.)

- 9 과
- 1 මේ බෙහෙත් දවසකට තුන් පාරක්, කෑමට පස්සේ බොන්න .
(떼 베헛 다워서꺼떠 톤 뽀락, 깨떠떠 뽀썰 본너.)
 - 2 බත් කාපුහාම බඩ රිදෙනවා, වමනේ යනවා.
(봓 까뿌 하떠 마더 리데너와, 와떠네 야너와.)
 - 3 ගිය සතියේ කකුලේ වෙච්ච තුවාල ඉදිමිලා දැවිදින්න අමාරුයි.
(기여 사떠예 까꼴레 쁘썈 두왈러 이디밀라 애위딘너 아마루이.)